

3-24-2014

**일터에서 영성에 관한 이민사회의 적용 : 로렌스형제의 하나님 임재
연습을 중심으로**

Dat Ryong Moon 문대룡

Follow this and additional works at: <https://digitalcommons.fuller.edu/kdmin> Part of the [Missions and World Christianity Commons](#)**Recommended Citation**

문대룡, "일터에서 영성에 관한 이민사회의 적용 : 로렌스형제의 하나님 임재연습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풀러신학대학원, 2014.

This Project is brought to you for free and open access by the Korean Studies Center at Digital Commons @ Fuller. It has been accepted for inclusion in Korean Doctor of Ministry Projects / 한인 목회학 박사 졸업 논문 by an authorized administrator of Digital Commons @ Fuller.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archives@fuller.edu.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WORKPLACE SPIRITUALITY AS APPLIED TO THE KOREAN-AMERICAN IMMIGRANT COMMUNITY: BASED ON BROTHER LAWRENCE'S 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

written by

DAE RYONG MOON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Chung Kuhn Lee


Euiwan Cho


Jin Ki Hwang

March 24, 2014

**WORKPLACE SPIRITUALITY AS APPLIED TO THE
KOREAN-AMERICAN IMMIGRANT COMMUNITY:
BASED ON BROTHER LAWRENCE'S
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DAE RYONG MOON

MARCH 2014

일터에서의 영성에 관한 이민사회의 적용
-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 임재연습을
중심으로 -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이 정 근 교수

문 대 룡

2014년 3월

Abstract

Workplace Spirituality as Applied to the Korean-American Immigrant Community:

Based on Brother Lawrence's *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

Dae Ryong Moon

Doctor of Ministry

2014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ince we all work in some way, meeting God in our own workplace and developing a Christian spirituality of work is vital for a healthy Christian. Limiting the target audience to first- and 1.5-generation Korean immigrant Christians, this paper attempts to help them bring the presence of God into their own workplaces. For this purpose, the study looks closely at the life of Brother Lawrence, who is known for his daily spirituality and ability to bring God into every aspect of his life.

This paper consists of six chapters. After the introduction, chapter 2 provides an in-depth study on the general concepts of work in today's society, as well as the biblical view of work and a theology of work and spirituality. Chapter 3 introduces and analyzes Brother Lawrence's classic work, *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 as a model for spirituality in the workplace. The chapter then touches upon practical ways to apply the model to the Korean-American immigrant community context.

Chapter 4 examines current practices of spiritual training at workplaces in both Korean and Korean-American contexts and discusses their shortcomings and ways to improve upon them. Chapter 5 suggests concrete plans for Korean-Americans to incorporate the presence of God in their workspaces. The chapter also presents ways that local church ministers can teach church members to practice the presence of God in their workplaces.

Chapter 6 summarizes the paper and draws its conclusion: Because the

decline of Christian culture and tradition makes it ever more difficult to live as an authentic Christian, it is even more important to be awakened and practice the spirituality exemplified by Brother Lawrence: work, prayer, contemplation of the Word, and service. As the practice of God's presence in the workplace allows Christians to experience God's works, it will enrich their spiritual life and expand the kingdom of God. This practice will reveal the purpose of life, ultimately leading to fulfillment of the will of God, practicing the teaching of Jesus Christ: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 . . the light of the world."

Theological Mentors: Chung Kuhn Lee, DMin
 Euiwan Cho, PhD
 Jin Ki Hwang, PhD

감사의 글

먼저 목회학박사(DMin) 과정을 잘 마치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늦은 나이에 쉽지 않았지만 젊은 목사님들과 함께 부지런히 책과 씨름하며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겐 귀한 기회였습니다. 복음주의 최고의 신학교에서 훌륭한 교수님들을 통하여 목회자로서 필수적인 내용들(신약성경 신학, 구약성경 신학, 예배의 이론과 실제, 성경적 설교의 다양성, 건전한 기독교 가정, 일상생활 영성, 평신도 상담 등)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은 평생의 축복일 것입니다. 부족한 저를 격려하시며 이끌어 주신 김세운 전임 원장님과 황진기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교수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면서 자상하게 지도해주신 이정근 지도교수님과 조의완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텍사스 휴스턴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섬기다가 2011년 초 캘리포니아로 이사하여 St. Joseph Hospital에서 RN으로, 그리고 St. Vincent Hospital에서는 매니저로 근무하며 힘든 가운데도 항상 기도와 헌신으로 나의 학업을 도와준 사랑하는 ‘복의 근원(복근)’아내와, Fuller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도록 추천하고 적극적으로 기도와 경제적 후원을 아끼지 않은 사랑하는 귀한 딸 은혜(Rebecca)와 아들 승원(Eric)이에게 한 없이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 목회자로서 새롭게 재충전하였으므로 주님이 보내신 곳에서 다시 저의 삶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바치고자 합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늘 믿으며 의지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시 18:1).

2014년 3월

문대룡 목사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제 2 장 일과 영성	5
제 1 절 현대인과 일	5
1. 일, 근로, 노동에 대한 이해	5
2. 일에 대한 한국인의 관점	7
3. 일에 대한 서양인의 관점	9
가. 고대 헬라세계	9
나. 초기 및 중세 기독교	10
다. 르네상스 및 종교개혁	11
라. 산업혁명	12
마. 공산주의자들이 일에 대한 이해	13
4. 오늘날과 미래 일의 세계	14
제 2 절 일에 대한 성경의 관점	15
1. 축복과 저주로서의 일	17
2.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19
가.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19
나. 일을 통하여 사랑을 실천	22
3. 그리스도인은 소명자	24
가. 소명에 대한 이해	24
나. 일은 그리스도인의 소명	27
다. 평신도 역시 소명을 받은 사람	31
제 3 절 일의 신학과 영성	35

1. 일의 신학	35
가. 실천적 신학	35
나. 현실에 뿌리박은 신학	36
2. 영성과 일터	38
가. 영성에 대한 이해	38
나. 일터에서의 영성	39
3. 영성훈련 및 사역	41
가. 서양	41
(1) 수도원	41
(2) 새로운 수도원 운동	42
나. 한국 및 미주지역	44
(1) 한국	44
(2) 미주지역	46
다. 영성훈련 및 사역에 대한 분석	46
 제 3 장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연습	49
제 1 절 로렌스 형제의 영성의 삶	50
1. 로렌스 형제의 삶	50
2. 하나님 임재연습의 삶	55
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대화	55
나. 한결같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58
다. 영적 훈련으로서의 하나님의 임재연습	61
제 2 절 이민사회에서의 적용 가능성	63
1. 이민사회에 대한 이해	63
2. 하나님의 임재연습이 필요한 이유	67
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일터에서의 영성개발	68
나. 죄악의 유혹에 대한 전쟁터로서의 일터	69
다. 이민 생활의 특수성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71

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준비하는 일터	72
마. 지속적인 영성을 위해	72
바. 실현가능한 일터의 영성으로서의 하나님 임재연습	73
3. 이민사회 일터에서 적용을 통한 가치와 유익	75
 제 4 장 일터에서 영성에 대한 사례연구	79
제 1 절 일터에서 영성 활동의 현황	80
1. 한국 직장 내 기독교 신우회(직장선교회)	80
가. 쌍용건설 기독교 신우회	83
나. 인천광역시청 기독교 신우회	84
2. 미국 내 직장 그리스도인	85
가. 그리스도인의 모임들	86
나. 직장 내 기독교인 모임 및 신앙운동	88
제 2 절 문제점 및 발전방향	91
1. 한국의 직장 내 기독교 신우회	91
가. 직장에서의 중보기도	92
나.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섬김 사역	92
다. 신뢰 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복음전파	93
라. 잘못된 관행 개선 및 기독교 문화의 확산	93
마.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연습을 실천	94
2. 미주 이민사회의 한인 그리스도인	95
 제 5 장 이민사회 일터에서의 하나님의 임재연습	99
제 1 절 이민사회의 일터	99
1. 이민사회 일터에 대한 이해	99
2. 일터의 특성	103
가. 영혼의 격전지	103
나. 삼중직의 사역지	104

다. 영성의 현장	106
3. 이민사회 일터에서 하나님의 임재연습	109
가. 노동(일)	110
나. 기도	111
다. 말씀묵상	114
라. 섬김(사랑의 실천)	117
제 2 절 일터에서 하나님의 임재연습 적용방안	121
1. 노동(일)	121
2. 일터에서 기도	122
가. 일터에 도착했을 때 (소명의 기도)	123
나. 일을 하면서 (임재의 기도)	123
다. 중간에 일을 마칠 때 (감사의 기도)	123
라.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결단의 기도)	124
마. 일터에서 바라는 소원이 있을 때 (소원의 기도)	124
바. 골리앗(난관, 장애)을 만났을 때 (다윗의 기도)	125
사. 핍박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돌아봄의 기도)	125
아. 일터에서 잘못했을 때 (고백의 기도)	126
(1) 불평불만 했을 때	126
(2)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126
(3) 죄를 지었을 때	127
자. 일터를 떠날 때 (마감의 기도)	127
3. 일터에서 말씀묵상 (일자별 말씀묵상)	128
가. 제1일 말씀묵상	130
나. 제2일 말씀묵상	130
다. 제3일 말씀묵상	131
라. 제4일 말씀묵상	131
마. 제5일 말씀묵상	132
바. 제6일 말씀묵상	132

사. 제7일 말씀묵상	133
아. 제8일 말씀묵상	133
4. 일터에서의 섬김	134
제 3 절 하나님의 임재연습 적용방안에 대한 훈련	135
1. 훈련 시간 및 팀 편성	135
2. 훈련 방법	136
3. 기대 효과	137
4. 후속 조치	138
제 6 장 결 론	140
제 1 절 요약	140
제 2 절 제언	142
부록	144
1. 영성용 휴대카드	144
참고문헌	148
Vita	155

제 1 장 서 론

본 논문은 일터에서 영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제대로 누릴 수 없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일터는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우리를 있게 하신 곳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을 미치는 활동범위이다.¹⁾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거나 일터에서의 소명을 인식하지 못한 채 행동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다면 안타까운 일이다. 일에 대한 교인들의 올바른 생각과 행동을 돕는 것은 목회자의 사명이며, 일터에서의 영성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도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이다. 미주 지역에 사는 이민자로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일과 일터, 그리고 영성의 삶에 대하여 고찰할 것이다.

제 1 절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사람은 일하며 살아가도록 지음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다. 일은 인간이 살아가는 행위이며, 이 세상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표시이기도 하다.²⁾ 일에 대한 신학과 일터에서의 영성, 그리고 일상의 삶속에 적용하는 부분은

1) Mike and Debi Rogers, *일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Experiencing God in Your Workplace)*, 박영철 역 (서울: 요단출판사, 2006), 37.

2) "Laborem Exercens," *Pope John Paul II's Encyclical on Human Work* (Catholic Truth Society, 1981), 4; John Stott, *현대사회 문제와 기독교적 답변 (Issues Facing Christians Today)*,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209에서 재인용.

아직도 많은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그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일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의식하지 못하거나 잊은 채 지내왔기 때문이다.

일은 다른 피조물들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만이 알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다.³⁾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 5:13,14, 한글개역개정)⁴⁾고 하셨다.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며, 일터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이다. 일터로 나갔던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이면 교회에 모여 예배드림은 한 주 동안 건강을 주시고 세상에서 일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런데 일터에서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고, 빛을 비추기는커녕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름도 없이 행동하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여겨진다.

미국에 건너와 이민자로 살아가는 한인들이 부지런히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하면서도 일터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잊은 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성을 잃어버렸거나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영성은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일터에서 하나님과 교제 없이는 유지될 수가 없다. 일에 대한 신학과 영성은 그리스도인에게 대단히 중요하고 또한 긴요한 사항이다. 일에 대한 바른 이해와 행동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도 사명자로 살아갈 수가 없을 것이다.

한국의 교회들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미주지역에 있는 한인교회들은 교회에 모이기를 강조하며 많은 사역들이 모인 교회(gathered church)⁵⁾에서 이뤄지고 있다. 교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주일예배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여러 모임(새벽기도회, 수요일예배, 성경공부 등)들이 있고 소그룹(구역, 다락방, 목장 등)으로도 모인다. 교회마다

3) Leonard Sweet, *관계의 영성 (Out of the Question... into the Mystery)*, 윤종석 역 (서울: IVP, 2011), 248.

4) 이하의 모든 성경번역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한글개역개정 성경을 따른다.

5) 성경이 가리키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모였을 때는 모인 교회라 할 수 있고, 성도들이 흩어져 있을 때는 흩어진 교회라 할 수 있다. 오성춘 외 11인, *기독교인의 직업과 영성* (서울: 장로회신학교출판부, 2001), 282.

모이는 것을 강조하며 여러 가지 사역을 진행하는데 과연 모이지 못하는 교인들에 대한 영적인 지도는 어떻게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의문이다. 교회는 모여 있는 공동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로 값 주고 사신 백성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흩어져 가정과 직장에 있을 때에도 교회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 속에 현존한다.⁶⁾

목회자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맡아 양떼를 돌보는 책임을 부여받아 감당한다. 그들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도우며,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속하도록 자극하고 격려하고 훈련시켜야 하는 목회적 책임이 주어져 있다.⁷⁾ 이를 위하여 목회자는 교회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교회 밖에서의 경건생활로 이어지도록 하며, 그렇지 못한 취약점들이 있다면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힘써야 할 것이다. 가족같이 모이는 작은 교회 목회자만이 아니라 중형과 대형교회 목회자도 목양의 방법은 다를지라도 책임은 동일하다. 주일임에도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일터에서 일하는 교인이 있다면 목회자는 그 교인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일터에서도 주님을 만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일터에서의 영성을 강화시키는데 있다. 이민사회 일상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의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일에 대한 성경의 관점과 일의 신학과 일터에서의 영성을 고찰하며, 영성의 삶에 대하여 좋은 모델이 되고 있는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연습을 어떻게 이민사회의 일터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논문은 주로 한국에서 태어나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 와서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 하는 한인 1세와 1.5세 그리스도인들에 집중하고 있다. 얼굴 모습은 한국인이지만 미국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한국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이미 사고와 행동이 현지화 되어 버린 한인 2세나 3세들은 연구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

6) 오성준 외 11인, *기독교인의 직업과 영성*, 35.

7) 이종표 외 11인, *교회발전을 위한 영성개발*, (서울: 쿤란출판사, 1992), 109.

구결과를 적용하는 주된 범위도 한국의 전통적 문화와 사상을 어느 정도는 지닌 채 살아가는 이민자들이 될 것이며, 한인 2세나 3세 그리스도인들이 일터에서 하나님의 임재연습을 실천하기 위한 연구는 더욱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다.

본 논문은 여섯 부분으로 전개될 것이다. 1장은 서론이며, 2장은 현대인과 일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 일에 대한 성경의 관점, 그리고 일의 신학과 영성에 대하여 고찰한다. 3장은 일터에서의 영성모델로서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연습을 설명하고, 이에 대하여 이민사회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살펴본다. 4장은 한국과 미국의 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영성훈련의 현황과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하여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찾아볼 것이다. 5장은 이민사회 일터에서 하나님의 임재연습을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지역교회에서 목회자가 어떻게 교인들에게 일터에서의 하나님의 임재연습을 실천하도록 훈련할 것인가에 대하여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6장은 요약 및 결론이다.

연구의 방법은 2장과 3장 등 이론적인 부분은 관련문헌과 자료를 위주로 기술적인 방법(descriptive method)으로 수행하며, 4장은 일터에서의 영성에 대한 사례연구(case study)를 중심으로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5장은 본 연구의 실천 및 적용부분으로서 현장연구(field research)에 중점을 두고 수행될 것이다.

제 2 장

일과 영성

사람들은 세상에서 일을 하며 살아간다. 일에 대해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지금 하는 일이 힘들고 지쳐서 그만둘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이 없어서 무슨 일이라도 주어진다면 하고 싶어 오늘도 아침부터 길거리 인력시장에 나가 서성이며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음을 본다. 일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일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기도 하고, 크게 실망하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한다. 일하면서 사람은 성장하고 늙어가고 병들기도 하고 그리고 일 때문에 죽어간다. 일은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주기도 한다.⁸⁾ 일에 대한 정의와 관점, 그리고 일의 영성과 신학을 고찰하고자 한다.

제 1 절 현대인과 일

1. 일, 근로, 노동에 대한 이해

일이란 무엇인가? 만약 일이라는 것을 어떤 금전적인 보상이 따르는 것으로만 이해하게 된다면 집안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하는 것과 같은 움직임이나 병원이나 학교 및 단체 등에서 자원봉사로 활동하는 것은 일이라는 정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8) Tony Campolo, *일터에 사랑 (Everything You've Heard Is Wrong)*, 이승희 역 (서울: 홍성사, 1993), 24.

탁월한 복음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영국의 존 스토틀(John Stott)는 현대사회의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논하면서 3가지 목적에 비추어서 일을 정의하고 있다. 즉, 일이란 (육체적, 정신적 혹은 둘 다)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인데, 일하는 사람에게는 성취감(보상)을, 공동체에는 유익을,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⁹⁾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적합한 정의로 여겨진다. 그런데 이런 정의대로라면 이를테면 많은 사람이 애용하지만 몸에 백해무익한 것으로 알려진 담배를 만드는 것이나, 군수공장에서 핵무기나 미사일과 같은 무기를 만드는데 종사하는 것은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가’ 혹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라는 점에서 사뭇 망설여진다. 그렇다고 그들이 일하고 있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 인간이 하는 일에는 보수를 받는 직업에서부터 가사(家事), 공부, 자원봉사 또는 직업훈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가 있다.¹⁰⁾

국어사전에서는 일을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몸과 정신을 쓰는 짓”¹¹⁾이라고 정의하였다. 일과 비슷한 의미로 근로(勤勞)와 노동(勞動)이 있다. 근로는 “일에 힘쓴다”는 단순한 의미이고,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를 말한다. 이처럼 일과 근로와 노동은 비슷한 의미이므로 본고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사용할 것이다. 구태여 구분해 본다면 일은 근로나 노동의 개념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의미이다. 근로는 일정한 시간 힘을 쓰며 일에 종사하는 그 자체를 말함이고, 노동은 일정한 목적을 두고 생산성이 있도록 자신의 몸을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물론 노동이라고 할 때에는 육체적인 수고만이 아니고 정신적인 수고도 포함된다. 노동은 몸을 움직여서 어떤 목적을 얻어야 하므로 조금은 강제성이 느껴진다. 오락도 몸을 움직이는 것이긴 하지만 오락은 움직임 그 자체가 목적인데 비해서 노동은 어떤 가치를 생산할 목적으로 하는 움직임이므로 다른 것이다.

노동은 일에 비해서는 좁은 의미로 쓰인다.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노동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일터에서 자신이 하는 노동이

9) John Stott, *Decisive Issues Facing Christians Today* (Grand Rapids, MI: Fleming H. Revell, 1998), 173.

10) Robert Banks, *일상생활속의 그리스도인 (Redeeming the Routines)*, 한화룡 역 (서울: IVP, 2001), 68.

11) 윤평어문연구소 편, *금성판 국어사전* (서울: 금성교과서, 1996), 1592.

즐겁고 보람되고 재미있다면 그때 하는 노동은 어떤 가치를 생산하기 위한 움직임이긴 하지만 자발적인 일이 되는 셈이다. 이처럼 일이나 근로나 노동이라는 말은 동의어이면서도 단어가 주는 어감은 조금 다를 수 있다. 사람들 중에는 근로 혹은 노동이라는 말을 들으면 즐겁고 기쁘기보다는 그 반대되는 느낌을 가지기도 한다. 노동이란 말이 지닌 긍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즐거움보다는 어려움의 의미가 더 크며, 또 정신과 육체를 분리하면서 육체노동이라고 하면 차별적인 표현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2. 일에 대한 한국인의 관점

일에 대한 한국인들의 일반적인 관점은 오랫동안 한국인의 사상에 영향을 끼쳐온 불교와 유교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삼국시대 중국을 거쳐 한반도에 들어온 불교는 석가모니가 깨달은 해탈의 경지를 중생들의 수양을 통하여 도달하도록 가르치는데, 인간의 행복과 불행 그리고 죽음이라는 종말적 상황도 신이나 숙명으로 보지 않고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불교에서 출가한 수행자는 하루 한끼는 모든 것을 결식에 의해 해결하는 무소유를 생활신조로 삼고 있다. 그들은 해탈을 목표로 하는 수도를 생활의 제일 목표로 하고 수도생활에 필요한 최저 생필품만 충족되면 만족하였으므로 물질적 생활을 위한 노동이 불필요했다. 또한 노동은 계율을 범하게 만들기 때문에 금지된다. 땅을 판다든지, 나무를 베다든지 하는 노동의 금지는 땅을 파거나 나무를 베면서 땅이나 나무 속에 살고 있는 생물들을 죽일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생물을 죽이는 것은 비구(比丘)들이 엄격히 지켜야 할 불살(不殺) 생계를 범하는 것이 되므로, 율장에서는 비구가 땅을 파는 것을 살생과 동일한 행위로 간주하기까지 하고 있다.¹²⁾ 이처럼 불교에서는 노동을 천시한다.

삼국시대 이전에 한반도에 전래된 유교는 조선시대에는 국가의 통치이념이기도 하였으며, 강력한 중앙집권의 국가체제를 이루는 등 공헌하였지만 여러 가지 폐단¹³⁾

12) 윤병식, *종교철학과 노동의 의미* (서울: 한국정신문화원, 1985), 13; 오성춘 외 11인, *기독교인의 직업과 영성*, 118에서 재인용.

13) 유교의 폐해를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사농공상의 신분사회, 토론후제의 가부장의식, 여성차별의 남성우월의식, 체면 차리기와 형식주의, 제사의 허례의식, 위선을 부추기는 군자의 논리, 혈연중심의 폐쇄성, 스승의 권위강조로 인한 창의성 저해 등을 주장하기도 한다.

도 가져왔다. 지나친 형식주의로 체면 차리기 문화를 낳았고, 사람의 신분을 ‘사농공상’(士農工商)으로 나누어 ‘사’(士)에 해당하는 양반계급은 특권층으로서 다른 신분들을 낮게 여겼다. 양반들은 “덕은 근본이요 재물은 말단”(德者本也 財者末也)이라는 관념이 굳어져 노동을 통한 물질적인 생산이나 이익을 추구하는 직업을 천시하여 그런 일에 종사하고자 하지 않았고, 일은 단지 머슴처럼 아랫사람이 하는 것으로 치부하였다. 유교에서는 육체를 사용하여 하는 일, 즉 노동은 정신을 사용하여 하는 일, 즉 사람을 다스리며 하늘의 도리를 구현하는 것보다 저급한 것으로 여기며 천시하였다. 공자는 지배계급의 권위와 위신의 도구였던 예(禮)를 그의 윤리와 정치사상의 근간으로 삼음으로써 당대의 실질 생산자 계층이었던 농민들과 상공인들을 그의 사상의 언저리로 몰아넣었다.¹⁴⁾ 그는 인간을 군자와 소인으로 구분하여 군자는 지배층을 형성하는 통치자이나 소인은 생산을 담당하는 백성이라 보았다. 그의 제자 맹자도 노동을 천시했다.¹⁵⁾ 그는 소인은 육체로 일하고 군자는 정신으로 일한다고 했으며, 노심자(勞心者)는 남을 다스리고 노력자(勞力者)는 남에게 다스림을 받는다고 보았다.

이러한 불교와 유교의 사상은 한국인에게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사람 다스리는 것을 중시하고 육체적으로 일하는 것을 천시하는 점은 한국인에게 아직도 남아 있다. 동아일보가 1998년 정부수립 50주년 기념으로 직업선호도를 조사하였는데 공무원(16.1퍼센트)과 교육자(13.2퍼센트)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사업가(7.1퍼센트), 엔지니어(5.9퍼센트), 회사원(3.8퍼센트) 순이었다. 10년 후인 2008년 부모의 자녀직업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였을 때도 사(士)에 해당하는 직업이 가장 높았다.¹⁶⁾ 이런 조사들을 통해서 볼 때 한국 사회는 아직도 사(士)를 선호하고 있으면서도 점차적으로 변화되고 있음도 보여준다.

이것은 130여년전 한반도에 개신교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며 지금껏 이뤄온 변화이기도 하다. 선교사들은 복음뿐만 아니라 서구문화와 문물의 전래자이기도 하였기에 유교적 영향 하에 있던 한국 사회에 남녀평등과 여권신장,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

14) 오성춘 외 11인, *기독교인의 직업과 영성*, 118.

15) 오성춘 외 11인, *기독교인의 직업과 영성*, 118.

16) 공무원 22.7퍼센트, 교사 10.0퍼센트, 교수 7.6퍼센트, 과학자 7.6퍼센트, 의사 7.3퍼센트, 한의사 7.3퍼센트, 사업가 6.5퍼센트, 법조인 3.4퍼센트 순이었다. “여론조사: 자녀직업선호도,” *동아일보* (2008년 8월 15일).

과 인권에 대한 관심을 일으켰다. 그들은 의료 활동과 함께 교육을 복음전도를 위한 중요한 방편으로 인식하여 많은 학교들을 세웠으며,¹⁷⁾ 교육을 통하여 건실한 민주시민으로 나아가도록 가르치고 인간의 가치와 재능을 살린 삶을 추구하도록 도왔다.

이처럼 기독교는 복음과 교육을 통하여 한국인들에게 일에 대한 기존의 관점을 바꾸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일각에서는 여전히 일하는 것, 노동을 천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인생과 역사와 문화 속에서 노동이 차지하고 있는 의미를 간과한 나머지 불로소득(예컨대 돈놀이, 부동산 투기, 증권투자, 건물 임대업 등)을 추구하거나 일하지 않고 생계유지하는 것을 부러워하며, 힘들이지 않고 단번에 많은 재물을 얻고자 하는 생각이나 요행을 바라는 사행심이 여전하다. 이러한 일에 대한 생각이나 관점은 미주지역 한인들의 이민사회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3. 일에 대한 서양인의 관점

가. 고대 헬라세계

고대 헬라세계에서 일에 대한 관점은 확일적이지는 않았지만 대표적 학자인 플라톤(Platon)과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 플라톤은 하늘은 참에 해당되어 궁극적인 실체이고 땅은 악의 고향이라는 이원론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일에 대해서 그는 자신의 책 *국가론(The Republic)*에서 상인, 선원 등과 같은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정은 했지만 그들은 이상적인 헬라의 시민은 되지 못한다고 하였다.¹⁸⁾ 그 이유는 육체적인 노동은 정신과 마음을 비천하게 만들어 고도의 이상(理想)을 추구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플라톤은 인생의 최고 단계를 ‘이데아’(Idea, 思考)라고 주장하며 육체노동과 분리시켰다.

17) 1885년 아펜젤러에 의해 최초 기독교 학교인 배재학당이, 1886년에 언더우드에 의해 경신학교, 스크랜턴에 의해 최초 여학교인 이화학당이 설립되는 등 서울과 평양, 부산, 대구, 광주, 목포, 순천, 인천, 수원, 공주 등 전국적으로 학교들이 세워져, 1909년에는 전국에 950여개 기독교 계통의 학교가 설립되었다. 이상규, “이상규의 새롭게 읽는 한국교회사,” *국민일보* (2011년 7월 1일).

18) 양승훈, *일에 대한 성경적 관점*, (밴쿠버, 캐나다: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2011), 5.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책 *정치학(Politics)*에서 “가장 탁월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도시에서 시민들은 장인(匠人) 혹은 상인의 삶을 영위하지 않을 수 있다”¹⁹⁾고 하였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삶에는 고상함이 결여되어 있어서 완전한 인격에 결코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는 육체적인 노동은 주로 노예가 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노예들에 대해서 “그들은 생명이 부여된 도구”²⁰⁾라고 하면서 매우 낮게 취급했다. 그는 인간의 목적과 육체적인 노동은 모순된다고 보았다.

나. 초기 및 중세 기독교

고대 헬라세계의 이원론적인 사고와 영지주의(Gnosticism)²¹⁾가 교회에 유입됨으로써 사람들은 일하며 살아가는 세속의 삶은 가치가 적은 것으로 여겼고, 대신 수도원에서와 같이 관조적인 삶을 통하여 영원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높은 가치를 부여하며 동경하였다. 초대교회 교부로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놓았다고 평가받는 어거스틴(Augustine)은 인간의 삶을 활동적인 삶(*vita activa*)과 관조적인 삶(*vita contemplativa*)으로 구분하고 두 종류의 삶은 한편은 사랑의 대상이고 다른 한편은 인내의 대상으로 모두 선하지만 그래도 관조적인 삶이 더 고상하다고 여겼다.²²⁾ 그는 노동은 육체의 단련이며 아울러 정신의 단련도 된다면서 인간은 어느 한편으로만 자기를 완성하지 못한다²³⁾고 하였으나 노동은 짐이라고 여김으로써 노동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깊이 이해한 것은 아니었다.

19) 양승훈, *일에 대한 성경적 관점*, 6.

20) Aristotle, *Politics*, trans. B. Jowett (Oxford: Clarendon Press, 1908), 31; Paul Stevens, *21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 (The Abolition of the Laity)*, 홍병룡 역 (서울: IVP, 2003), 136에서 재인용.

21) 고대 영지주의자들은 육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정신적인 사람(육적, 영적 중간적 위치)으로 구분했다. 육적인 사람은 영적으로 소망이 없는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은 자동적으로 천계에 들어가며, 정신적인 사람은 영적인 일과 씨름하는 사람이다. E. Glenn Hinson, *기독교 영성목회 (Spiritual Preparation for Christian Leadership)*, 엄성욱 역 (서울: 은성, 2000), 234.

22) 양승훈, *일상생활 영성*, Fuller Theological Seminary 강의안 (Fall 2011), 30.

23) Augustine, *명상록*, 성염 역 (서울: 성바오로, 1991), 233; 이경섭, *개혁주의 영성체험* (서울: 예루살렘, 2005), 216에서 재인용.

중세시대를 대표하는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도 삶을 활동적인 삶과 관조적인 삶으로 구분하였다.²⁴⁾ 그는 두 종류 삶이 각각 고유한 가치를 갖지만 활동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필요를 위하여 존재하며 필요에 예속되어 있다고 하였다. 반면에 관조적인 삶은 영원을 향한 삶으로서 참된 자유로움을 가져다줄 수 있다면서 관조적인 삶이 더 낫다고 하였다.²⁵⁾ 초기 및 중세 기독교를 대표하는 신학자들이 가졌던 일에 대한 이러한 사상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수도원주의뿐만 아니라 일에 대한 관점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칼 바르트(Karl Barth)는 그의 저서 *교회교의학* (*Church Dogmatics*)에서 중세시대 일에 대한 관점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중세 절정기에 보편화되었던 견해에 따르면 세속적인 일은 단지 모든 개인구원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존재할 뿐이었다. 인간의 가장 고상한 소명은 성직자가 되는 것이었고 다른 직업 종사자들에게 소명이란 있을 수 없었다.²⁶⁾

이상에서 살펴보듯이 중세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적으로 일하는 노동을 천시했으며 소명이나 신앙과는 상관없는 세속적인 의무 정도로 간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르네상스 및 종교개혁

14세기 후반부터 15세기의 르네상스는 헬라철학에 대한 재발견을 가져오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지녔던 관조적인 삶에 대한 이해가 역전되는 현상을 가져왔다. 즉 하나님은 우주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최고의 예술가요 건축가라는 깨달음이 생겨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목상이 세상에서의 창조적인 활동으로 표현되기에 이르렀다. 이런

24) Paul Marshall, *바른 직업윤리*, 황성일 역 (서울: 나침반사, 1993), 22-23; 양승훈, *일상생활 영성*, 30, 재인용.

25) Os Guinness, *소명* (*The Call*), 홍병룡 역 (서울: IVP, 2006), 65.

26) Karl Barth, *Vocation in Church Dogmatics*, edited by G.W. Bromiley & T.F. Torrance (Edinburgh: T.&T. Clark, 1956-1969). 제3권 4부 p.600 이하; 양승훈, *일상생활 영성*, 30, 재인용.

일을 이루는데 가장 공헌한 사람들이 바로 예술가들이며 이들은 자신의 일을 통하여 관조적인 삶에서의 참된 자유를 느낄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 그렇지만 당시에도 여전히 육체적인 노동은 창의적이고 종교적인 일보다 낮게 평가되었다.

16세기에 일어난 종교개혁은 중세 수도원주의에 대해 반발²⁷⁾하면서 일 혹은 노동에 대한 관점에서 중요한 유산을 남겼다. 마틴 루터(Martin Luther)는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in the world)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not of the world) 일해야 한다.”²⁸⁾고 일에 대한 소명을 강조하였다. 존 칼빈(John Calvin)도 인간이 일을 하고 또한 안식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린 복이라고 여겼다. 이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지닌 일에 대한 사상은 삶의 자리, 곧 하나님이 친히 주권적으로 섭리하셔서 있게 하신 일터에서 인간이 하는 일이 바로 기독교적 소명과 의무를 성취하는 것이라는 사상을 확산시켰다.

라. 산업혁명

18세기 중엽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한 일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관점들을 더욱 변모시켰다. 기술의 급격한 혁신을 가져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일은 분업화되었고, 많은 부분은 기계화되어 단순화되고 틀에 박히고 제도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산업화되기 이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일과 가정과 교회가 분리되지 않아서 어느 정도 관조적인 삶과 활동적인 삶이 통합된 측면이 있었으나 산업혁명은 이런 것을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말았다.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 도시로 몰려들게 되었고 교회와 연결되지 않는 공장에서 일을 해야만 했다. 그러면서 공장이나 일터에서 틀에 박혀 반복되는 일에 종사하는 것은 창의적이고 종교적인 일에 종사하는 것보다 가치가 덜한 것으로 여겼다.

27) 종교개혁은 중세에 성직자 또는 수도원이 이른바 평신도나 세속 직업을 지배하던 상태를 원칙적으로 뒤집었고, 만인제사장직과 세속직 소명이라는 성경적 비전을 되찾았다. Banks, *일상생활속의 그리스도인*, 34.

28) 양승훈, *일에 대한 성경적 관점*, 21

마. 공산주의자들이 일에 대한 이해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진행된 유럽의 급속한 산업화는 생산력의 증가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소외되고 오히려 더 비참한 생활을 하며 비인간적인 요소와 함께 많은 문제들을 야기했다.²⁹⁾ 이에 대한 해결을 모색하고자 산업자본주의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난 사회주의³⁰⁾는 대중이 직접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며 공동운영하는 협동경제와 모든 민중이 노동의 대가로서 정당하고 평등하게 분배받는 사회를 지향하였다. 이런 사회정치적 상황에서 마르크스(Karl Marx)는 1848년 2월 21일에 출간된 「공산당 선언」을 통하여 공산주의를 태동시켰다.

그는 상품가치의 크기는 사회적 필요 노동시간에 비례하여 창출된다는 노동가치설(labor theory of value)을 내세워 노동자들은 생산한 상품가치보다 적은 최소 임금을 받고 나머지는 이윤으로 자본가가 독점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은 자아실현을 가져와야 할 본연을 잃고 단지 임금노동으로 전락되어 결국 노동 자체는 그 의도에 관한 한 단지 부의 증진일 뿐이며 유해하고 유독한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보았다.³¹⁾ 그는 인간은 노동을 통해 진정한 인간이 되고 역사는 노동에 의해 발전한다면서, 자기가 손수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나 아니라 스스로를 목상함으로써 성취감을 찾아야 한다³²⁾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공산주의자들의 노동에 대한 관점과 인간론적인 노동 이해는 무신론에 기초하고 있으며 노동 자체를 절대화 혹은 신화화하고 있는 셈이다.³³⁾

29) 높은 인구증가율, 도시로의 인구이동, 높은 질병율, 정신병의 증가, 구결, 매춘, 유아노동, 여성노동, 노동자들의 높은 사고율, 직업병, 가혹한 직업, 독립수공업자의 독립성 상실과 계절적 및 주기적 실업 등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발생했다.

30) 사회주의의 중심에는 모든 인간 문제가 사회적 재편성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허위가 도사리고 있다. Alexander Solzhenitsyn, *Three Key Moments in Japanese History*, National Review, December 9, 1983; Francis A. Schaeffer, *위기에 처한 복음주의 (The Great Evangelical Disaster)*, 윤두혁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7), 129, 재인용.

31) Paul Marshall, *소명, 노동 그리고 쉼*, (서울: IVP), 28; 양승훈, *일상생활 영성*, 28, 재인용.

32) Stevens, *21세기 평신도 신학*, 138.

33) 오성춘 외 11인, *기독교인의 직업과 영성*, 338.

4. 오늘날과 미래 일의 세계

오늘날 첨단과학기술의 발달은 하루가 다르게 혁신 또는 혁명이라고 부를 만큼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인간의 일도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종전과는 달리 많은 부분을 기계가 대신한다. 지난 100년 동안 미국인 중 공장이나 농장에 고용되어 일한 사람의 비율은 60퍼센트에서 6퍼센트로 떨어졌다.³⁴⁾ 첫 번째 산업혁명은 인간의 육체적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었는데 비해 현재 진행 중인 두 번째 기술혁명은 마음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고 있으며, 향후 몇 십 년 동안 거의 모든 일상적인 육체적, 정신적 작업들이 자동화될 것이라고 미래학자인 커즈와일(Ray Kurzweil)은 예측한다.³⁵⁾

과학문명의 발달로 이제 세계는 동양과 서양이라는 구분이나 국가나 지역적인 구별이 없어지고 하나가 되어 살아간다. 지구촌 혹은 글로벌(global)이라는 말이 흔히 사용되며, 동양과 서양이란 기존의 문화와 전통과 사상은 남아 있을지라도 서로 교류되는 속에서 혼재되어 나타난다. 물론 아직도 문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전통 속에 일하며 사는 민족과 나라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예전엔 생각지도 못했던 급격한 기술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미 70억을 넘어선 지구촌에는 많은 직업들이 있는데 미국에는 3만개, 한국에는 1만개 정도의 직종이 있다고 한다.³⁶⁾ 소멸되는 직업도 있지만 새로운 직업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있다. 전문가들 중에는 현재 직업의 25퍼센트는 25년 전에는 없었으며, 25년 후 현재 직업 50퍼센트는 바뀔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하며, 그런 가운데 2013년 전 세계 실업자는 2억 명이 넘을 것으로 세계노동기구(ILO)는 전망하였다.³⁷⁾ 실업이 나라마다 문제이고, 보수를 받는 일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일이 지닌 진정

34) Ray Kurzweil, *기술이 인간을 초월하는 순간 특이점이 온다 (The Singularity Is Near)*, 김명남/장시형 역 (서울: 김영사, 2011), 469.

35) Kurzweil, *기술이 인간을 초월하는 순간 특이점이 온다*, 469

36)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3월 1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미국은 직종이 3만개, 일본은 2만5천개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1만개 정도라며 선진국에는 보다 창의적인 직업군이 있을 테니 연구하여 새 일자리 발굴로 연계시키도록 지시하였다. “국정정상화 박차,” *연합뉴스* (2013년 3월 18일).

37) “ILO, 올해 전 세계 실업자 2억 명 돌파 전망,” *경향신문* (2013년 1월 22일).

한 의미를 살펴보기가 힘들어졌다.³⁸⁾ 오늘날의 경제체제는 정보창출과 유통에 기반을 둔 형태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으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포스트모던 문화는 첨단과학기술(high tech)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1982년 메가트렌드(Megatrends)를 펴낸 이후 미래학자로서 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는 존 나이스비트(John Naisbitt)는 고도의 과학기술에 상응하여 고도의 감성(high touch)으로 정신적 안정을 가져오는 인격적 요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³⁹⁾

이런 21세기의 시대적인 흐름은 사회, 문화, 교육, 스포츠, 정치, 군사 그리고 종교 등 제반 분야를 변화시키고 있다. 그 영향은 일부 지역이나 어느 한 나라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다. 오랜 기독교 전통을 지닌 유럽이나 청교도⁴⁰⁾ 신앙의 토대 위에 세워진 미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일 혹은 노동을 단지 개인적인 성취감을 얻고자 하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처럼 여러 가지 변화적 요소와 환경들이 어우러져 있는 것이 오늘날 일의 세계이다.

제 2 절 일에 대한 성경의 관점

성경에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은 창조자로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시다.⁴¹⁾ 태초에 하나님은 일에 착수하셨다. 엿새 동안 창조사역을 하셨고, 특히 인간을 만드실 때는 흙으로 형체를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일을 하셨다(창 2:7). 성경은 하나님을 일꾼(창 1-2장, 욥 10:3, 시 139:13, 요 5:17)으로, 토기장이(사 64:8)로, 농부(호 10:11, 요 15:1)로, 목자(시 23:1)로, 작곡가와 연주자(신 31:19)로, 건축가(잠 8:27-31) 등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보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 일은 하나님의 본질 가운데 하나이며,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계속

38) Paul Stevens,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Down-to-Earth Spirituality)*, 최동수 역 (서울: 죠이선교회, 2006), 135.

39) Stevens, *21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 138.

40) 자신들이 갖고 있는 조직적인 신앙을 삶의 모든 일상적인 일에 관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지하게 생각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청교도들이다. Banks, *일상생활속의 그리스도인*, 179.

41) Eugene H. Peterson,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 (Leap over a Wall: Early Spirituality for Everyday Christians)*, 이종태 역 (서울: IVP, 2009), 43.

일하신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일하셨다. 신약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목수(막 6:3), 교사(마 7:29, 요 3:2), 의사(눅 6:32), 목자(요 10:11,14, 히 13:20), 사도와 대제사장(히 3:1, 4:14-15, 5:5) 등으로 묘사하고 있다.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유대인 회당에서 가르치고 천국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일을 하셨으며 심지어 안식일에도 쉬지 않으셨다(마 4:23, 9:35). 예수님이 안식일에 예루살렘 양문 곁 베테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었을 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한다고 크게 비난하였다. 이 때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요 5:17)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은 안식일에도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하셨으며(요 17:4),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⁴²⁾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 성령은 그리스도인에게 권능을 주시고(행 1:8), 할 말을 가르치고(눅 12:12), 생각나게 하시고(요 14:26), 방언으로 말하게 하시고(행 2:4), 때론 말하지 못하게 하시고(행 16:6), 연약함을 도우시고(롬 8:26), 위로 하시고(요 14:16), 광야로 데려가시는(계 17:3) 등의 많은 일을 하신다.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 이것은 일이란 인간에게도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임을 말해준다.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일 사이에는 의미상 호응관계가 있다는 점들을 짐작하게 한다. 그것은 인간의 일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연계점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42)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보다 먼저 계신, 우리 위에 계신 인간이신 그분은 여기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며 하늘에서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Andrew Murray, *위대한 영성 (The Inner Life)*, 정혜숙 역 (서울: 브니엘, 2010), 88.

1. 축복과 저주로서의 일

성경은 일에 대해 크게 두 가지 대비되는 시각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나는 축복이고 다른 하나는 저주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라는 사명을 받았다(창 2:15). 아담이 일하는 것을 처음 묘사한 것은 에덴동산에서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은 부분이다(창 2:19).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있었기에⁴³⁾ 이름 짓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지라도 일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이처럼 아담은 모든 것이 갖추어진 낙원인 에덴동산에서도 일하였다. 이것은 일이 없는 낙원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그런 것은 일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⁴⁴⁾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한다. 아무런 걱정이나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었던 낙원인 에덴동산에서도 일을 한다는 것을 봐서도 일은 필요하고도 좋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일은 창조세계를 위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도, 이웃을 위해서도, 또한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다. 그러나 좋은 것이라고 하여 중독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인간이 일할 뿐만 아니라 안식도 가지도록 명하셨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쉼이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쉼지며”(출 34:21). 일곱째 날에 쉬도록 한 것은 엿새 동안 일하였기 때문이며,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라는 것은 ‘아무리 바쁜 때에도’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인간은 일하며 아무리 바쁘더라도 규칙적으로 쉬며 휴식해야 제한된 능력임에도 살아갈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안식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⁴⁵⁾ 인간이 일하는 것과 쉬는 것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결된 것이며,⁴⁶⁾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명하신 것이기에 좋은 것이고 복된 것으로 선물이다.⁴⁷⁾

43) Andrew Murray, *성령님의 임재연습 (In Search of Spiritual Excellence)*, 정혜숙 역 (서울: 브니엘, 2011), 151.

44) 일에는 하나님이 주신 최소 5가지 목적이 있다. ①예배, ②의식주 제공, ③인격계발, ④예수님 닮기, ⑤타인 섬기기이다. John Maxwell, Stephen Graves, and Thomas Addington, *크리스천이 직장에서 성공하는 법 (Life @ Work)*, 김용환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8), 194-208.

45) Gerhard Dautezenberg, “노동에 대한 성서적 관점들,” *기독교사상* (1989년 4월), 31; 오성춘 외 11인, *기독교인의 직업과 영성*, 330, 재인용.

그런데 일은 인간에 대한 저주 혹은 형벌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으나 그들은 사탄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불순종하였다. 최초의 일터에서 지은 죄는 두려움과 책망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동산에 거할 수 없게 하셨으며 그들이 추방되어 옮겨간 에덴의 동쪽은 낙원이었던 에덴동산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들은 이제 토지를 갈며 땀 흘려야 했고 해산의 고통 속에 자녀를 낳고 기르는 일을 해야만 했다(창 3:16-19).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저주나 형벌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은 그들이 범한 죄 값에 따른 지극히 마땅한 것이었다. 에덴동산에서 추방시키며 내린 하나님의 명령은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것이므로 그들을 통하여 이어지는 모든 인간에게 물려진다(롬 5:12).

이것은 불순종한 죄의 대가로 주어진 저주 혹은 형벌처럼 보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동산에서 추방하여 보내신 것은 형벌적 요소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일은 하나님이 뜻하신 것으로 놀랍게도 인간이 하나님 자신의 일에 깊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신 것이었다.⁴⁶⁾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인간을 향하신 또 다른 계획이셨다. 그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기쁨을 얻도록 하신 것이다. 저주 혹은 형벌로 여겨졌던 일, 곧 노동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품으신 다른 형태의 사랑이셨다.

46) 이성희, *수도원 영성의 향기* (서울: 두란노, 2004), 159.

47) Gene Edward Veith, Jr., *평범한 일속에 특별한 소명 (God at Work)*, 김명렬 역 (서울: 멘토, 2003), 95.

48) 일에 대한 이 책임은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도 변하지 않았다. 인간의 지속적인 관리 사명은 일에 대한 신학적 이해의 핵심이다. Maxwell, Graves, and Addington, *크리스천이 직장에서 성공하는 법*, 28.

2.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가.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성경은 어디서도 인간이 일하는 것을 비판하거나 일 자체에 대해서 저주라고 말하지 않는다.⁴⁹⁾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선한 땅이 저주를 받았으며,⁵⁰⁾ 저주받은 땅에서 인간의 일이 좀 더 힘들어졌을 뿐이다.⁵¹⁾ 일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이미 창조 과정에서 본을 보이신 것이며, 인간의 일은 하나님의 고유한 창조물이다.⁵²⁾ 성경은 일하는 것은 신성한 하나님의 창조법칙이요 인간에 대한 명령임을 가르쳐 준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창 1:28)고 하셨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주권적 질서를 유지하며 실천하도록 명령을 받은 인간은 일을 해야만 한다. 일하도록 하신 명령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이어지는 모든 인간에게 내려진 소중한 것이다.

이것을 볼 때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며 동시에 일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 된다.⁵³⁾ 일은 인간을 하나님께로 이끌며,⁵⁴⁾ 인간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로 연결된다.⁵⁵⁾ 예배가 인간을 하나님께 연결시켜주듯이 일이 그런 역할을 하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일, 곧 노동은 예배와 다를 바 없다.⁵⁶⁾ 아주 사소한 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으로 했다면 그 일 하나하나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49) Alan Richardson, *성서의 노동관 (The Biblical Doctrine of Work)*, 강금권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1), 29.

50) John Stott, *제자도 (The Radical Disciple)*, 김명희 역 (서울: IVP, 2010), 65.

51) Os Hilman, *일터사역 (9 to 5 Windows)*, 조계광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7), 21.

52) Maxwell, Graves, and Addington, *크리스천이 직장에서 성공하는 법*, 32.

53) 노동은 인간이 가장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동참하는 창조주와의 협동적 창조행위이다. 김경재, *그리스도인의 영성훈련*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39.

54) Stevens, *21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 144.

55) Paul Stevens, *현대인을 위한 생활영성 (Disciplines of the Hungry Heart)*, 박영민 역 (서울: IVP, 2002), 12.

56) 노동이라는 말은 경배를 뜻하는 히브리어 ‘아보다’에서 유래했다. Hilman, *일터사역*, 23.

줄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된다.⁵⁷⁾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의식이 아니라 마음자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다.⁵⁸⁾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worshipper)이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일꾼(worker)이다. 일꾼인 인간은 하나님께 의존하고, 일을 맡기신 하나님은 일꾼이 일을 잘 하기를 기대하신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인간이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 즉 노동을 하게 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인간에게 저주나 형벌로 주어진 것이 아닌 것이다. 일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최초로 내린 말씀, 곧 문화명령(Cultural Mandate, 창 1:28)에서 이미 언급하셨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사명으로서 일을 주셨고 이것은 인간을 창조하신 중심적인 의도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지혜와 지식을 탐구하고, 하나님이 위임한 일들을 감당하는 청지기로서 만물을 지배하고 통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하여 일을 주신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일의 의미이다.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으며, 누구를 부르며 누구에게 맡기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시다. 구약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였다. 그러나 그들만이 아니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던 백성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셨다.⁵⁹⁾ 오늘날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의 일은 하는 것은 아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관심이 있으시며 그렇게 하신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 어디에서나 행해진다. 주님이 피 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라는

57) 마더 테레사는 우리가 일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했다. “거리에서 만난 고아를 도울 때, 목마른 아이에게 시원한 물 한 잔을 건넬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Linda Dillow, *일상의 예배 (Satisfy My Thirsty Soul)*, 오현미 역 (서울: 좋은씨앗, 2009), 188.

58) Maxwell, Graves, and Addington, *크리스천이 직장에서 성공하는 법*, 199.

59) “앗수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였고(사 10:5), 산헤립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끼였다(사 10:15).... 한 마디로 모두가 하나님의 종들이었다.” John Calvin, *기독교 강요 (Institution of the Christian Religion)*, 양낙홍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3), 121.

공동체에서도 행해지지만, 교회 밖에서도 행해진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사회의 모든 조직과 기관에서도 행해진다. 정치, 외교, 경제, 군사, 법률, 문화, 교육, 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행해진다. 하나님의 일이 행해지는 장소나 범위를 우리 인간이 한정지을 수가 없다. 그럴 만한 지식이나 능력이 인간에게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럴 수 있는 권한을 인간이 가지고 있지도 않으며 하나님이 위임해 주시지도 않으셨다. 하나님의 주권은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제한받지 않는다.

인간은 일에 대하여 하고 말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 마땅히 힘써야 할 의무가 있다. 일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미 계획하시고 아담 이래로 인간에게 맡기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셨더라도 일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니다.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치 아니하고 자신의 끊임없는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이다.⁶⁰⁾ 일이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므로 돈 벌기 위해 너무 많이 일하는 것은 악한 것일 수가 있고,⁶¹⁾ 돈에 대한 욕심으로 다른 사람을 착취하거나 희생시킨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인데(사 43:7)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것은 헛되고 무익한 것이다. 이 세상에는 셈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일을 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결코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좋은 일, 중요한 일, 큰일을 맡았다고 해서 그런 일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도록 만들지는 않는다. 사울과 다윗은 둘 다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름부음⁶²⁾에 의해 왕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부여받았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일, 중요한 일, 큰 일을 맡았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맡기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똑같은 왕업을 수행하였을지라도 사울은 실패했고 다윗은 성공했다. 하나님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

60) Gordon MacDonald,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라 (Restoring Your Spiritual Passion)*, 박가영 역 (서울: 하늘사다리, 1996), 243.

61) Richard J. Foster, *돈 섹스 권력 (Money, Sex and Power)*, 김영호 역 (서울: 두란노, 1993), 15.

62) 성경에서 기름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할 일을 받는다는 의미다. 고용된다는 것이다. Peterson,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 43.

니”(삼상 15:11)라고 하신 반면에, 다윗에 대해서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행 13:22)이라고 칭찬하셨다.⁶³⁾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좇아 자기 의지대로 행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아 사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맡았느냐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 왕업으로 알고 소명감을 가지고 바르게 행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⁶⁴⁾

나. 일을 통하여 사랑을 실천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인간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안에서 예정되었던 것으로 하나님의 섭리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났으며⁶⁵⁾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달란트를 주시고 지식을 쌓고 기술을 습득하고 숙달하게 하는 것도 다 일하기 위함이다. 인간이 일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이다. 일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필수조건들을 충족시키는 하나님이 주신 수단이다.⁶⁶⁾ 인간은 일을 함으로써 일용할 양식이며 필요한 것을 얻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에게서 일은 자신과 가족에게 사랑을 공급하는 것이다.⁶⁷⁾ 사도 바울 시대에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예수님이 내일이라도 다시 오신다면 오늘 일하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하는 생각으로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집을 돌아다니며 기대어 살았던 종말론적 게으름뱅이들이 있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살후 3:10)고 엄히 명하셨다.

그리스도인들은 일함으로써 가족에게 사랑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을

63)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그것은 그가 완전한 사람인 때문이 아니라 자기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매달려 용서와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Tim LaHaye, *성령으로 변화된 기질 (Transformed Temperaments)*, 권명달 역 (서울: 보이서사, 1994), 109.

64) Peterson, *다윗 :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 50.

65) 우리의 출생은 실수도 불운도 아니며, 삶 또한 우연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혹 부모님은 계획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셨다. Rick Warren, *목적의 삶 (The Purpose Driven Life)*, 고성삼 역 (서울: 디모테, 2003), 29.

66) Maxwell, Graves, and Addington, *크리스천이 직장에서 성공하는 법*, 194.

67) Stevens, *현대인을 위한 생활영성*, 45.

실천한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는 일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과 약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은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이다.⁶⁸⁾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신 15:11)고 하셨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엡 4:28)고 하셨다. 그리스도인들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것이다.⁶⁹⁾

일이 선하고 좋은 것임은 자기와 자기 가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돕는 거룩한 사랑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일하여 소득을 얻고 일정액의 세금을 내면 그 세금은 나라가 계획하는 사업을 통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돕게 된다. 또한 직장에서 일함으로써 기업이 잘되면 그 기업에 소속된 사람들도 혜택을 받게 되고 그것은 곧 그들의 가족들을 돕는 것이 된다. 또한 기업은 더 많은 사업을 위하여 투자하고, 투자를 통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통하여 소득을 얻게 되고, 일정한 세금을 내게 되면 이를 통하여 사회에 궁극적으로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계획하셨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린 최초의 명령(창 1:28)에도 보면 온갖 종류의 일이 포함되어 있다.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려면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인간에게 있어서 일이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으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활동이다.⁷⁰⁾ 하나님의 주권은 일하는 주권이며 일을 통해 표현되는 주권이다. 인간이 하는 일은 주권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연장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을 통하여 어떤 형태로든지 이 땅에서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된 이 땅의 인간들도 일함이 마땅하다. 인간이 자기 판단과 의지대로 어떤 일을 계획하며 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셨음이 전제된다.

그리스도인은 일터에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신이 필요하다. 그리스도

68) Maxwell, Graves, and Addington, *크리스천이 직장에서 성공하는 법*, 195.

69) 우리가 우리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때보다 더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경우는 결코 없다. Charles R. Swindoll, *섬기는 삶은 이처럼 아름답다 (Improving Your Serve)*, 이재기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8), 55.

70) Peterson,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 48.

인들 중에도 ‘하나님의 일’ 혹은 ‘주님의 일’이라면 통상 전도, 설교, 구제, 봉사, 영적인 돌봄 등을 떠올린다. 이런 일들은 거룩하게 여겨져 하나님의 일이고 영원히 남는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이런 일들만이 아니고 그 범위가 너무 크고도 넓다.⁷¹⁾ 하나님의 일은 교회라는 공동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의 삶 전체에 널려 있다. 이를테면 집안에서 청소하기, 쓰레기 버리기, 세탁하기, 만들기, 가꾸기, 요리하기, 도와주기, 심부름하기 등등. 이런 일상생활의 일들 모두가 하나님의 일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이든 그 일을 맡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합당하도록 힘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3. 그리스도인은 소명자

가. 소명에 대한 이해

소명(召命)이란 말에는 ‘임금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이란 의미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음’이란 의미가 있다.⁷²⁾ 물론 기독교에서 소명에 대한 정의는 후자이다. 기독교에서 소명이란 말은 성직자들은 거룩한 신분(the spiritual estate)이고, 나머지 평신도들은 세속적인 신분(the temporal estate)이라고 하는 성속(聖俗)의 이원론과 함께 수도사, 목회자, 선교사 등 일부에게만 사용되어 왔다. 소명을 뜻하는 영어단어 vocation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의 라틴어 어원(vocatio, voco)에서 나왔다. 이 말이 직업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 때 직업이란 occupation(단순한 직업), profession(전문적 직업), business(상업적 일)에 단순히 종사하는 것과는 크게 다른 소명으로서의 직업이다.⁷³⁾

성경은 어떤 직업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면 선하고 거룩하며,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함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고, 그렇게 할 때 직업의 소명성이 의식되고 분명해짐을 말하고 있다.⁷⁴⁾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따

71) Stevens, *21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 145.

72) *금성판 국어사전*, 1109.

73) 오성춘 외 11인, *기독교인의 직업과 영성*, 66.

라 창조된 아담과 하와를 에덴동산에서 부르시고 일을 주셨다. 소명을 주신 것이다. 에덴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였고, 동물들의 이름 짓는 일을 맡기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하셨다. 창세기에 나오는 문화명령(창 1:28)은 인류를 향한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소명인 것이다.⁷⁵⁾ 아담 이래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일이라는 신성함을 소명으로 부여받아 살아가고 있다.

구약성경에서 소명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카라’(qara)인데 ‘어떤 것을 불러내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출 3:4) 이름을 불러 소환한다는 뜻이다. 신약성경에서 소명을 뜻하는 헬라어는 ‘칼레오’(부르다, 앞으로 소환하다)와 ‘클레시스’(부르심, 소명)⁷⁶⁾이다. 예수님이 열두 제자로 부르셔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파송하기 위해 그들을 소환하실 때 이 단어를 사용하셨다(막 3:13, 마 4:21, 10:1).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부르신다.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서 부르심을 받았던 모세와 같이 특별한 부르심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애굽에 종으로 팔려간 요셉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지 못했다. 물론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이 꿈을 통하여 계시하시며 그의 삶을 인도하신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부르심에 대해서는 지난 날을 돌아보며 깨닫게 되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창 45:8).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요셉의 경우에 해당될지 모른다. 한국에서 태어나 살다가 이곳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낯선 타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처음엔 몰랐을지라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인 것이다. 이런 방법 말고도 하나님은 초자연적 방법으로 부르시기도 한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행 13:2).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아시아 지방으로 가려했으나 환상을 본 후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74) 오성춘 외 11인, *기독교인의 직업과 영성*, 135.

75) 민종기, “정치적 제자도와 기독교정치인의 사명,” *기독교와 삶의 정치세미나*, 2008년 4월 3일.

76) 이 단어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교회 안에서 친교와 봉사의 생활을 영위하는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뜻한다. Richardson, *성서의 노동관*, 39.

(행 16:10) 알고 계획을 바꿔 마게도나로 갔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매우 다양하지만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부르심, 곧 소명은 3중적이어서 그 의미가 포괄적이다.⁷⁷⁾ 첫째는, 하나님께 속하라는 것으로 제자도의 부르심이다. 이런 부르심을 깨닫게 될 때 자기의 정체성도 모른 채 자기 맘대로 살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는 것이다. 베드로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벧전 2:10)라고 하였다. 둘째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부르심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위해 존재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것이다. 바울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 10:31)고 강조하였다. 왜냐면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셋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부르심이다. 이것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드리며 맡은 일과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⁷⁸⁾이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 자체가 부르심 곧 소명이다. 예수님을 믿으며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⁷⁹⁾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은 이 땅에 가정과 이웃과 사회와 국가라는 인간 공동체뿐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부르심에 충실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분의 목적을 위하여 일하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이다. 부름 받음, 곧 소명은 직업을 고르듯이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선택받을 만한 업적이나 다른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사실상 그분은 그 선택을 피로써 인치기 위해 그

77) Stevens, *21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 106-107.

78) 우리의 소유물은 우리의 노동의 결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돌보심에 의한 것이다. Richard J. Foster, *영적 훈련과 성장 (Celebration of Discipline)*, 권달천/황을호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9), 130.

79) Os Guinness, *The Call* (Nashville: Word, 1998), 29; Gerald L. Sittser, *하나님의 뜻 (The Will of God)*, 윤종석 역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3), 90, 재인용.

모든 대가를 지불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다.”⁸⁰⁾ 이처럼 그리스도인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 곧 소명자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는 그분을 보지 못하고 그저 음성을 듣기만 하면서 그분이 부르신 그런 존재가 되기까지 성장해 간다. 소명은 언젠가 주님 앞에서 셈을 해야 하는 일이므로⁸¹⁾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자기의 마음속에서 확신이 서지 않으면 안 된다.

나. 일은 그리스도인의 소명

중세시대(AD 600-1500)는 수도원주의가 사회 전체를 주도하고 있었다.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은 다른 어떤 일보다도 우월한 길을 택한 것으로 여겨졌다. 수도사들은 수도원이 정한 엄한 규례를 지키고자 힘썼고, 가난과 순결과 복종을 그리스도인의 이상(理想)처럼 여기며 따르기로 작정하였다. 중세교회에서 소명은 교회사역에 전념하는 것만을 말하였고, 부르심을 느꼈다면 이는 성직자(사제, 수도사, 수녀)가 되라는 소명의 신호라고 여겼다.⁸²⁾ 그렇지만 수도사들은 수도원에서 하는 일을 소명이라고 말하지 않았다.⁸³⁾ 그것은 수도원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고 자신들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기 때문이다.

종교개혁자들은 수도원주의에 매우 비판적이어서⁸⁴⁾ 그리스도인이 신앙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유일한 곳이 수도원이라고 말할 정도였다.⁸⁵⁾ 22살 때인 1505년 7월 16일 에르푸르트(Erfurt) 수도원에 들어가 2년 정도 수도사로서의 엄격한 삶에 전념했던 루터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기 위한 수도원 생활이란 이기심의 냉혹한 산물이며 세

80) Guinness, *소명*, 324.

81) Maxwell, Graves, and Addington, *크리스천이 직장에서 성공하는 법*, 166.

82) Veith, Jr. *평범한 일속에 특별한 소명*, 19.

83) Stevens, *21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 94.

84) 루터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기도와 헌신으로써 선한 일을 행한다고 주장하는 수도원의 은자들을 맹렬히 비난했다. 그들은 누구를 돕는 것인가? 루터는 그들의 행위는 전혀 선한 일이 아니라고 외쳤다. Veith, Jr. *평범한 일속에 특별한 소명*, 54.

85) Stevens, *21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 94.

속적인 의무로부터의 도피라고 여겼으며,⁸⁶⁾ 이에 반하여 세속적인 노동이야말로 이웃에 대한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극찬하였다.

루터는 고린도전서 7:20-24에 근거한 모든 직업을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보았지만⁸⁷⁾ 구체적인 직업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 곧 삶의 위치로 여겼다.⁸⁸⁾ 그는 소명을 그리스도인의 기본의무로 보기보다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역할에 결부되는 것으로 보았다.⁸⁹⁾ 만일 여자로 태어났다면 그 사람의 소명은 가정주부와 어머니로 정해졌다는 것이다. 한 밤 중에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천사를 통해 구세주의 탄생소식을 전해 듣고서 곧장 아기 예수를 찾아 경배한 후 다시 양떼에게 돌아갔는데 그것은 목자의 위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칼빈도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루터와 유사한 견해를 피력하면서 이에 덧붙여 특히 예정, 즉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런 위치를 부여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나뉠대로의 특정한 삶을 살도록 의무를 주셨다. 그리고 아무도 경솔하게 그 한계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한 다양한 삶의 종류를 소명이라 칭하셨다.”⁹⁰⁾ 이들은 소명의 현세적 측면들을 강조하였는데 이런 견해는 소명이 성직자로부터 평신도로 세속화⁹¹⁾되는 물꼬를 트는 결과를 가져왔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교회의 제단과 찬양, 성경 읽기, 제사 등에만 관련이 있다는 생각은 마귀가 꾸미는 최악의 술수임에 틀림없다. 마귀가 우리를 엉뚱한 길로 이끄는 데 이러한 편협한 생각, 즉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오직 교회 내에서 그리고 그 안에서 하는 일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개념을 불어넣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86) 루터는 “내가 수도원에 들어가려고 서약한 것은 배를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였다. 나는 수도원에서 영혼의 구원을 상실하였고 건강마저 망쳤다. 내가 금식함으로써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다면 나는 20년 전에 거기에 갈 수 있었을 것이다”고 고백하였다. 오성춘 외 11인, *기독교인의 직업과 영성*, 148.

87) 오성춘 외 11인, *기독교인의 직업과 영성*, 174.

88) Stevens, *21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 95.

89) Banks, *일상생활속의 그리스도인*, 36.

90)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0), III, 10.6; Stevens, *21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 123, 재인용.

91) 오성춘 외 11인, *기독교인의 직업과 영성*, 179.

방법이 있을까? 온 세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로 가득하다. 우리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 주방에서, 작업장에서, 들판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⁹²⁾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일을 통해서도 이뤄진다. 일터에서 자신의 맡은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드러내며 기쁘게 하며 영화롭게 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가정과 이웃과 사회와 국가라는 인간 공동체뿐 아니라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건설토록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을 감당하는데, 소명이란 가정, 이웃, 교회, 일, 정치, 안식 등 삶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⁹³⁾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부여받았다고 해서 크고 거창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며, 크고 거창하다는 것은 단지 사람들이 생각하거나 정한 기준으로 말하고 있을 따름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시키시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부르심을 받아 일하는 존재들이다.

주일예배 때 대표기도하면서 6일 동안은 주의 일을 열심히 하지 못하고 세상일에만 바쁘게 지냈다고 회개하는 경우들을 본다. 여기서 주의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대개 교회 일이나 전도에 관련된 일을 하지 못한 것을 뜻하고 있다. 자신의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였을지라도 그것은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에서 비롯된 사고이다. 물론 일터에서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잊은 채 그저 일에만 파묻혀 살았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기가 몸담고 있는 일터에서의 일은 주님의 일과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세상적인 것으로 규정하여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세상으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지난 6일 동안 보내신 일터에서 소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들은 세속적인 직업에서 종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그리스

92) O. E. Feucht, *Everyone a Minister* (St. Louis: Concordia, 1979), 80; Stevens, *21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 96, 재인용.

93) Stevens, *21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 113.

도인이 가진 직업에 대해서 단순히 직업의 이름이나 종류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못하며 잘못된 것이다.⁹⁴⁾

오늘날 미국에서도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희박해졌다.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평생 일하고 싶어도 기업들이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거나 어려움을 겪으면 경영자는 수시로 감원한다. 한국에서 유행하던 ‘사오정’(45세가 정년)이라는 우스운 표현처럼 정규직에 있어도 정년 때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고 언제 직장을 그만두게 될지 알 수 없다. 직장에서 임시직이나 비정규직으로 일할 경우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하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직업은 소명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대답은 소명이다. 왜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성경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관하시며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일에 종사하도록 하셨다는 소명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필요하다. 직업을 가지고 일하면서 보수를 받게 되므로 사람들은 자기에게 일을 맡기고 보수를 주는 사람(기관, 단체)을 만족시키고자 한다. 그것은 직업의 1차적 요구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직업은 이런 누군가를 만족시키는 것을 넘어서는 의무가 있다고 폴 스티븐스(Paul Stevens)는 강조한다.⁹⁵⁾ 의사는 단지 환자의 기분을 좋게 하기 보다는 환자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 먼저이고, 변호사는 사건의뢰인이 자기 맘대로 하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세우는 것이 우선이듯이, 그리스도인은 직업을 통해서 고용주나 기관과 같은 누군가를 만족시키고자 힘써야겠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일과 그 직업을 맡기셨기 때문이다.

94) 성경은 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직업을 제외하고, 하나님과의 동역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을 위해 행해지는 모든 일이 영적인 일이라고 가르친다. Rogers, *일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47.

95) Paul Stevens, *일상생활의 영성*, Fuller Theological Seminary 강의 (Fall 2011).

다. 평신도 역시 소명을 받은 사람

인간이 살아가는 삶이란 넓게 보면 일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은 일을 통하여 삶의 가치와 보람과 행복을 느끼게 된다. 일은 단순히 보수와 같은 물질적인 것만을 얻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실현하고 행복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일에 종사하는 것, 곧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직업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한다면 이를테면 선교사, 목사, 전도사와 같은 직업은 거룩하고 그 외의 직업은 거룩하지 않고 세속적이라고 구분하는 것은 옳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소명의 관점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점에 대하여 달라스 윌라드(Dallas Willard)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의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구분은 모두 인위적이다. 인간생활의 합법적인 역할과 기능을 신성한 것과 속된 것으로 나누는 행위가 개인의 삶과 그리스도의 사역에 이루어 헤아릴 수 없는 해악을 끼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사역에만 관심을 쏟는 일을 중단하고, 복음전도나 목회사역 또는 선교사역에 쏟아 부었던 것과 똑같은 열정으로 농업, 법률, 교육, 금융, 언론, 출판 등과 같은 분야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받아들여야 한다.⁹⁶⁾

그리스도인은 일이나 직업에 대하여 거룩함과 속됨이라는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기 보다는 부름 받은 소명으로 여기며 일한다면 성스러워진다.⁹⁷⁾ 물론 육체적인 직업은 그렇지 않는 직업에 비해서 통상 힘도 들고 보수도 적은 편이라 선호하지 않는다. 이것은 일에 대한 관점에서 보았듯이 인간이 일에 대하여 가지는 일반적인 경향이기도 하다. 그렇더라도 직업을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나 영광보다는 단지 육체적인 힘듦의 정도, 위험이나 안전성, 급여와 같은 이런 기준 등이 우선하여 순위를 부여하거나 직업의 가치를 귀하고 천한 것으로 구분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라는 사실이다. 직업이

96) Dallas Willard, *The Spirit of the Disciplines*(San Francisco: Harper Collins Publishers, 1991), 214; Hilman, *일터사역*, 115, 재인용.

97) Sittser, *하나님의 뜻*, 291.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며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이 아닌 이상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그 일은 영적인 일이다.⁹⁸⁾

모든 직업이 소명이 될 수는 없지만,⁹⁹⁾ 어떤 직업이라도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면 선하고 거룩하며 가치 있고 귀하다.¹⁰⁰⁾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골 3:23)고 하였다. 자신의 직업에 대하여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성실하게 힘쓰는 것이다. 공생애 전에 예수님도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셨고 다른 날에는 가족들의 생계를 위하여 일하셨는데,¹⁰¹⁾ 목수(헬라어 *tekton*)¹⁰²⁾로서 소의 쟁기와 멍에 등을 정교하고 튼튼하게 잘 만들었다.¹⁰³⁾ 예수님의 손바닥은 일하는 농부나 노동자들의 손처럼 거칠었을 것이다.¹⁰⁴⁾ 윌리엄 틴테일(William Tyndale)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어떤 일이든 차별이 없다. 물을 따르든, 접시를 닦든, 구두를 수선하든, 사도가 되든 그 행위에 관한 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똑 같다”¹⁰⁵⁾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만이 아니라 일상생활과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화답하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의

98) Rogers, *일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48.

99) 마약 거래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소명일 수 없다. 그 직업은 자신의 이웃에 대한 사랑을 포함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을 해칠 뿐이다. 도둑, 사기꾼, 청부 살인업자, 그리고 다른 여러 범죄와 같은 직업도 소명의 범위 안에 들지 못한다. 그들은 아무런 사랑도, 섬김도 나타내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 안에 숨어 계시지 않는다. 오직 악마만이 숨어있을 뿐이다. Veith, Jr., *평범한 일속에 특별한 소명*, 97.

100) John Calvin,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하여 (Golden Booklet of True Christian Walk)*, 오태용 역 (서울: 엠마오, 1987), 99.

101) A. W. Tozer, *예배인가 쇼인가? (On Worship and Entertainment)*, 이용복 역 (서울: 두란노, 2006), 25.

102) 마가는 예수님을 *tekton*(막 6:3)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술적 전문가라는 말이다. *tekton*이란 어떤 일을 완전하게 알고 그 지식을 경이롭고 탁월한 창작품으로 변형시키는 사람을 말한다. Maxwell, Graves, and Addington, *크리스천이 직장에서 성공하는 법*, 62, 322.

103) 기독교 변증가인 순교자 유스티누스는 2세기 때 갈릴리 언덕 너머에서 자랐는데, 그는 당시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만든 쟁기가 널리 사용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Guinness, *소명*, 314.

104) Gene Edwards, *블루칼라 예수 (Your Lord is a Blue Collar Worker)*, 박선규 역 (서울: 미션월드, 2006), 45.

105) Stevens, *현대인을 위한 생활영성*, 24.

일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목회자나 전도자나 선교사들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며 일터에서 이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교회나 선교기관과 같은 곳에서 하는 사역만이 아니라 세상의 일터에서 하는 사역도 모두가 하나님의 일이다. “나무를 베거나 대들보를 다듬거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느껴 행하는 것이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¹⁰⁶⁾이라는 홉킨스(G. M. Hopkins)의 말처럼 평신도로서 어떤 일에 종사하며 일하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차이가 없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히 3:1)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목회자나 평신도 혹은 남자나 여자 구분 없이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며, 모든 그리스도인은 평신도이며 동시에 사역자라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회나 이민교회에서는 소명이란 말을 주로 목회자나 선교사와 같은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여겨지다 보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이라는 소명이 지닌 본래의 뜻을 훼손시키고 말았다. 이것은 인간의 가장 거룩한 소명은 성직자가 되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되었으며, 고대 헬라시대 철학자인 플라톤과 중세시대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성직자(clergy)와 평신도(laity)라는 이분법적 구분이 가져온 잘못된 현상이다. 예수님 당시와 사도들이 예루살렘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1세기에도 평신도와 성직자라는 구분이 없었으며, 신약성경에서도 교회 내 사람들을 일반신자들과 독특한 특정기능을 수행하는 별개의 지도자들이라는 두 부류로 구별하지 않는다.¹⁰⁷⁾

신약성경 기자들은 그리스도인을 묘사할 때 헬라어 ‘라오스’(laos)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백성’ 혹은 ‘하나님의 사람’을 뜻하였다.¹⁰⁸⁾ 또한 헬라어 ‘클레로스’(kleros)는, 여기서 영어 단어 clergy가 파생되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였다.¹⁰⁹⁾ 결국 신약성경에서 볼 때 모든 그리스도인은 ‘라오스’(laos)이면서 ‘클레로스’(kleros)이

106) 양승훈, *일상생활 영성*, 32.

107) Banks, *일상생활속의 그리스도인*, 40.

108) Jon Johnston, *가장 멋진 그리스도인의 생활 (Christian Excellence Alternative to Success)*, 김지찬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9), 172.

109) Stevens, *21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 41.

다.¹¹⁰⁾ 평신도라는 말은 1세기 말 로마교황 클레멘트(Clement)가 성직자가 아닌 신앙인들을 ‘라이코스’(laikos)¹¹¹⁾로 지칭하면서 생겨났다. 그 후 2-3세기 세속주의와 계급주의 영향으로 교회가 구약의 제사장직 모델을 도입하고 성직자들이 성만찬을 집전하면서 이 말이 ‘클레로스’(kleros, 성직자)와 구별되어 버렸지만, 혼란받지 못하고 구비되지 못한 2류급 그리스도인이란 의미로 사용된 적은 없다.¹¹²⁾

성직자가 소명자인 것처럼 평신도는 일터에 파송된 소명자이다. 하나님은 신앙생활 하기에 좋은 환경의 일터로 그리스도인을 보내기도 하시지만 도무지 믿음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환경의 일터로도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런 사실은 신구약 성경이 수없이 증언한다. 다니엘은 조국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여 젊은 나이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때 선지자나 예언자가 아니라 평신도였다. 그는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알았기에 바벨론에 가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떠나지 않았다. 포로 출신인 그가 노년에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되었을 때 주변의 불신앙과 도덕적인 타락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 현실의 상황을 도피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자신을 그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을 잊지 않았으며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일을 열심히 지혜롭게 감당하였다. 하나님은 자기가 택하여 파송한 다니엘을 위하여 평범한 방법뿐만 아니라 때로는 사자굴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극적인 방법으로 도우시며 그를 사용하셨다(단 9:23, 10:11).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낸다. 여기에는 남성이나 여성이 차별되지 않는다. 여성들의 직장진출은 현저히 늘고 있고, 교회에는 여자 성도들이 많으며 다양한 사역을 감당한다. 그리스도인은 가정에서건, 일터에서건 자신이 하는 일에 소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며 기쁘시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이건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이건 일터에서 삶을 살아가는 평신

110) When we take a close look at the New Testament, we can see that All Christians are God's laity(*laos*) and all are God's clergy(*kleros*). Oscar E. Feucht, *Everyone a Minister*, (St. Louis, MO: Concordia Publishing House, 1976), 58.

111) ‘평범한 무리에 속한 자’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Stevens, *21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 37.

112) Stevens, *21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 12.

도이전 모든 그리스도인은 소명 받은 사명자들이며, 함께 협력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동역자(co-worker)들이다(고전 3:9).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박수갈채가 목표가 아니라 자신의 직업과 하는 일을 통하여 주님의 칭찬을 받고자 힘쓰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들의 갈채 받는 삶을 추구할수록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인정하심을 추구하려는 열정은 약해지고 말 것이다.

제 3 절 일의 신학과 영성

1. 일의 신학

가. 실천적 신학

종교개혁자들은 신학을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 이해하고 연구하는 학문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들은 삶과 분리된 신학을 비판하면서 하나님을 삶 속에서 살아있는 방법으로 나타내려고 하였으며, 그 후 신학은 삶과 역사의 영역에서 다뤄지는 실천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청교도 신학자인 윌리엄 퍼킨스(William Perkins)는 “신학은 영원히 축복받는 삶에 관한 학문”¹¹³⁾이라고 정의하였다. ‘영원히’ 라는 것은 신학은 단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을 포함한다는 것이고, ‘축복받는’이라는 것은 신학은 인간이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 것인가를 포함한다는 의미이다. 인간의 풍성한 삶은 일상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이를 위하여 일에 대한 신학적인 연구, 곧 하나님의 온 백성을 위한 일의 신학이 필요하다.

일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지음 받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시기 때문에 일의 신학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며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일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해 준다. 또한 일의 신학은 그리스도인이 가진 생각을 행동과 연계시키고, 그리스도인이 지닌 믿음을 삶과 연계시키며, 또한 기독교의 기본교리를 윤리적 실천에 접목시킨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과 신앙이 하나가 되고, 신앙적인 삶 속에서 살아가는 의미를 찾으며, 삶의 현장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도록 이끈다.

113) Stevens, *21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 20.

일의 신학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며,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여러 사회문제들이 건강한 신앙을 통해 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일의 신학은 하나님의 온 백성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 삶에 능력을 부여하며, 일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그 속에서 복되게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도록 이끄는 참된 신학이다. 루터는 “참된 신학은 실천적인 것이고 사변적인 신학은 지옥에 있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¹¹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가 말한 참된 신학이라는 것이 바로 평신도, 곧 하나님의 온 백성들을 위한 일의 신학이라는 의미로 여겨진다.

나. 현실에 뿌리박은 신학

일의 신학의 선구자로 알려진 스티븐스는 신학은 높은 곳에 있는 것이기도 한 동시에 이 땅의 현실에 있는 것이기도 하다고 하였다.¹¹⁵⁾ 그러므로 신학을 하는 방법에는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연구하는 것과, 이 땅의 문제와 사람들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며 연구하는 아래로부터의 방법이 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참으로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두 가지 방법을 균형 있게 추구할 때 부족함이 채워질 수 있다. 세상의 삶은 신학적 성찰을 필요로 하는 일들로 가득 차 있다.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 일상생활 속에서 직면하는 실존적인 질문¹¹⁶⁾들은 신학적인 답변을 요구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나는 왜 사는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디쯤에 있는가? 나의 일상적인 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내가 죽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등등.

이런 주제들에 대하여 목회자는 교인들에게 신학적인 진술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목회자는 성경을 해석할 뿐 아니라 삶을 해석하고 어떻게 성경의 가르침을 삶

114) Stevens, *21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 18.

115) Stevens, *일상생활 영성*, Fuller Theological Seminary 강의 (Fall 2011).

116) 사람들은 실존적인 질문을 하는 가운데 영적인 삶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 일어난다. 이상만, *영성이 이끄는 삶* (서울: 오이코스, 2009), 194.

속에서 실천하도록 가르칠 것인가를 늘 고민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생활과 일터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에 대한 신학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항들, 이를 태만일의 영성, 생활영성, 결혼과 성, 소명과 직업, 일터와 직장, 그리스도인의 윤리, 경제와 자본주의, 기독교와 경제구조, 돈과 이자, 생활현장에서의 선교, 리더십, 기업과 창의성, 세계관 등에 대한 신학적 연구가 계속 되어야 한다. 일의 신학이 삶과 연관된 부분들을 다루지만 믿음보다 행위에 초점을 두는 것은 아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뤄지는 것이며, 구원받은 일하는 존재로서 선한 일에 힘쓰도록 하는 것이다.

신학은 소수에게만 제한된 신비스러운 학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바른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¹¹⁷⁾ 매일 같이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알았다가도 잊은 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소명을 삶의 모든 국면으로 간주하는 ‘소명에 대한 신학’,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일터를 선교현장으로 여기며 접근하는 ‘일터에 대한 신학’ 등을 통하여 도울 수 있어야 한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벧전 2:9).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므로 일터에서도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중보기도와 영적인 제사를 드리며 신학이 일터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현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비전은 사실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이 가졌던 비전이기도 하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다시금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가졌던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Sola Scriptura, Sola Gratia, Sola Fide)라는 모토를 되살려 하나님의 온 백성을 위한 일의 신학을 분명하게 세워나가야 한다. 아울러 일의 신학은 일의 영성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 영성을 통하여 실천적 동력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일의 신학은 그저 신학적 진술이라는 힘없는 외침이 되고 말 것이다.

117) Charles Van Engen, *모이는 교회, 흠어지는 교회 (God's Missionary People)*, 임윤택 역 (서울: 두란노, 1999), 207.

2. 영성과 일터

가. 영성에 대한 이해

오늘날 영성에 대하여 관심이 많아졌고 영성에 대한 강조가 부쩍 늘었는데¹¹⁸⁾ 비단 기독교만이 아니다. 소위 ‘영성의 시대’라고 일컬어진 20세기말부터 불교와 힌두교에서도 영성을 강조하고 있고 이슬람교에서도 영적 생활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왜냐면 많은 이슬람 국가들이 부패와 불의와 불공평으로 얼룩진 것은 신앙과 일이 단절됐기 때문이라 보고 무슬림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넘어 일할 때도 기도하도록 영성을 강조하고 있다. 무슬림들은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정해진 시간¹¹⁹⁾에 성지 메카를 향하여 기도하도록 하는데, 모스크(masque, 이슬람 예배당)가 가깝다면 정해진 기도시간에는 일을 중지하고 가서 기도하고 돌아와 다시 일을 한다.

1960년부터 가톨릭에서 본격적으로 언급된 영성이란 말¹²⁰⁾은 이제는 종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도 사용되면서 그 의미가 혼란스럽기도 하다. 그러나 기독교 영성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교제를 나누며 공동체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¹²¹⁾을 말한다. 기독교는 동일한 본질을 소유한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을 믿는 삼위일체 신관을 가지고 있으나, 성부교나 성령교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교라고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 중심성이다. 그리스도를 통해 성부와 성령도 올바르게 이해하며 관계할 수 있

118)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풍부한 영성적 유산을 가졌지만 제대로 계승되거나 활성화되지 못했다. 개신교의 영성운동은 이러한 유산을 바로 계승하고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Urban T. Holmes, *목회와 영성 (Spirituality for Ministry)*, 김외식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225.

119) 이슬람 기도시간은 지역에 따라 일출의 차이로 조금씩 다르지만 하루 다섯 번(해 뜰 때, 정오, 늦은 오후, 저녁, 밤) 메카를 향해 기도한다. 마호메트가 다섯 번 기도했던 데서 유래한다.

120) 세속적 영성에 영향을 받은 중세 교회가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혼동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칼빈이나 그 이후의 신학자들은 ‘영성’보다는 ‘경건’이란 말을 많이 썼다.

121) 오성춘 외 11인, *기독교인의 직업과 영성*, 59.

다. 따라서 참된 영성은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그리스도에서 시작한다(요 14:6). 기독교 영성의 길은 곧 그리스도의 길이다.¹²²⁾

기독교 영성의 독특성에 대해서 스티븐스는 “기독교 영성이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의 방식이며,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응답하는 것”¹²³⁾ 이라고 말한다. 영성은 의도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단순히 훈련이나 사역이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이며 응답이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내려오신다.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단지 경건이나 기도하는 마음에 머무르는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찾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반응하며 무한하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다.¹²⁴⁾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삶 속에서 실천하려는 의지로 나타나며, 우리의 삶에 대한 목적의식을 갖게 하고 세속에 물들거나 타락하지 않도록 붙들어 준다(약 1:27).

나. 일터에서의 영성

북미에 사는 사람들은 정식으로 직장생활한 때부터 은퇴할 때까지 보통 88,000시간 정도를 일하는데, 이것은 깨어서 활동하는 시간의 약 40퍼센트인 셈이다. 반면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도 예배를 포함하여 교회 관련 활동에는 평생 4,000시간 밖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¹²⁵⁾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회 모임이나 활동만이 아니라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영성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영성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은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소명자로 살아갈 수가 없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언행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도 못하고 전도도 이뤄지기 어렵다. 그리스도인에게 일터에서의 영성이 절실히 요구되며 영성의 훈련이 계획되고 실시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시급한 일터에서의 영성은 그 방향과 목표를 성경에서 찾

122) 이정석, “영성이란 무엇인가,” 한국신학마당: 영성신학 (2004년 8월 20일).

123) 김성원, *평신도 해방과 저자거리 영성의 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1), 205.

124) Stevens,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271.

125) Stevens, *현대인을 위한 생활영성*, 14.

아야 하며 종교개혁 시대의 영성은 좋은 참고가 된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은 신학과 신앙의 개혁인 동시에 영성과 삶의 개혁이었기 때문이다. 종교개혁의 영성은 그 기초가 성경의 연구라고 할 수 있으며,¹²⁶⁾ 루터나 칼빈 등 종교개혁자들은 모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집중한 사람들이었다.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이라는 원리가 종교개혁의 주요한 명제였음은 “우리는 성경이 말한 곳에서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곳에서 침묵한다”는 칼빈의 말이 입증한다. 그들은 성경의 중요성, 하나님과 관계의 중요성, 그리고 일터에서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세를 긍정하였으며, 사람들이 하는 일 혹은 노동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인 견해를 견지하였다.

종교개혁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점을 회복시켰으며,¹²⁷⁾ 종교개혁자들이 원하며 추구했던 영성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Coram Deo)와 ‘하나님께만 영광’(Soli Deo Gloria)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있든지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힘쓰는 것으로 영성을 이해하였고, 영성의 초점도 수도원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공장과 시장 등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느냐에 맞추었다.¹²⁸⁾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일터에서의 영성은 종교개혁자들처럼 그 일이 큰일이던 작은 일이던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고 일을 하면서 어려움과 눈물이 있든지 기쁨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소명임을 인식하면서 오직 최후의 청중이요 최고의 청중이신 하나님¹²⁹⁾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

126) Alister McGrath, *종교개혁시대의 영성 (Roots That Refresh)* 박규태 역 (서울: 좋은씨앗, 2005), 55.

127) Alister McGrath, *종교개혁시대의 영성*, 70.

128) Joel R. Beeke, *개혁주의 청교도 영성(Puritan Reformed Spirituality)* 김귀탁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9), 56.

129) Guinness, *소명*, 125.

3. 영성훈련 및 사역

가. 서양

서양의 기독교에서 영성훈련¹³⁰⁾ 및 사역은 주로 수도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 수도원

수도원이란 일정한 규율 아래 공동생활을 하며 수행하는 곳으로 수도회에 속해 있다. 초기 수도자들은 세속을 떠나 사막이나 동굴에 혼자 들어가 주로 기도와 명상과 금식 등의 은수(隱修)생활을 하였으나 이탈리아의 수도사 베네딕트(Benedict)에 의해서 공동체 생활의 정주(定住) 수도원이 시작되었다. 그는 수도원에서 수도자가 지켜야 할 72개 조항의 규칙¹³¹⁾을 제정하여 엄격히 실천토록 하였는데, 이 규칙서는 다른 수도규칙들의 모범이 되었다. 기도는 매일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일곱 차례 정기적으로 드려지고, 식사시간이나 일할 때에도 영성을 쌓는데 방해가 되는 잡담이나 대화를 금지했다. “기도하며 일하라”(ora et labora)¹³²⁾는 가르침에 따라 기도와 함께 노동을 중시하여 병이 없는 한 수도원에서는 모두가 일했다.¹³³⁾ 그 후 많은 수도원들이 수도규칙을 떠나 세속화되고 타락하여¹³⁴⁾ 12세기 시토수도원(Cistercian Order)은

130) 영성훈련이란 우리의 인격과 전 존재를 신적 질서에 효과적으로 연합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정신과 몸을 연마하는 활동이다. Dallas Willard, *영성훈련 (The Spirit of the Disciplines)*, 엄성옥 역 (서울: 은성, 1993), 84.

131) 이 규칙은 공동생활을 명백히 규정하고, 순명을 최고의 덕으로 삼으며, 재물의 사유를 금지하고, 평생 한 수도원에 머무를 것과, 성교회의 가르침에 성실히 따를 것을 명하고 있다. 정원범 외, *영성수련과 영성목회* (서울: 한들, 2009), 177.

132) 베네딕트는 수도사에게 가치 있는 것으로서 육체노동을 중시하였고, 일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 5:17)를 제대로 이해한 말인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맥락을 넓게 확장 해석한 것이다. Holmes, *목회와 영성*, 41.

133) 수도원 영성훈련에서 노동은 가장 중요한 영혼을 정화하는 몸의 기도였다. 노동을 통하여 물질과의 접촉은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과의 만남이므로 노동을 통한 물질과의 만남은 하나님의 피부와 접촉하는 것이다. 김정재, *그리스도인의 영성훈련*, 38.

베네딕트 규율을 엄히 지키는 운동을 통하여 수도원의 부흥을 가져왔다.¹³⁵⁾

수도원들은 도서관시설을 잘 갖추고 부속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수도원에서는 ‘렉티오 디비나’(lectio divina)¹³⁶⁾가 모든 수도자들에게 영성생활의 구심점이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중요한 수행법이다. 여기엔 성경읽기(lectio), 묵상(meditatio), 기도(oratio), 관조(contemplatio)의 단계¹³⁷⁾가 있으나 각 과정이 확연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성경읽기에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묵상과 기도로 이어진다.¹³⁸⁾ 가톨릭교회나 동방정교회에 속한 수도원들은 지금도 이런 훈련을 하고 있다.

(2) 새로운 수도원 운동

2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개신교에서는 공동체를 통하여 세상에서 수도적인 영성과 삶을 지키고자 하는 새로운 수도원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 운동을 이끈 독일의 신학자 본회퍼(Dietrich Bonhoeffer)는 나치 정권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교회갱신과 영성의 삶을 강조하며 그의 저서(나를 따르라, 신도들의 행동 등)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공동체¹³⁹⁾를 제시하였다. 여러 가지 다양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수도원 운동의 몇 가지 사례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개신교 수도자인 로제(Roger)는 1940년 프랑스의 작은 마을 떼제(Taize)에서 7

134) 6세기 베네딕트 수도원은 15명 정도를 수용하는 규모가 작은 1층짜리 건물이었다. 그런데 500년 후인 12세기에 와서 수도원은 여러 건물들로 구성된 거대한 규모가 되었고, 수많은 하인들과 노동자들을 거느리게 되었다. 정원범 외, *영성수련과 영성목회*, 96.

135) 김경재, *영성신학 서설*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5), 123.

136) 이 말은 알렉산드리아 파를 대표하는 기독교 교부인 오리게네스(Oregenes, 영어 Origen)가 처음 사용하였는데, lectio divina를 하나님께 대한 모든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자 모든 그리스도인의 수덕생활과 관상의 기초라고 보았다. 정원범 외, *영성수련과 영성목회*, 212.

137) 12세기 수도자 귀고(Guigo) 2세는 lectio divina를 이렇게 설명했다. “성경읽기는 우리 입 속에 단단한 음식을 넣는 것이고, 묵상은 그것을 씹어서 잘게 부수는 것이고, 기도는 그것을 맛보는 것이고, 관조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그것을 소화하는 일이다.” Dallas Willard 외, *제자도와 영성 형성 (The Kingdom Life)*, 홍병룡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2), 345.

138) 이상만, *영성이 이끄는 삶*, 93.

139) 본회퍼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세상 사회 속에 있는 사회적 집단으로 보는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교제하는 영적 공동체로 보았다. Charles Van Engene, *모이는 교회 흠어지는 교회 (God's Missionary People)*, 임윤택 역 (서울: 두란노, 1999), 48.

명의 형제들과 평생 독신으로 소박하게 함께 생활하기로 서약하고 떼제 공동체를 시작하였는데 이후 계속 성장하면서 지금은 세계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떼제의 생활은 크게 예배, 노동, 성찰과 나눔으로 이루어진다. 이 중 예배는 찬양, 성경봉독, 중보기도, 마침기도 순으로 매일 세 차례(아침, 낮, 저녁) 진행되며 설교는 성경봉독과 10분 정도의 침묵기도가 대신한다.¹⁴⁰⁾ 떼제 공동체는 전통적인 수도원 형태를 따고 있지만 수도원은 아니며, 하나님의 임재를 일상에서 체험토록 하는 영성의 훈련장이다.

영국의 노섬브리아(Northumbria) 공동체는 수도원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30여명 수도사들과 수도원 인근에 살고 있는 수백 명으로 이루어져 있다.¹⁴¹⁾ 이들은 수도원에서 함께 생활하지는 않지만 수도사들이 행하는 기도 패턴대로 자신의 집에서 규칙을 따라 수도적인 삶을 수행한다. 포스트 그린(Post Green) 공동체는 공동생활을 하는 40여명의 수도사들과 인근 자기 집에 살면서 수도적인 삶을 따르는 500여명의 회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회원들은 잔디 깎는 기계 등 서로 공유할 만한 물품은 같이 사용하고, 의사나 교사와 같이 고정적인 수입이 있을 경우에는 수입의 70퍼센트를 공유하고 그 나머지는 각 가정의 생활비로 충당한다.¹⁴²⁾ 중보기도, 정기적으로 성경읽기, 다른 사람에 대한 환대, 환경보전 등을 포함하여 10가지 수도규칙을 지키고 있다. 매주 2회 공식적인 모임을 갖는데, 월요일 저녁은 간단한 예배형식으로 찬양·말씀·중보기도·애찬 성격의 성찬을 나누고, 목요일 저녁에는 집에서 생활하는 회원들이 수도사들을 만나서 고민을 나눈다.

미국에서는 심플웨이(Simple Way)와 룻바하우스(Rutba House) 등의 공동체가 생겨나면서 새로운 수도원 운동이 대중적으로 확산되었다. 셰인 클레어본(Shane Claiborne)이 1997년 필라델피아 켄싱턴에서 노숙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시작한 심플웨이는 무소유 공동체로서 초대교회처럼 화해와 나눔을 강조하며, 조나단 윌슨 하트그로브(Jonathan Wilson Hartgrove)에 의해 2003년 노스캐롤라이나 더럼에

140) “이윤재의 영성의 순례,” 국민일보 (2012년 6월 26일).

141) “공동체가 뜨는 이유: 교회가 제 역할 못해서,” 크로스로우(crosslow.com), 2013년 2월 23일자.

142) 김현진, “평범한 사람들의 사랑과 치유의 동지, 영국의 포스트 그린 공동체,” *빛과 소금* 83 (1992년 2월), 60-65.

설립된 룯바하우스는 인종이나 종교 등의 경계를 넘어 가족적인 사랑을 힘쓰고 있다.

미국에서의 새로운 수도원 운동은 다양하지만 주로 백인들, 중산층, 복음주의 교단의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토니 캠프로(Tony Campalo), 로널드 사이더(Ronald J. Sider), 짐 월리스(Jim Wallis) 등이 이끌고 있다.¹⁴³⁾ 이들은 빈곤퇴치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헌신을 강조하며, 정의와 화해의 실천, 낮은 사람들에 대한 환대, 독신자 지원, 지구보존, 폭력과 갈등해결 위한 평화조성 등을 포함하여 새로운 수도원 운동의 열두 지표를 규정해 놓고 있다.

나. 한국 및 미주지역

개신교에서는 전통적인 수도원 형태의 영성훈련을 실시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수도원 운동에서 보았듯이 다양한 형태로 영성훈련 및 사역을 실시한다. 한국과 미주지역 개신교의 영성훈련 및 사역의 실재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한국

한국에서 개신교 그리스도인을 위한 영성훈련은 교단이나 개별 교회에서 실시하거나 영성훈련 시설을 이용하기도 한다. 개인의 영성을 훈련하기 위한 시설로는 예수원, 두레공동체영성훈련원, 다일영성생활수련원, 수암산수도원, 가락재영성원, 한국영성아카데미, 한국살렘영성훈련원을 비롯하여 많은 기도원과 수양시설들이 있다.

예수원은 미국 성공회 대천덕 신부가 노동과 기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1965년 강원도 태백시 산골짜기에 설립한 공동체로 한국에서 새로운 수도원 운동의 대표격이다. 3개월 동안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개인의 영성훈련을 받게 되는데, 기본일과는 매일 아침, 점심, 저녁 등 세 차례 예배와 노동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노동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하며, 다른 지체와 공동으로 하기도 한다. 오전 6시, 정오, 오후 6시 세 차례 삼중(3중)이 시작되면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143) “공동체가 뜨는 이유: 교회가 제 역할 못해서,” 크로스로우(crosslow.com), 2013년 2월 23일자.

침묵으로 기도드린다. 또한 오후 9시부터 10시까지는 작은 목소리로 필요한 말씀만 할 수 있는 소침묵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아침예배 전까지는 안식하거나 온전한 침묵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대침묵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두레공동체영성훈련원은 두레수도원(동두천) 혹은 영성수련원(곤지암)에서 3박 4일 일정으로 1단계 TD(Tres Dias) 훈련, 2단계 침묵영성훈련, 3단계 금식영성훈련을 1998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1999년에 경기도 가평에 세워진 다일영성생활수련원은 대화의 집, 침묵의 집, 화해의 집, 일치의 집이 있으며, 이곳에서 1단계 아름다운 세상 찾기(4박 5일), 2단계 작은 예수 살아가기(4박 5일), 3단계 영성수련 지도자 과정(9박 10일), 그리고 침묵피정(4박 5일) 등을 훈련하고 있다. 현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과 사역을 돕고자 초교파 에큐메니칼 영성훈련원으로 2012년 12월 서울에서 문을 연 한국살렘영성훈련원은 2013년부터 피정, 경청, 영성공동체, 영적 분별, 연민과 피조세계, 거룩한 삶, 주제별 독서모임으로 구성된 개인 영성생활심화프로그램(Personal Spirituality Deepening Program)을 통하여 8개월 과정으로 월 1회씩 모여 영성훈련을 진행하고 있다.¹⁴⁴⁾

교단이나 교회에서 자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영성훈련이나 사역을 하기도 한다. 대한성공회는 2001년 12월부터 영성센터를 설치하여 매월 격주로 침묵기도회를 열고 있다. 서울 사랑의교회는 국제제자훈련원에서 2013년에 영적 성장 및 양육을 위한 교재를 개발하였고 영성훈련원에서는 월요영성큐티집회 등의 사역을 하고 있다. 광림교회는 묵회연구원을 두고 2001년부터 교인들에게 매년 익투스 영성훈련¹⁴⁵⁾을 하고 있으며, 분당 한신교회에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한 ‘예수영성제자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광양 사랑의교회는 12주 영성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고, 성남 선한목자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수님과 24시간 동행’이라는 영성일기 코너를 마련하여 교인들이 영성일기를 쓰고 나누도록 하고 있다.

144) “평신도 위한 영성훈련과정 개설,” *뉴스앤조이* (2013년 3월 1일).

145) 1박 2일에 걸쳐 강의 4회, 중간 중간의 찬양시간, 촛불의식, 선물 받는 이벤트, 세족식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2) 미주지역

미주지역에서는 교단이나 지역을 중심으로 영성훈련이 실시되기도 한다. 이를 테면 미주 한인연합감리교회(Korean UMC)는 2007년 2월에 예배-강의-기도-묵상으로 구성된 3일간의 영성훈련을, 그리고 2013년 2월에는 강의-묵상기도회-신앙고백나누기-예배-성찬식으로 구성된 5일간의 영성훈련을 실시하였다. 2002년 샌프란시스코 등 북가주 지역에서 초교파적으로 결성된 K-WE(Korean Walk to Emmaus)는 피정-말씀묵상-강의-대화-찬양으로 3박 4일 진행되는 ‘엠마오 영성훈련’을 매년 두 차례씩 실시하고 있다.

계간지 ‘수도원의 소리’를 정기적으로 발간하며 초교파적 영성운동을 펼치고 있는 개신교수도원수도회가 2013년 6월 뉴저지 티넥에서 북미주지역에서는 최초로 개신교 수도원을 개원하였다.¹⁴⁶⁾ 회원들은 세 삶을 위한 5가지 지침을 생활화한다. 즉, 매일 세 번(아침, 낮, 저녁) 기도드리기,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기, 매일 예수님 본받아 선한 일 한 가지 실천하기, 가정/학업/직업을 똑같이 중요하게 여겨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기, 건강을 위해 운동하고 영육의 균형 잡힌 건강한 삶을 힘쓰기이다.

다. 영성훈련 및 사역에 대한 분석

이상에서 보듯이 한국 및 미주지역 개신교의 영성훈련은 예수원을 제외하면 가톨릭의 전통적인 영성훈련(기도, 묵상, 학습, 노동)과는 다르다. 미국 영성훈련기관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교단이나 교회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아직은 역사와 전통이 미천하다. 또한 많은 교회들이 영성사역을 위한 부서나 조직을 갖추지도 않았고, 이제 홈페이지를 통한 큐티 사역을 시작하는 교회들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여기서 한국 및 이민교회들은 영성훈련이 얼마나 시급한지에 대하여 새로운 공동체 운동에 주목하면서 깊이 느꼈으면 한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존의 교회를 떠나 새로운 공동체의 삶을 추구하고 있는가? 유럽과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에도

146) “북미주 첫 개신교 수도원 뉴저지에서 개원,” *미주기독일보* (2013년 6월 6일).

새로운 공동체 형태인 예수원이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생겨나고 있다. 이런 현상에는 한국교회, 특히 미주지역 이민교회들이 간과해서는 안 될 몇 가지 요인들이 있다.

먼저는 기존 교회들이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 되는 역할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교인들 중에는 교회에서 오히려 고립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기도 한다.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고, 성경공부하고, 소그룹 모임이며 경조사 돕기, 구제사역 취미활동, 심방 등이 이뤄지지만, 참여하지 못하거나 참여하였더라도 소외되는 교인들이 있다. 지치고 힘든 이민의 삶을 살면서 교인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가 되는 교제가 없다면 삶을 나누며 형제자매처럼 친근하고 서로 가족처럼 돌봐주는 새로운 공동체를 찾게 된다. 이민교회들도 이런 현상을 맞게 될지 모른다. 왜냐하면 교회에 다니면서도 힘들어 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교회가 영성의 발전소이자 훈련소로서의 역할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교회에서 드러지는 예배와 사역들이 교인들의 영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가? 교회는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 자신의 곤고함과 가련함을 알지 못했던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사실은 미지근한 영적 상태는 아닌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교회가 영적인 동력을 제공하고 있는가? 주일 예배 외에도 새벽기도회, 수요일예배, 성경공부 등 모이는 교회로서 힘쓰고 있는데 진정으로 영성을 강화시키고 있는가? 그리고 일터에서 교인들의 영성을 위하여 어떻게 구체적으로 돕고 있는지를 목회자는 돌아보며 교인들의 영성을 진단해야 할 것이다.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에서도 영성의 강화가 이뤄지지 않고 흩어진 일터에서도 영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영적인 무감각 속에 방황하게 된다.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일정한 장소나 특별한 시간만이 아니라 수도사들처럼 삶 전체에서 요구된다.

미주지역 이민교회의 영성훈련은 수도원이나 공동체에서 수행하는 영성훈련이며, 교단이나 교회 혹은 영성시설에서 하는 훈련들이 이단적이지 않고 기독교적이라면 필요하다. 교회에서도 설교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새벽기도회와 큐티 등을 통한 영성에 대한 강조가 계속되어야 한다. 다만 영성에 대한 훈련이나 교회에서의 노력이 영성을 높이는 계기는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삶 속에서, 일터에서 영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없다면 영성은 지속되기 어렵다. 영성훈련을 받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그리고 성경말씀을 큐티하며 묵상할 때 느껴진 거룩한 감격들이 소멸되지 않고 지속되도록 힘

써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각자에게 주어진 일이다. 영국의 기독교 복음주의자이며 성경학자였던 아더 핑크(Arthur W. Pink)가 옳은 지적을 하였다.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힘찬 메시지를 듣거나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말씀에 흥미를 느끼고 또 감동을 받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 만일 당신 편에서 성실하게 노력하지 않는다면 “너희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호 6:4)는 말씀이 응할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한가? 기도이다. 잘 박힌 못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에 그 말씀을 새겨 두셔서 마귀가 도저히 그것을 취할 수 없게끔 해달라고 부지런히 그리고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이다. 또 무엇이 필요한가? 잘 간직하지 않는 생각들은 쉽게 잊혀진다. 먹는 것 자체보다 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읽는 것보다 명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이 또 필요한가? 실천이다. 당신이 배운 것을 하나님이 주신 빛을 따라 걸으며 즉각 실천에 옮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은 곧 빼앗길 것이다.¹⁴⁷⁾

기도와 말씀묵상과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은 개인이 힘써야 할 구체적인 부분들이다. 이런 노력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유지되거나 강화될 수 없으며 오히려 계속하여 약화된다.¹⁴⁸⁾ 그러므로 영성을 위한 개인의 노력이 언제나 요구된다.

147) Arthur W. Pink, *영적인 실천 (Practical Christianity)* 이순근 역 (서울: 엠마오, 1989), 190.

148) Brother Lawrence, *The 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 (Springdale, PA: Whitaker House, 1982), 31.

제 3 장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연습

구약시대 안식일이 신약시대에 이르러 주일로 바뀌면서 그리스도인들은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인 주일(일요일)에는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드려야 할 가장 우선이 예배 임을 실천하면서 살아간다. 주일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로 모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도와 간구로 죄와 허물을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게 된다. 그러나 주일에만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중에 는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여받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충분히 기쁘시게 할 수도 없을 것이다.¹⁴⁹⁾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터에서도 영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 본장에서는 이민사회 일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영성을 유지하는 삶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하여 로렌스 형제(Brother Lawrence)를 통하여 배우고자 한다. 왜냐하면 로렌스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임재연습을 통하여 영성의 삶을 살았던 대표적 인물이며,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도전과 함께 본받을 만한 영적 여정의 롤 모델(role-model)이 되기 때문이다.

149)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 거룩한 성전인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며, 어디서 일하는 우리들이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며 즐거워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신다. Aiden W. Tozer,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예배자 (Whatever Happened to Worship)*, 안보현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9), 164.

제 1 절 로렌스 형제의 영성의 삶

1. 로렌스 형제의 삶

본명이 니콜라스 헤르만(Nicholas Hermann)으로 알려진 로렌스는 지금으로부터 400여 년 전 프랑스 로렌 지방에서 출생했다. 그는 집안이 가난하여 교육을 제대로 받지는 못하였다. 청년 때 군에 입대하여 전쟁에 참가하였는데 전투 중 한쪽 다리에 부상을 입어 결국 의가사 전역을 당하였다.¹⁵⁰⁾ 그 후 프랑스의 어느 귀족 가문에 들어가 하인으로 일하기도 하였고,¹⁵¹⁾ 회계원을 돕는 심부름꾼으로도 있었으나 일하는 것이 서툴러서 일을 엉망으로 만들기 일쑤였다.¹⁵²⁾ 그러던 그의 나이 18세이던 1623년 겨울 창밖으로 잎이 떨어져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를 보다가, 봄이 오면 앙상한 나뭇가지에서 싹이 돋고 잎이 생기고 꽃이 피며 거기에 열매가 맺혀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며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이런 체험은 그 후 세월이 지나도 계속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었으며 세상에서 만족하지 못하며 살아온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도록 하였다.

결국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파리 근교 카르멜 수도회(Carmelite Order)에 들어갔다. 거기서 로렌스라는 이름을 얻었으며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곳 수도원에서 남은 생애를 일하며 살다가 1691년 2월 12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가 살았을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가 누리는 기쁨과 평화에 대하여 자주 물었고,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찾아와서 조언을 구했으며, 어떤 이들은 편지를 통하여 상담하였다. 그는 안수 받은 목회자도 설교자도 그리고 거룩한 의식의 집례자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보는 눈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임재연습에 힘썼으며, 그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도 거룩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150) 로렌스 형제, *하나님의 임재연습 (The 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 윤종석 역 (서울: 두란노, 1996), 98.

151) Hinson, *기독교 영성목회*, 60.

152) 로렌스 형제, *하나님의 임재연습 (The 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 오현미 역 (서울: 좋은 씨앗, 2006), 12.

그가 세상을 떠나자 그의 친구이자 그를 잘 아는 수도원장(Joseph de Beaufort)이 그의 편지들과 인터뷰한 글들을 수집하고 정리하여 1692년에 *Maximes spirituelles*으로, 그리고 1694년에 *Mœurs et entretiens du frère Laurent de la Résurrection*로 출간하였다.¹⁵³⁾ 그 후 이 책들은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 번역되었으며, 한국에서도 1996년 두란노를 시작으로 2006년 좋은씨앗¹⁵⁴⁾, 그리고 2007년 이후 여러 출판사(규장, 호산나, 브니엘, 레베카, 생명의말씀사, 다윗의노래, 오늘과비전, 가톨릭출판사 등)에서 같은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그런데 책의 제목은 같을지라도 출판사에 따라서 수록된 내용들이 다르기도 하고, 같은 사항에 대해서도 조금씩 달리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음을 보게 된다.

이를 보면 그의 출생연도도 1605년, 1610년, 1611년 등으로 다르고,¹⁵⁵⁾ 수도원에 들어갔을 때 나이도 50세, 55세 등으로 다르며,¹⁵⁶⁾ 소천 때 나이도 80세, 86세 등으로 다르다.¹⁵⁷⁾ 그 외에도 로렌스가 심부름꾼으로 일했다는 기록에 대해서도 내용이 다르고, 수도원에서 그의 직분에 대해서도 조금씩 다르게 기술하고 있다. 로렌스를 두란노(윤종석 역) 판에서는 ‘평신도 수도사’ 혹은 ‘평신도 수사’로 표현하였고, 좋은씨앗(오현미 역) 판에서는 ‘평신도 형제’라고 되어 있다.¹⁵⁸⁾

153) 불어로 된 책 이름을 영어로 직역하면 ‘Spiritual maxims’(1692)와 ‘Customs and interviews brother Lawrence of the Resurrection’(1694)이지만, 미국에서는 ‘The 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 by brother Lawrence’ 혹은 ‘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 Being Conversations and Letters of Nicholas Hermann of Lorraine’ 등으로 발간되고 있다.

154) 이하 본고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연습”(오현미 역)과 “하나님의 임재연습”(윤종석 역)으로 구분하여 표기할 것이다.

155) “하나님의 임재연습”(오현미 역),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ccel.org), biblicaltraining.org, christianaudio.com, practicegodspresence.com 등에서는 1605년이고, clearvisionbiblestudies.com, hermes-press.com에서는 1610년이며, “하나님의 임재연습”(윤종석 역), 브니엘(임종원 역), spiritualityandpractice.com, netlog.com 등에서는 1611년이다.

156) “하나님의 임재연습”(오현미 역)은 50세이고, 생명의말씀사(에드워즈 역), Oliver Tree에서 발간한 책과 spiritualityandpractice.com 등에서는 55세이다. 반면 다윗의노래(임금선 역)는 26세, 호산나(이영길 역), 브니엘(임종원 역), 규장(배웅준 역) 등에서는 38세이고, 가톨릭출판사(최애리 역)에서는 16세의 나이로 수도원에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다.

157) “하나님의 임재연습”(윤종석 역)과 생명의말씀사(에드워즈 역), *The 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Whitaker House) 등에서는 80세이고, “하나님의 임재연습”(오현미 역)에서는 86세이다. 반면 가톨릭출판사(최애리 역)에서는 77세이다.

158) 2007년 이후 출간된 번역본(호산나, 규장, 브니엘, 레베카, 오늘과비전, 생명의말씀사)에

이런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하여 모두 밝히기는 어렵지만 로렌스가 수도원에 들어갔을 때 직분에 대해서는 영어 원본과 대조하여 볼 때 번역 상의 오류로 여겨진다.

한글 : 두란노(윤종석 역) 판	영어 : Whitaker House 출판사
갈멜 수도원의 평신도 수도사였던 로렌스 형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p.97)	Such a man was Brother Lawrence of the Resurrection, a Carmelite lay-brother. (p.75)
그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인도하심에 이끌려 파리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갈멜 수도원의 평신도 수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로렌스라는 이름도 얻었다. (p.100)	He was lovingly persuaded by God to go to Paris, where he became a lay-brother of Carmelite Order and took the name of Brother Lawrence. (p.78)
수도원의 동료 수사들 사이에서도 하나의 모본이 되었다. (p.101)	it soon made him the model of his fellow members in the monastery. (p.78)
한번은 선배 수사들 가운데 한 명이 무엇을 잘못알고. (p.101)	Even when mistaken told by one of his superiors. (p.79)
거꾸로 그는 모든 사람들을 형제처럼 따뜻하게 대하고 동료 수사들을 친구처럼 대했으며, (p.108)	On the contrary, he fraternized with everyone and treated his brothers as friends, (p.84)

한국에서 1996년 개정 초판과 2011년 개정 2판으로 나온 두란노(윤종석 역) 판은 1982년 미국 Whitaker House 출판사가 펴낸 'The 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 by Brother Lawrence'를 번역하여 옮긴 것이다. 위에서 보듯이 두란노(윤종석 역) 판은 로렌스를 97페이지에는 '평신도 수도사', 100페이지에서는 '평신도 수사'라고 표현하였다. 그리고 '수사'라는 표현은 101페이지에서 2번, 108페이지에서 1번 등 세서는 '평수사(平修士)' 혹은 '평범한 수도사'로 되어 있다.

변이나 나온다. 이 부분에 대해서 Whitaker House 출판사의 영어판과 대조해 보면 영어판 75페이지의 lay-brother를 두란노(윤종석 역) 판 97페이지에서 ‘평신도 수도사’로, 영어판 78페이지의 lay-brother를 두란노(윤종석 역) 판 100페이지에서는 ‘평신도 수사’로 번역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영어 lay-brother는 ‘평신도 수도사’나 ‘평신도 수사’보다는 좋은씨앗(오현미 역) 판처럼 ‘평신도 형제’로 번역함이 적절하다.

그리고 영어판 78페이지의 his fellow members in the monastery를 두란노(윤종석 역) 판 101페이지에서 ‘수도원에 있는 동료 수사들’이라고 번역한 것은 ‘수도원에 있는 그의 (주방) 동료들’로, 영어 원본 79페이지의 one of his superiors를 두란노(윤종석 역) 판 101페이지에서 ‘선배 수사들 가운데 한 명’이라고 번역한 것은 ‘그의 윗사람 중 한 명’으로, 영어 원본 84페이지의 treated his brothers as friends를 두란노(윤종석 역) 판 108페이지에서 ‘동료 수사들을 친구처럼 대했으며’라고 번역한 것은 ‘자기 동료들을 친구처럼 대했으며’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미국에서 영어로 출판된 책에서는 로렌스를 주로 lay-brother(평신도 형제)¹⁵⁹⁾로 혹은 layman(평신도)¹⁶⁰⁾으로 표현하고 있고, ‘수도사’ 혹은 ‘수사’를 뜻하는 영어 단어인 monk나 friar 혹은 trappist로 표현한 경우는 찾아볼 수 없었다.¹⁶¹⁾

로렌스는 카르멜 수도회에 수도사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평신도 형제(lay-brother)로 들어갔다. 당시 수도원에서는 로렌스처럼 손노동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단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도 받아들였다.¹⁶²⁾ 요즘은 수도원의 주방에서 수도사가 아닌 청년과 아이들도 일하고 있다.¹⁶³⁾ 수도회에 속한 수도사가 되려면 일정한 자격¹⁶⁴⁾을 갖추어야 했는데, 로렌스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수

159) amazon.com의 Book Description을 비롯하여 Wikipedia(en.wikipedia.org), ochristian.com, goodreads.com, olivertree.com, voices.yahoo.com 등에서도 lay brother로 되어 있다.

160) ccel.org 등에서는 layman(평신도)으로 표현하였다.

161) monk는 수도원(monastery)의 수도사를, friar는 탁발 수도회(mendicant Orders)의 수도사, trappist는 시토 수도회(Cistercian Order)의 수도사를 가리킨다.

162) 정원범 외, *영성수련과 영성목회*, 100.

163) 이성희, *수도원 영성의 향기*, 146.

164) 수도사가 되는 자격은 아주 까다롭다. 첫째는 남자이고, 둘째는 대학졸업자이고, 셋째는 미혼이자 평생 독신이어야 하며, 넷째로 군복무를 마쳐야 한다. 이성희, *수도원 영성의 향기*, 72.

도사로 들어가고자 했을지라도 그럴 수가 없었다.¹⁶⁵⁾ 그는 대학을 졸업한 수도사들처럼 라틴어를 공부하지 않았으므로 성경을 쉽게 읽을 수도 없었고, 신학서적에 대한 학습이나 연구 혹은 예배의식을 수행할만한 지식이 부족했다.

전통적으로 수도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노동과 기도와 학습이다.¹⁶⁶⁾ 수도사들은 식사와 노동을 제외하면 대부분 자신의 셀에서 독서하면서 수도사로서의 영성을 키워 나간다.¹⁶⁷⁾ 물론 로렌스도 카르멜 수도원에서의 규칙을 따랐지만 기도 시간이 되면 어려운 명상이나 독서에 시간을 보내기 보다는 하나님의 성품과 진리를 묵상하는데 보냈다.¹⁶⁸⁾ 영성에 관한 몇 권의 책들을 읽어보기도 했으나 그의 표현을 빌린다면 자기의 영혼을 한층 더 혼란스럽게 할 뿐이었다.¹⁶⁹⁾ 로렌스는 수도원에서 독서와 학습을 치중하며 수도에 정진하였던 수도사가 아니라 그냥 평신도(layman)로서 영성의 삶을 철저히 살았던 사람이다.

로렌스는 수도원에 평신도 형제의 신분으로 들어갔으며 배치된 곳이 주방이었다. 수도원에서 아침식사는 잘 하지 않지만 점심식사는 모든 수도사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식사¹⁷⁰⁾이며, 저녁식사는 수도원마다 다르지만 함께 모여서 하거나 자유스럽게 본인 뜻대로 식당에 와서 하기도 한다. 카르멜 수도회에 속한 파리 근교 수도원의 규모로 볼 때 다수 인원들이 식사를 하려면 사전에 음식재료를 마련하고 요리하는 등 할 일이 많았으며, 저녁식사도 간단하게라도 준비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일터인 주방에서도 로렌스 형제는 기도와 묵상과 때로는 찬양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자 힘썼

165) Calvin College의 Abby Zwart는 로렌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Lawrence was uneducated, and so had to enter the monastery as a layman. He worked in the kitchens and as a cobbler there for the remainder of his life." *The 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www.ccel.org).

166) 수도사들은 신학과 영성에 관한 책을 읽어서 신학적 지식수준도 상당히 높다. 수도원에서는 공동학습도 강의식 교육도 없으며, 독서를 통해 수도사로서 필요한 모든 지식과 경륜을 얻는다. 이성희, *수도원 영성의 향기*, 121, 122.

167) 이성희, *수도원 영성의 향기*, 155.

168) "하나님의 임재연습" (윤종석 역), 105.

169) *ibid.*, 65.

170) 점심을 함께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식사가 잔치이기 때문이고, 둘째는 친교를 위해서이다. 수도사들은 함께 수도원에서 생활하지만 각자의 셀에서 생활하고 자신의 일터에서 일하므로 교제를 위해 함께 모여 식사하는 것이다. 이성희, *수도원 영성의 향기*, 134.

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연습은 정해진 기도시간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시간에도 매일 매일의 일과가 되었으며, 일터는 하나님의 임재연습의 거룩한 장이었다.

2. 하나님 임재연습의 삶

하나님의 임재란 그분이 언제나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만 우리 영혼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이다.¹⁷¹⁾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연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영혼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영적 양분을 얻으며 그분의 소유가 될 때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연습을 하지 않고 어떻게 만족스런 삶을 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였다.¹⁷²⁾ 그는 세상에서 어떤 큰 즐거움일지라도 하나님 없이 즐기는 것이라면 의미가 없다고 여겼다. 그가 어떻게 수도원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임재연습에 힘썼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대화

배움이 많지 못하여 수도원에 평신도로 들어온 로렌스 형제는 수도원 식구들을 위하여 음식재료를 구하는 것에서부터 주방에서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정리하는 등 허드렛일을 15년 넘게 봉사하다가 후에는 구두 수선실의 수선공(cobbler)으로 일했다. 처음엔 주방에서의 일이 즐겁지도 않고 몹시 싫어서 고행이라 생각하였다. 수도원에 속한 많은 인원들을 위하여 음식재료를 준비하거나 주방에서 일하는 것이 전쟁터에서 입은 부상으로 한 쪽 다리를 절뚝거리는 불편한 몸으로 하기엔 쉽지도 않아서 기쁨을 느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나님이 맡기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고자 의식적으로 결단했을 때 일하는 가운데서도 기쁨과 즐거움이 느껴졌으며 그러면서 점점 주방 일에도 숨쉴 틈을 보이며 잘 하게 되었다.

171) “하나님의 임재연습”(윤종석 역), 86.

172) “하나님의 임재연습”(오현미 역), 88.

그렇게 된 모든 원인은 오직 범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대화하며 행하려는 마음 덕분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일터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소와도 같았다. 일반적으로 대화라고 하면 마주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며 대화에는 언제나 상대방이 있기 마련이다. 그는 대화를 너무도 많이 한 사람인데 대화의 상대는 주로 하나님이셨다. 어떤 때는 하루 종일 하나님과 대화하기도 하였다. 여기서 대화란 입을 열어 드리는 기도이던, 마음으로 묵상하며 드리는 기도이던,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께 아뢰며 나누며 교제하는 것을 말한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였기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대화하였다.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대화의 습관에 길들여지기 위해서 그는 처음엔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하나님이 자기 곁에 함께 계심을 믿으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였다. 그런데 그의 대화는 단순히 기도하며 말씀드리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훌쩍 뛰어넘었다. 그것은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드러지는 온 마음의 진솔한 대화였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기술도 필요하지 않고 지식도 필요하지 않으며,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자 하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러진 마음이라고 여겼다.¹⁷³⁾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과의 대화는 주로 온 마음을 담은 자신의 일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그가 터득한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단순히 자신의 평범한 일상사를 기쁨으로 수행하는 것이었다.¹⁷⁴⁾ 그는 음식을 만들면서는 “이 음식을 먹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우소서!” 그릇을 씻으면서 “이 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는 자마다 건강하게 하소서,” 그리고 청소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게 하소서,” 이처럼 늘 기도하며 일하였다.¹⁷⁵⁾ 그의 얼굴은 항상 밝았고 마음은 늘 기쁨에 차 있었다. 사람들이 그 비결을 물어보면 그는 사소한 일이지만 일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우리나라오는 순종의 마음으로 하고자 힘썼

173) “하나님의 임재연습”(윤종석 역), 25.

174) “하나님의 임재연습”(윤종석 역), 28.

175) 오성춘 외 11인, *기독교인의 직업과 영성*, 18.

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각오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면 하나님은 어떤 속임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주시며, 시련과 고난을 주시더라도 적시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전 10:13)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그는 시끄러운 주방에서 일하면서도 기도하거나 묵상하며 하나님을 만났다.

나에게는 일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과 다르지 않다. 주방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시끄러운 소음이 들리는 중에도,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각기 다른 것을 요구하는 동안에도, 나는 마치 무릎을 꿇고 복된 성례에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매우 고요하게 하나님을 묵상한다.¹⁷⁶⁾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묵상하며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계속하여 생겨나기도 했다.¹⁷⁷⁾ 그럴 때마다 그것들을 포기하고자 힘썼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시켰다. 그것은 단 한 가지의 목적, 곧 하나님과의 대화에 어떠한 막힘도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지지 않았으며, 자기 곁에 계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거나, 불확실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모든 것을 직접 하나님께 아뢰었다. 그는 일을 시작할 때는 확신 가운데 주님께 이렇게 기도드렸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저와 함께 계십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뜻에 의해 외적인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제게 은혜를 내리사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저와 함께 일해 주옵소서. 그러면 제가 하는 일은 최상의 것이 될 것입니다. 저의 이 일과 지금의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을 향한 저의 사랑의 제물로 받아주옵소서.¹⁷⁸⁾

일을 하는 동안 그는 진짜로 하나님이 자기 바로 곁에 서 계신 것처럼 하나님과 쉬지 않고 대화를 나누었다. 그리고 일을 마친 후엔 하나님을 위하여 그 일을 할 수

176) Richard Foster, *기도 (Prayer)*, 송준인 역 (서울: 두란노, 1998), 170.

177) 처음에 이리저리 분산되는 생각들을 물리치려 애쓰거나 거기에 그냥 빠져드느라 정해진 기도시간을 그냥 흘러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하나님의 임재연습”* (오현미 역), 38.

178) *“하나님의 임재연습”* (윤종석 역), 105, 106.

있는 특권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렸다.

그는 하나님과의 대화, 곧 기도하거나 묵상하는 것을 특별한 시간을 정하여 그때만 하지 않았다. 수도원에서 정해진 기도모임에 참석했을 때뿐만 아니라 어느 때든지, 비록 음식을 만들거나 그릇을 씻거나 청소를 하거나, 혹은 밭에서 씨를 뿌리거나 풀을 뽑거나, 혹은 밥을 먹을 때에도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대화하였다. 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소는 수도원의 기도실만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기가 일하는 그곳 일터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소였다. 주방이던, 수도원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장소이던, 구두 수선실이던 어디서든 자기와 함께 계신 하나님과 대화하였다. 그는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절대 귀찮아하지 않고 하나님께 겸손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심령을 아뢰었다.

나. 한결같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의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다. 그는 언제나 자기를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사랑이라고 생각했고 자기도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사소한 허드렛일이라도 즐겨하곤 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몇 년 동안 흔들린 적이 있기도 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기에 자신은 그리스도인임이 분명하다는 태도를 견지했다. 그는 염려와 죄책감으로 계속해서 넘어졌다 또 일어나곤 하는 일을 오랫동안 반복했던 적도 있었으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겨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놀라지 않았으며, “그러면 그렇지. 이게 나인걸. 내가 할 줄 아는 유일한 일이지”¹⁷⁹⁾라고 말하곤 했다. 죄를 지었다는 생각이 들 때면 언제나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이렇게 기도하였다. “저는 주님 없이는 결코 이보다 더 나아질 수 없습니다. 저를 넘어지지 않게 지켜 주시고 이 행한 죄로부터 돌이켜 주옵소서.”¹⁸⁰⁾ 그리고선 더 이상 그 죄에 대하여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또한 그는 자신을 돌아보며 죄를 짓지 않았을 때면 하나님께 감사드렸

179) “하나님의 임재연습”(윤종석 역), 17.

180) “하나님의 임재연습”(윤종석 역), 16.

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자신을 죄에서 지켜 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고난조차도 선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마치 잘못을 한 아이가 아버지로부터 야단을 맞아 울다가 아버지가 안아줬을 때 아버지 품에 안겨 평안과 기쁨을 되찾듯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음을 확신하는 자에게는 고난이 되었건 축복이 되었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별 차이가 없다고 여겼다. 그는 혹 일이 잘못되어 마음이 어지러워지기라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사람에게 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는 믿음으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아뢰었다. 그러고 나면 다시금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임재를 늘 알도록 해주었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사랑은 섬김으로 나타났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이였다. 종이 가진 것은 주인의 것이었기에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와 자기의 관심과 연민 그리고 소유물까지도 주인의 뜻대로 드리며 섬겼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게 된다. 그는 자기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자기가 하나님을 향하여 품고 있는 사랑과 똑같은 사랑으로 대하며 섬겼다. 그는 선행을 하려는 생각이 들 때면 먼저 “주님,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정말이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¹⁸¹⁾ 라고 아뢰었고, 그러면 주님께서 힘을 주셨다. 그는 자기 능력이 닿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었다. 이웃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했으며, 어떤 식으로든 결코 다른 사람을 해하려 하지 않았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각별히 조심하여 형제들을 섬기고자 했으며, 부엌에서 일할 때 동료들을 천사처럼 생각하며 특히 그랬다. 그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는 위로해 주었고, 조언이 필요할 때는 조언을 아끼지 않았으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았다.¹⁸²⁾

로렌스 형제는 비록 작고 하찮아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였으므로 일하는 것이 곧 섬김이었다. 주방에서 다른 사람을 도우며 종종 두 세 사람 몫의 일을 하기도 했고,¹⁸³⁾ 후라이팬의 작은 계란 하나라도 하나님을

181) “하나님의 임재연습”(윤종석 역), 16.

182) “하나님의 임재연습”(윤종석 역), 122.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었다.¹⁸⁴⁾ 나중에 신발 수선실에서 일할 때 구두 고치는 일도 성실한 태도로 정성을 다했는데, 그가 수선한 구두를 신은 사람들은 자기의 맡은 역할을 잘 하였기에 그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칭찬의 말을 했을 것이다.¹⁸⁵⁾ 그에게는 어디서나, 모든 것, 모든 일이 하나님에 맡기신 일이라고 여겼으며,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이 크든지 작든지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자 힘썼다.

그에게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나 주방에서 지푸라기 하나를 줍는 일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엔 다르지 않았다. 그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졌으며, 그 사랑이 그의 삶 속에 스며들어 모든 것을 변화시켰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연인을 항상 생각하며, 연인은 매순간 모든 일 속에 임재하기 마련이다.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와 같다고 말한다.¹⁸⁶⁾ 로렌스 형제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하나님의 임재연습을 위한 시작이자 끝이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드러지지 않는 모든 시간들은 잃어버린 시간으로 간주하였으며,¹⁸⁷⁾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힘썼다.

그는 임종할 때 주변에 모여 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증언했다고 한다.¹⁸⁸⁾ “저는 지금 죽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제가 지난 40년 동안 해오던 것을 하고 있을 뿐이고, 제가 영원토록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할 뿐입니다.” “그게 뭐니까?”하고 사람들이 묻자 그는 “저는 지금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이 땅에서 그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드림이었다. 그는 자기 자신은 큰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김의 삶을 살 고자 힘쓴 그를 도우시며 그가 하는 일들이 좋은 결과를 맺도록 이끄셨다.

183) “하나님의 임재연습” (윤종석 역), 107.

184) “하나님의 임재연습” (윤종석 역), 104.

185) Compolo, *일터에 사랑*, 152.

186) Hinson, *기독교 영성목회*, 61.

187) “하나님의 임재연습” (윤종석 역), 121.

188) Tozer,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예배자*, 74.

다. 영적 훈련으로서의 하나님의 임재연습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물론 하나님의 임재연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로렌스 형제처럼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믿음 속에서 만나며 교제를 통하여 임재를 체험할 때 풍성하게 부여진다. 하나님을 만나며 교제하기를 힘쓰는 것은 영적인 훈련이며, 모든 훈련이 그렇듯이 훈련은 반복되지 않으면 일정한 목표나 수준에 이를 수가 없다. 하나님의 임재연습이 한 두 차례 시도하는 것으로는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도 바빠 일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하나님의 임재연습을 잊어버리기도 하였다.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잃어버린 채 오랜 시간을 보낸 적도 있었고, 하나님께 도움 구하는 것을 잊어버려서 죄를 짓기도 하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도 과거의 죄를 잊지 못하여 죄책감에 빠지기도 하였고, 분산되는 생각들에 빠져서 정해진 기도시간을 그냥 흘려보낸 경우도 많았다.¹⁸⁹⁾ 이처럼 자신도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다 그만뒀 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으나 그때마다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으로 다시 일어났다.¹⁹⁰⁾ 믿음은 로렌스 형제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견고한 소망과, 그분의 주권적인 섭리에 대한 확신과, 자신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온전히 내어 드릴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주었다.¹⁹¹⁾

하나님의 임재연습은 믿음을 통한 훈련이기 때문에 꾸준한 반복이다. 한 두 번이 아니라 오랫동안 계속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연습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반복된 삶의 습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로렌스 형제도 하나님의 임재연습에 완전히 몰두하기까지는 십 년이 걸렸다고 고백하였다.¹⁹²⁾ 그는 정해진 기도시간뿐 아니라 하루 종일 자기를 하나님 생각으로부터 떼어 놓으려는 모든 것들을 물리치는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때론 연습이 주춤하기도 하고 많은 실수들로 얼룩지는 때도 많이 있었다.¹⁹³⁾ 그런 속에도 하나님의 임재연습

189) “하나님의 임재연습”(윤종석 역), 24, 27, 33, 46.

190) “하나님의 임재연습”(윤종석 역), 102.

191) “하나님의 임재연습”(윤종석 역), 114.

192) Foster, 기도, 172.

193) “하나님의 임재연습”(윤종석 역), 67.

을 매일의 일과로 꾸준히 의식적으로 힘씀으로써 습관이 되었던 것이다. 로렌스 형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연습도 시작은 더뎠으며,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법을 터득한 것은 길고도 고된 훈련을 거친 뒤였다.¹⁹⁴⁾ 의지를 가지고 인내하며 습관적으로 힘쓴다면 하나님의 임재연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그는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는 수시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어려움이나 구할 것을 수시로 아뢰고, 죄를 지었으면 잘못을 고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임재연습이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세상 사람이 다 동원되어 설득해도 소용없을 정도로 고민하며¹⁹⁵⁾ 하나님의 임재연습을 숙달하는데 실패하기도 했지만, 그는 결코 낙심하지 않았고 습관이 되고 나서는 하나님의 임재연습은 거룩한 기쁨의 원천이 되었다. 그는 일터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도 그 상황에 걸맞은 방법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힘썼다.¹⁹⁶⁾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고 믿었으므로 그 때 그 때 입에서 나오는 말로 자신의 심령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의 본성처럼 됨으로써 그의 일상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거나 하나님의 임재연습이었다.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에는 무슨 특별한 기교가 없었다. 그저 늘 똑같은 마음으로 단순하게 그것을 연습할 수 있을 따름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연습을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짙막한 기도로 시작하곤 하였다. 이를 테면 “주님, 저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따라 저를 사용하여 주소서” 등과 같은 말들을 고백하였다.¹⁹⁷⁾ 그는 일터에서든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임재연습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믿음이 강해졌고, 무슨 일을 맡든지 그 일이 크던 작던 간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게 되었다. 그리고 일을 하면서 어려움이나 난관을 만나더라도 결코 소망을 잃지 않았다. 하나님의 임재연습은 그로 하여금 영적인 면에서만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강건케 함으로써 자신을 세상적인 죄에서도 지켜주었다.

194) “하나님의 임재연습”(오현미 역), 19.

195) “하나님의 임재연습”(오현미 역), 33.

196) “하나님의 임재연습”(윤종석 역), 77.

197) “하나님의 임재연습”(윤종석 역), 90.

제 2 절 이민사회에서의 적용 가능성

로렌스 형제는 일하면서도 기도와 묵상의 규칙적 생활화를 통하여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고자 했으며, 일터를 하나님의 임재연습의 거룩한 처소로, 그리고 소명을 감당하며 이웃을 섬기는 곳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그의 삶은 이민사회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도달하기가 어려운 그저 이상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하나님의 임재연습을 통하여 너무도 순전한 믿음으로 영성의 삶을 살았던 그를 대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에 힘쓰고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심히 부족함을 느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연습은 현재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모습 그대로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자 힘쓰는 것이라고 용기를 주고 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도 능력도 없을지라도,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영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이다.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연습이 이민사회에 왜 필요하며, 그리고 일터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까를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이민사회에 대한 이해

해외에는 현재 약 700만 명의 한인¹⁹⁸⁾들이 170여 개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다. 그 중 미국에 사는 한인 인구는 2010년 시행된 미국의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142만 여명으로 나타났으나,¹⁹⁹⁾ 한인사회에서는 300만 명이 넘는다고 하고, 한국 정부의 공

198)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은 교포, 교민, 동포, 조선족, 고려인 등으로 다양하게 호칭돼 왔으나 미주한인이민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며 호칭을 혈통과 민족을 동시에 나타내는 '한인'(Korean)으로 정하고 그 앞에 나라(예: 미주한인)와 지역이름을 놓아 세계한인이 통일된 명칭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199) 미 연방 2010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미국 내 한인인구(혼혈 제외)는 1,423,784명으로 조사되었다. "미주 한인 140만명 돌파," *미주중앙일보* (2011년 5월 27일).

식적인 발표로는 218만 명에 이른다.²⁰⁰⁾ 미주 이민은 암울했던 구한말인 1903년 1월 13일 대부분 인천 내리교회 교인들이었던 102명의 한인들이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한 것이 시작이다.²⁰¹⁾ 지금으로부터 111년 전인데 그 후로 이민이 계속 활발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1924년 미 의회는 ‘존슨-리드 이민법’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은 매년 국가별 허용되는 이민자 수를 미국에 거주하는 해당국가 출신자 수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그 결과 유럽에서 많은 수의 이민자가 유입되었고, 특히 중국인과 기타 아시아인들에게 일자리 빼앗길 것을 우려하여 비 유럽인들은 이민이 제한되었다.²⁰²⁾ 1943년에 중국인 이민을 금지했던 법률이 폐지되었고, 1952년에는 인종을 불문하고 미국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이민이 허용되면서 한인 이민자의 수도 늘어났다.²⁰³⁾

1492년 콜럼버스가 발견하여 신대륙으로 알려졌던 미국은 독립선언서 전문에도 명기하였듯이 모든 사람은 창조주로부터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양도 불가한 권리들을 부여받고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원리 위에 세워졌다. 그러나 많은 이민자들이 이런 꿈을 좇아 미국에 왔으나 그들은 행복에 이르는 길이 어려움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초기 정착민들의 이야기는 가난과 질병, 전쟁과 때 이른 죽음 등과 싸우는 내용으로 가득하다.²⁰⁴⁾ 최초로 하와이 땅을 밟은 한인들, 그리고 그 후로 이어진 한인 이민자들도 많은 어려움²⁰⁵⁾을 겪으면서 미국의 발전에 하나가 되었

200) 외교부가 집계한 한인 현황에 따르면 2011년 기준 미국 내 한인은 218만 명이며, 이중 시민권자는 109만 명이다. “미한인 2,176,998명,” *미주한국일보* (2012년 6월 28일).

201) 인천에 있는 ‘한국이민사박물관’에 전시된 자료에 따르면 하와이 첫 이민단은 121명이었다. 이들은 1902년 12월 22일 인천에서 일본상선(겐카이마루)으로 12월 24일 일본 나가사키항에 도착하여, 거기서 신체검사로 19명이 탈락하였고, 나머지 102명이 미국의 태평양 횡단기선인 갤릭(Gaelic)호에 승선하여 1903년 1월 13일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하였다. 미 연방의회는 이를 기념하여 한인이민 100주년이 되던 2003년 1월 13일을 ‘미주한인의 날’로 정하였다.

202) 나라가 성장하면서 정치지도자들은 조직적으로 유색인종이 시민권이나 투표권 혹은 생산수단을 얻지 못하게 하는 법률과 배제정책을 실시했다. Willard 외, *제자도와 영성 형성*, 247.

203) “아시아계 미국인,” 주한미국대사관 홈페이지(<http://infopedia.usembassy.or.kr/KOR>).

204) Willard 외, *제자도와 영성 형성*, 247.

205) 계약노동자로 들어온 최초 하와이 이민자들은 영어도 못하였고, 사탕수수 농장에서 새벽 4시부터 오후 4시까지 12시간 손에 피가 나고 몸에 멍이 들도록 중노동 하면서 일당으로 남자는 67센트, 여자는 50센트를 받았다. 미주 한인이민의 역사(www.heykorean.com/hk) 참조.

다. 물론 이민의 역사가 짧은 한인으로서도 유럽 국가들처럼 미국의 독립이나 건국, 그리고 국가발전에서 기여한 부분은 적을 수밖에 없다.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독립을 선포하던 1776년은 조선에서는 영조 임금이 52년의 재위를 끝내고 83살의 나이로 죽은 해였는데 이 때 우리 조상들이 미국의 독립에 대해 알기라도 했을까? 남북전쟁 때에도, 서부 개척시대에도 한인들이 미주지역에 없었으므로 아무런 기여도 없었다.

그러나 1903년부터 한인들이 미국 땅에 이주하면서부터는 크게 다르다. 미주지역 한인들은 일제치하 고국(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하여 연합하였고, 1차 및 2차 세계 대전, 그리고 한국전쟁 때도 한국계 미군으로 참전하여 싸우기도 하였다.²⁰⁶⁾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인들은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진력하여 왔다. “미국에서 중국 사람은 식당을 차리고, 한국 사람은 교회를 세운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기도 했지만 미주지역에는 2012년 10월말 기준으로 4,275개²⁰⁷⁾의 한인교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인들은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함에 있어서는 어느 민족보다도 앞장서 왔고, 지금도 힘쓰고 있다.

물론 유럽인들은 17세기부터 본격적으로 미지의 신대륙으로 건너와서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플리머스(Plymouth)에 도착한 청교도(Pilgrim)들을 위시하여, 그 후 로드아일랜드(Rhode Island)에 로저 윌리엄스(Roger Williams)와 그의 추종자들이, 중간 식민지(middle colonies)에 퀘이커(Quaker)들이, 펜실베이니아(Pennsylvania)에 독일분리교파 신도들이, 뉴욕에 네덜란드개혁파 교도들이, 그리고 뒤늦게 이민대열에 합류한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의 장로교도들을 포함하여, 이들은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동 하에 신대륙에서 신정(theocracy) 정치를 도모했다고 헬무트 리차드 니버(Helmut Richard Niebuhr)가 평가한다.²⁰⁸⁾ 이제 여기에 20세기 이후 한

206) 한인 2세인 김영옥(1919-2005)은 2차 대전과 한국전에 참전하여 미군 최초의 유색인종 전투대대장으로赫赫한 전과를 세웠으며, 최종 계급은 대령이었다. MSN 투표에서 미국 역사상 최고 전쟁영웅 16인에 선정되었고, LA 교육위원회는 그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여 2009년 9월에 코리아타운 인근에 세워진 중학교 이름을 ‘영옥 김 아카데미’로 명명하였다.

207) “미주 한인교회 4,275, 주별 1위 CA,” *미주크리스천신문* (2013년 1월 12일).

208) Helmut Richard Niebuhr, *The Kingdom of God in America* (New York: Willett, Clark & Company, 1937), 45.

인들이 미국에서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온 신앙의 역사를 추가해야 좋을 듯하다.

이민이 이어지고 또한 미국에서 출생한 2세, 3세들도 늘어나서²⁰⁹⁾ 한인 인구가 증가하였지만 인구비율로는 아직 미국 전체 1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수민족이다. 한인들은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이 특별하며 교육수준은 타 인종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²¹⁰⁾ 한인들은 도전적이고 진취적이어서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여 성공의 사례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주로 1.5세나 2세, 혹은 3세들이긴 하지만 백악관에도, 정계에도, 학계에도, 체육계에도, 경찰이나 군에서도 고위직으로 진출하여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어서 고무적이다. 한인 1.5세들은 한국에서와는 상이한 문화적 갈등을 비롯하여 이민생활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미국 지향적인 성향이며 코리안 아메리칸(Korean American)으로 불리며 살아간다.²¹¹⁾ 한인 1세들은 태어나서 자라고 익숙했던 한국과는 다른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 1세들은 이민생활이 오래거나 현지인들과 함께 일할수록 미국 문화를 잘 받아들이긴 하지만,²¹²⁾ 미국에 있으면서도 한국 지향적이며 대부분 한국인(Korean)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정체성이 모호하기도 하다.²¹³⁾

미국은 한반도의 44배에 이르는 면적을 가진 연방국가로서 총 인구는 3억이 넘

209) 연방센서스국의 자료에 의하면, 2012년 기준 뉴욕 메트로 일원의 한인(203,634명) 4명 중 1명(25.1퍼센트)인 51,102명이 미국 출생자다. “미국 출생 늘었지만 한국어 사용 안 줄어,” *미주한국일보* (2012년 9월 19일).

210) 연방센서스국의 자료에 의하면, 25세 이상 한인 중 석·박사를 포함해 학사학위 이상 학력자는 52.9퍼센트였다. 이는 미국 전체(27.9퍼센트)의 2배 가까운 수준이고, 백인(29.3퍼센트), 흑인(17.7퍼센트), 히스패닉(13퍼센트)은 물론 아시안 평균(50.2퍼센트)보다도 높다. “25세 이상 한인 53퍼센트 대졸 이상,” *미주한국일보* (2012년 5월 25일).

211) 어렸을 때 이민 온 1.5세 청소년들 상당수는 이민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여 우울증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부모들이 정신건강 이해와 정보가 부족하여 자녀들의 치료시기를 놓치고 있다. “학업 스트레스, 문화갈등 한인청소년 우울증 심화,” *미주한국일보* (2013년 9월 12일).

212) 한인들은 미국 거주기간이 길수록 자녀들이 타인종과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는 비율이 낮아졌다. “2006년 한인 의식. 소비패턴 조사,” *미주중앙일보* (2006년 10월 18일).

213) 미주 한인들은 영어를 쓰지 않고도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한인 타운을 조성한다. 1세들은 한국 지향적인 한국인으로 살아가고 있고, 반면에 2세들은 미국 지향적으로 살고 있어서 한 지붕 아래 서로 다른 문화를 추구하고 있는 특색이 있다. Paul Kang, “미주한인 청소년 신앙교육과 한인교회의 미래,” <http://blog.daum.net/kyh-jar/1777> (2010년 11월 19일 접속).

으며,²¹⁴⁾ 한국에 비하면 건국이념과 역사가 다르고, 전통적인 종교가 다르고, 통용되는 언어가 다르고, 문화와 전통이 다르고, 풍습이나 생활습관이 다르고, 교육체계가 다르고, 법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그리고 동네와 일터에서 만나는 이웃들이 다르고, 참으로 한국과는 많이 다른 나라이다. 캘리포니아의 LA처럼 한인이 많은 지역이라면 모를까 어디를 가든지 한인 1세대들은 할 수 있는 일의 분야도 많지 못하다. 투자이민처럼 경제적인 여력이 있으면 자신의 구상하는 사업도 하고,²¹⁵⁾ 기술이나 재능이 뛰어나거나 영어를 잘 한다면 일자리를 찾기가 쉬울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한인들은 한국에서의 경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단순 노동에 종사하기도 한다.

초기 한인 이민자들의 열악한 상황에 비한다면 많이 나아졌지만 그러나 일터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갈등과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는 한인들이 많아서 지역에 있는 교회나 기관들이 이들에게 도움을 제공한다. 교회가 고국을 떠나온 한인 이민자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면서 낯선 땅에서의 삶을 잘 정착하도록 도와주는 사역은 하와이 호놀룰루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인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²¹⁶⁾에서부터 이어져 온 전통이다. 미주지역 한인교회들은 복음을 증거 하는 사명뿐만 아니라 이민자들을 위한 도움센터로서의 역할도 꾸준히 수행하여 왔다. 교회들은 앞으로도 한인들에게 신앙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서 기댈 수 있는 기둥이자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2. 하나님의 임재연습이 필요한 이유

미국에서 한인교회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그리스도인의 수가 많아진다고 하여도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런 긍정적인 수치들은

214) 2010년 실시한 미국 인구센서스 통계에 따르면 미국 전체 인구는 308,745,538명이었으며, 이중 백인 72.4퍼센트, 흑인 12.6퍼센트, 아시아인 4.8퍼센트, 혼혈 2.9퍼센트, 원주민(하와이 포함) 1.1퍼센트, 기타 6.2퍼센트로 나타났다.

215)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캘리포니아에서 새로 설립된 기업들 중 45퍼센트가 이민자가 소유한 기업들이다. “이민자 소유 기업 급증,” *미주한국일보* (2013년 9월 19일).

216) 하와이 이민자 102명의 통역 겸 인솔자인 제물포내리교회 안정수, 유병규를 중심으로 1903년 11월 10일 한인감리교선교회가 세워졌다.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국민일보* (2001년 6월 1일).

의미가 없어지고 만다.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교회에 다니며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것은 큰 변화이지만 그 변화는 이전과는 달리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며 사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교회에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아가며 하나님이 부르신 뜻을 이루고자 힘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는, 혹은 매일 아침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고 그 관계를 발전시킬 수도 없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변화된 삶을 위해서는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늘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터에서 하나님의 임재연습을 통하여 영성을 유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언제나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사항이다.

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일터에서의 영성개발

하나님을 만나는 영성은 매일의 생활 속에 배어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나 소그룹(구역 목장, 다락방)에 모였을 때뿐이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 특히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일은 영성을 위한 영적인 수양이다. 일을 영적인 수양으로 알고 의도적으로 일에 임할 때 일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²¹⁷⁾ 그리스도인이 있는 일터는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일을 부여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자연스러운 확장을 위한 일환이다.²¹⁸⁾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부여하신 사명은 일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다.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연습을 통한 영성의 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은 목회자나 선교사의 사명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부여된 사명이다(마 28:19-20, 막 16:15 등). 통상 선교사라고 하면 낯설고 척박한 땅에서 위험을 무릅쓰며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떠올리는데 그것은 일종의 고정관념이다. 많은 선교사들이 그렇게 5대양 6대주로 파송되어 주

217) Banks, *일상생활속의 그리스도인*, 186.

218) Rogers, *일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29.

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에 있어서는 지금 일하고 있는 일터가 바로 선교의 사명지이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은 교단이나 교회의 이름으로 파송된 선교사들만의 의무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사명이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스스로를 일터에 파송된 사명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여러 모로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파송하였기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기회를 얻어서 입술의 언어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입술로 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신뢰할 만한 것이 되도록 일터에서 본이 되어야 한다.

이민사회라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일터에서 복음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자신의 부족함을 숨기려 하지 말아야 한다. 실수나 잘못을 했다면 하나님께 고백하여 용서받으며, 누군가가 자신이 모르는 잘못이나 약점을 지적하였다면 화내기 보다는 고맙게 생각하며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²¹⁹⁾ 일터는 그리스도인이 죄를 어떻게 고백하는지,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는지, 그리고 다른 이들을 어떻게 섬기는데 대해 본을 보이는 곳이기도 하다. 그것은 억지가 아닌 자발적이고 자연스런 본이다. 이민사회 일터에서는 한인만을 만나는 것이 아니므로 타 인종들도 포함하여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섬김과 선교의 대상이다. 하나님의 임재연습이 아니고는 이런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다.

나. 죄악의 유혹에 대한 전쟁터로서의 일터

하나님의 임재연습은 죄가 일터를 타락시키는 것²²⁰⁾을 막아주는 방패와도 같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간섭하지 않는 경향과 자유분방하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두드러진 미국 사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기도 자유로우며 좋지만, 한편으로는 각종 죄의 위험과 유혹들이 널려 있다. 충기를 휴대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어서 충기를 구하기도 쉽고, 마약을 단속한다고 하지만 구하기가 어렵지 않

219) Thomas A Kempis, *그리스도를 본받아 (The Imitation of Christ)*, 최치남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8), 87.

220) 죄가 일터를 타락시키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일터에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적 통치를 거부하게 하고, 자기중심적이 되도록 하며,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우리의 필요를 스스로 채우고자 노력하도록 만든다. Rogers, *일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80.

고, 카지노뿐 아니라 불법 사설 도박장들도 흔하게 있으며,²²¹⁾ 오염된 미디어나 음란 물에도 노출되어 있고, 낙태와 동성애, 그리고 동성결혼 부부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나쁜 요소들의 영향으로 인하여 미국 사회는 그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청소년 범죄를 비롯한 온갖 범죄와 사건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리처드 포스터(Richard Foster)가 언급한 대로 죄는 우리 삶의 내적 구조의 한 부분²²²⁾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기 위하여 어떤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신앙생활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깨어있지 않으면 문 앞에 도사리고 있던 죄가 언제든지 문지방을 넘어 들어오고 마는 것이다. 교회에서 직분(목회자, 장로, 집사, 권사 등)이나 직책(성가대장, 남전도회장, 여전도회장, 예배부장, 전도부장 등), 혹은 신앙생활의 오랜 연수가 죄를 이기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일터에서 하나님의 임재연습에 힘쓰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쉽게 세상에 빠지게 되며,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죄의 위험이나 시험의 유혹에 취약하다.²²³⁾ 그래서 인간의 타락한 본성대로 일터에서 행동하게 된다면 누구나 죄를 짓게 된다.²²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익을 남길까 하며 질(質)을 낮추거나 소비자를 속이기도 하며(가격의 속임수), 뇌물수수, 공금횡령, 허위장부 기록, 세금탈루와 같은 비윤리적, 비합법적 행동들, 그리고 직장 동료 사이에서도 거짓말, 성추행, 간음, 저속한 언어사용과 같은 부도덕한 행동들이 일터에서 나타나기가 쉽다. 하나님의 임재연습은 이런 보이는 형태의 죄뿐만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라도 악한 계획을 품었다면 회개하도록 이끌어서 그리스도인을 지켜준다. 부정과 비리가 대부분 직장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남들이 할지라도 결코 나는 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견지하며 기독교적인 윤리를 따라 행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연습이 절실히 요구된다.

221) 한인들이 몰래 모여 도박을 하는 가정집인 속칭 ‘사랑방’은 LA 한인 타운에서 공공연한 비밀이다. “한인 타운 불법 사설 도박장 실태,” *미주한국일보* (2013년 9월 18일).

222) Foster, *영적 훈련과 성장*, 20.

223) 우리가 고용되어 있는 모든 일에, 모든 직장에 나름대로의 유혹이 있다. 사단은 그것을 통해 공격하며 죄 가운데로 몰아넣으려 한다. Henry, *날마다 하나님과*, 83.

224) 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우리는 죄를 지으며,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이다. John MacArthur, *영적 성장의 열쇠 (The Keys to Spiritual Growth)*, 정길호 역 (서울: 소망, 2010), 155.

다. 이민 생활의 특수성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한국을 떠나 이곳 미국에 와서 사는 이민의 삶이 주님의 뜻이요 계획이심임을 믿으면서도 왜 이민 와서 이런 일하며 어렵게 살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여러 가지로 고민하다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하는 경우들도 있다.²²⁵⁾ 이민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어려운 상황이나 형편들은 다양하고 개인마다 다를 것이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영적으로 약해질 때도 있다. 사업으로 인하여 혹은 어려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주일임에도 예배도 드리지 못하면서 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기도하면서도 믿음의 확신이 흔들릴 때도 있고, 기쁨이 없는 상태로 교회에 가거나 신앙생활을 하기도 한다.

대부분 한인 1세들의 경우는 다민족 사회인 미국에서 원활한 의사소통 면에서는 한계를 안고 생활한다. 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나 직장이라면 덜하겠지만 일터에서 영어를 전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부담이 된다. 남가주에 거주하는 한인 104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민생활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경제적인 어려움(16퍼센트)보다도 영어 구사능력에서 오는 의사소통의 문제(48퍼센트)로 파악되었다.²²⁶⁾ 그 외에도 삶이라는 것이 그렇듯이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일터에서 하는 일이 제대로 안 되거나 잘못된 결과로 인하여 슬프거나 괴로울 때도 있다. 가정에서 부부 혹은 자녀로 인하여 불화가 있거나 해체될 것 같은 위기를 느낄 때도 있다. 살아가면서 마음으로도든 행동으로도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거나 죄를 범하기도 한다.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겠지만 이민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연습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이민의 삶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나야 할 분도 하나님이다.

225) 2006. 7. 17 - 8. 14까지 18세 이상 남가주 한인 1047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8퍼센트가 한국으로의 역이민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역이민을 고려한 주된 이유는 문화차이(32.3퍼센트) 경제문제(24퍼센트) 언어장벽(11퍼센트) 등이었다. “2006년 한인 의식. 소비패턴 조사,” *미주중앙일보* (2006년 10월 18일).

226) “2006년 한인 의식. 소비패턴 조사.”

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준비하는 일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도래하였지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표상되는 온전한 천국에 아직 이른 것은 아니다.²²⁷⁾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장차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에서의 삶을 미리 준비하며 체험하는 연습이다. 교회에서 예배드림도, 가정에서 기도드림도, 일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힘쓰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연습하는 것이며 온전한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함으로 더 이상 연습이 필요 없게 된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연습을 통하여 점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훈련이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연습은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일터에서 일할 때에도 필요하다. 물론 일터에서 영성의 삶이란 쉽지가 않다. 바쁘게 일하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렇지만 인생의 대부분을 보내게 되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임재연습을 하지 않으면서 언제든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거나, 천국의 소망으로 기쁨을 누리며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회의 땅인 미주지역에서 이민자로서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연금생활을 하거나 경제적으로 여유롭다고 해도 하나님의 임재연습이 없다면 그런 사람의 영성은 약할 수밖에 없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연습은 모이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터를 비롯하여 흩어진 교회에서도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마. 지속적인 영성을 위해

우리가 교회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며 집중하다가도 막상 일터로 나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십상이다.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 일터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는 일이 바쁘고 경쟁적이고, 성과를 위

227) George Eldon Ladd, *하나님 나라의 복음 (Scriptural Studies in the Kingdom of God)* (서울: 서로사랑, 2001), 22.

해 움직여야만 하고, 그래서 부득불한 것처럼 주장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사실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우선적이어야 할 하나님의 임재연습을 힘쓰지 않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일터에서 바쁠지라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마음의 골방 혹은 마음의 기도실²²⁸⁾을 만들어 시시때때로 그 안에 들어가는 연습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임재연습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불가피한 상황이나 여건이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이른 새벽부터 일터에 나가 일을 해야 하고, 주일임에도 교회에 나오지도 못한 채 일하면서 바쁘고 여유 없이 살아갈 때도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임재연습을 할 수 없는 일터에서의 상황이란 없다. 아무리 바쁘고 여유 없을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성경의 가르침(살전 5:16-18)대로 어떠한 상황이나 여건에서도 하나님의 만남 곧, 하나님의 임재연습에 힘쓸 때 유지된다.

바. 실현가능한 일터의 영성으로서의 하나님 임재연습

로렌스가 수도원의 일터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임재연습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좋은 모델이다. 물론 그는 여러 면에서 미주 한인 1세나 1.5세들과는 다르다.

구분	로렌스 형제	한인 1세, 1.5세
시대	과학혁명이 시작되던 17세기	최첨단 과학기술의 21세기
일터	수도원	이민사회
현장	영성적	무영성적/반영성적
성경	회귀(성직자 전용)	일반화(책, 오디오, 비디오 등)
환경	비경쟁적	경쟁적
가족	독신	대부분 결혼
종교	가톨릭	개신교

228)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예배처로 만들 수 있다. 그리하여 원할 때면 언제든지 그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은밀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연습”(윤종석 역), 44.

기타	같은 인종/언어/문화, 폐쇄사회	다양한 인종/언어/문화, 개방사회
----	-------------------	--------------------

그는 17세기 유럽의 수도원에서 살았기에 21세기 최첨단 과학기술의 미국사회처럼 복잡다단하고 경쟁적인 환경에 있지 않았다. 수도원은 속세와는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으로 생활하면서 기본적으로 수도에 힘쓰는 영성의 현장이다. 이에 비하여 오늘날 이민사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일반화되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영성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사방 주변에 가득 찬 반영성적 현장이다. 그는 결혼하지 않았으므로 혼자 사는 독신의 어려움은 있었을지라도, 가정과 자녀를 부양하는 일이나 부부나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나 갈등이나 어려움은 겪지 않았을 것이다. 로렌스 형제도 주방에서 일하는 것을 고행이라고 여기며 갈등을 느끼기도 하였고 제명당할 위기에 있었지만, 그곳이 수도원이라서 한인들의 일터에 비한다면 해고될 가능성은 낮았다. 수도원장이나 감독자들이 오늘날 사장이나 고용주가 하듯이 인정사정이 없거나 함부로 해고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기에 적합한 곳에서 일한 것은 아니다. 그는 수도원에 있었지만 성무일과에 따라 수도에 집중하는 수도사가 아니라 수도원에서 잡일을 맡았던 사람이다. 그는 수도원에 필요한 포도주를 구입하기도 하였고,²²⁹⁾ 주된 임무는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이었다. 주방은 통상 음식 준비로 시끄럽고 여러 가지 물품들이 널려 있어서 복잡하고 지저분한 장소이다.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느라 여럿이 함께 일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조용할 수 없으며, 수도원의 많은 식구들이 지정된 시간에 식사할 수 있으려면 부지런히 움직여야만 하는 힘든 일이다. 그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그릇을 씻고, 청소하고 정리하는 등 육체적인 일에 종사하였다. 주방에서 일하면서 나이가 많다고 다른 사람에게 지시하거나 일을 감독하는 위치가 아니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는 분주한 주방에서 두 사람 이상 몫의 일을 해야만 할 때도 자주 있었다.²³⁰⁾

229) 부르고뉴(Burgundy) 지방에 들어가 수도원에 필요한 물품(포도주 등)을 장만하는 일을 맡기도 하였는데, 한 쪽 다리를 절었기 때문에 자주 넘어지곤 했다. “하나님의 임재연습”(윤종석 역), 16.

로렌스 형제는 주방에서 일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는 영성을 위하여 좋은 조건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임재연습으로 영성의 삶을 살코자 했다. 그는 자신이 힘쓰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연습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밤낮으로 바쁘게 일을 할 때나 기분 전환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늘 당신 곁에 계시고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 분을 홀로 두지 마십시오. 나를 만나러 온 친구를 혼자 두는 것은 실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 곁에 오신 하나님을 소홀히 대할 수 있습니까?²³¹⁾

이러한 권면은 이민의 삶을 사는 한인들에게도 해당된다. 이민사회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연습을 힘써야만 영성이 유지된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만큼 삶이 역동적이고 일이 즐겁고 행복할 때가 없음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연습을 통하여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3. 이민사회 일터에서 적응을 통한 가치와 유익

전체 한인의 1/3 이상 거주하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2006년 미주중앙일보사와 한미경제개발연구소가 공동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한인들 대부분은 가족이민과 자녀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²³²⁾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지만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종교에 대한 질문에는 개신교 65퍼센트²³³⁾, 가톨릭교 14퍼센트, 불교 6퍼센트, 기타 및 무종교 15퍼센트 등으로 답하였다.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에 출석한다고 답하였다. 한국에서부터 교회에 다닌 신자들이 많은 편이며, 미국에 와서도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230) “하나님의 임재연습”(윤종석 역), 107.

231) “하나님의 임재연습”(오현미 역), 19.

232) “2006년 한인 의식. 소비패턴 조사,” 미주중앙일보 (2006년 10월 18일).

233) 이 비율(65퍼센트)을 미주전체 비율로 보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이를테면 필자가 휴스턴에서 사역할 때 휴스턴 지역 한인 2만 2천 명(현지 한인회 추정) 중 휴스턴 전체 개신교 등록교인은 8천 명 정도로 36퍼센트였다. 등록하지 않은 교인을 고려해도 40퍼센트 남짓할 것으로 여겨졌다.

여겨진다.

미주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민사회의 실질적인 다수를 차지하면서 한인단체들을 통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직장이나 일터에서도 인정받으면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본이 되지 못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며 부끄러움 당할 때도 많이 있다. 일터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고 책임감이 있고 남을 배려하며 공정하고 부지런히 근무하는 것은 올바른 한인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모습이다. 한인 1세와 1.5세 그리스도인들은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아가지만 한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민자로서 일터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과는 관계없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연습이다. 로렌스 형제처럼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는 거룩한 습관을 연습함으로 자기가 일하는 일터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연습은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리고 일터에서도 다르지 않다. 하나님의 임재연습을 통한 영성훈련이야말로 이민의 삶을 사는 한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일터에서 행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며 실천방안이 될 것이다.

물론 한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쁘고 다양한 이민사회의 일터에서 수도원처럼 성무일과에 따른 노동과 기도와 묵상과 독서에 전념할 수는 없다. 그것은 이상적일 뿐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로렌스 형제가 분주한 주방에서 일하면서 보여준 하나님의 임재연습을 따르고자 한다면 어렵기는 하더라도 부분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는 수도사들처럼 하루의 일과를 노동과 기도와 묵상과 성경읽기와 독서에 중점을 둔 영성훈련의 시간표를 만들 수는 없었지만 일하면서도 기도와 묵상에 힘쓰고자 하였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직장은 단지 일하는 곳이고 기도와 묵상은 교회에서 하는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다. 평신도에 비해 목회자들은 하루 종일 교회에서 기도하거나 말씀을 보며 묵상할 수 있지만 자신들은 일터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로렌스 형제는 이런 생각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으며, 주방이라는 일터에서 하는 일이 기도와 묵상과 분리되지 않고 함께 있었다. 이 점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로렌스 형제로부터 본받으며 힘써야 할 핵심부분이다.

로렌스 형제는 수도원에서 정해진 시간에 조용한 기도실에 여럿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처럼 시끄러운 주방에서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끈을 절대로 놓지 않았다. 그에게는 일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과 다르지 않았다. 주방에서 시끄러운 소음이 들리는 가운데에도, 여러 사람들이 음식준비로 분주하게 움직일 때에도, 그런 속에서도 그는 마치 기도실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일하면서도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였다.²³⁴⁾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연습은 그를 소명의 일꾼으로 이끌었으며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이 스트레스나 짐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를 가져오는 축복이 되었다. 그의 삶은 앞에서 언급한 ‘일의 신학’이 지향하는 영성의 삶 그 자체였다.

한인 그리스도인들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로렌스 형제처럼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무시로 만나며, 하나님이 그 일을 자기에게 맡겨주셨으므로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이것은 관심을 단순히 자기 일에 집중하는 것을 넘어서 그 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훈련이다.²³⁵⁾ 일터에서 일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 곧 하나님의 임재연습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들백교회 릭 워렌(Rick Warren) 목사는 하나님의 임재연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것은 하나의 기술이고 발전시킬 수 있는 습관이다. 마치 음악가들이 쉽게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 음계를 매일 연습하듯이 우리도 하루 일과 중 각기 다른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스스로 노력해서 연습해야 한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훈련과 연습을 해야 하는 것이다.²³⁶⁾

하나님의 임재연습은 한인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해당된다. 그런데 먼저는 모이는 교회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하겠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영광이 드러나며, 은혜 충만함으로 기쁨이 되어야 한다. 찬양 속에서, 기도 속에서, 말씀의 선포 속에서, 그리고 성도 간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한다. 교회에

234) Foster, *기도*, 170.

235) Henry M. Nouwen,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 (The Selfless Way of Christ)*, 편집부 역 (서울: IVP, 2004), 60.

236) Warren, *목적이 이끄는 삶*, 120.

서의 성경공부이든, 소그룹(성가대, 선교회, 구역 목장 등) 모임이든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교제를 통하여, 봉사를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도록 연습되어야 한다. 모이는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연습이 이뤄지고, 그리고 일터라는 흩어진 교회에서도 계속하여 습관이 되어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연습은 이민의 삶을 복되게 할뿐만 아니라 가치 있게 하는 것이다. 미주지역 한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연습을 힘쓴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믿으며 따르기로 결심한 그리스도인이 라면, 유진 피터슨(Eugene H. Peterson)의 언급처럼 예수님처럼 기도와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또한 의도적이어야 한다.²³⁷⁾ 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힘쓸 때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목적을 정확히 알고 그 목적에 따라 순종하는 삶, 곧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다.

237) Eugene H. Peterson, *그 길을 걸으라 (The Jesus Way)*, 양혜원 역 (서울: IVP, 2007), 49.

제 4 장

일터에서 영성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 및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거나 영성을 위하여 어느 정도로 힘쓰고 있을까? 미국성서협회가 2013년 3월 26일 발표한 ‘2013년 성서현황조사’²³⁸⁾에 의하면, 미국의 성인 66퍼센트는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는 성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75퍼센트 이상은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²³⁹⁾이 도덕적인 규율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그렇지만 정작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는 사람은 5명 중 1명(20퍼센트) 정도에 그쳤고, 1년 동안 성경을 전혀 읽지 않았다는 응답자도 17퍼센트였다. 성서협회는 미국인들이 바쁜 일상에 쫓겨 성경을 읽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18-29세의 젊은 층은 종교와 단절되어 있고 성경 읽을 시간을 거의 갖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참고는 되지만 한인들을 얼마나 포함하여 조사했는지 알 수 없어서 그대로 미주지역 한인들의 경우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국의 경우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한미준, 회장 이동원)이 2005년 1월 25일 발표한 ‘한국교회 미래 리포트’²⁴⁰⁾에 의하면, 기독교인 53퍼센트는 성경을 예배시간에만 읽었으며, 1주일에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은 평균 62분이었고, 하루 평균 기도시간은 27분으로 조사되었다. ‘영성목회를 돕는 모임’(회장 유해룡)은 2007년

238) 미국성서협회의가 바나 그룹에 의뢰하여 18세 이상 성인 208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미국의 도덕적 몰락은 성경읽기 부족이 주요원인,” 뉴스앤넷 (2013년 3월 30일).

239) 미 연방대법원은 1962년과 1963년, 주(State)에서 후원하는 기도와 학교에서의 의무적인 성경 읽기가 미국의 제1수정헌법을 위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240) 한미준이 한국 갤럽에 의뢰하여 2004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간 전국 만 18세 이상 기독교인 1000명을 개별 면접하여 조사한 결과이다. 교회와신앙(<http://www.amennews.com>)을 참조.

6월 11일 ‘한국교회 성도의 기도생활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였는데, 개인별 하루 평균 기도시간은 25분 정도로 조사되었다.²⁴¹⁾ 미주지역 한인 기독교인들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조사 자료가 없어서 제시할 수는 없지만 한국교회의 수준과 비슷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미주지역 한인교회들은 한국교회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여러 면(예배, 사역 프로그램 및 시스템 등)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주지역 한인 1세나 1.5세들의 일터는 한국과는 상이하다. 한인이 운영하는 직장이고 한인들이 많은 상황에서 일하기도 하지만, 그와는 달리 한인이 없거나 소수인 직장이나 일터에서 일하는 경우들이 오히려 많기 때문이다. 이처럼 일하는 처소와 상황이 다르므로 한국에서 직장 내 그리스도인의 활동과 미국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활동이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영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한국 내 직장에 조직된 기독 신우회의 활동과 미국 내 직장에서의 그리스도인 모임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제 1 절 일터에서 영성 활동의 현황

1. 한국 직장 내 기독 신우회(직장선교회)

개신교 선교사들에 의해 한반도에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파된 지가 이제 130년을 넘어서고 있다. 오래 전 복음을 받아들인 유럽이나 미국에 비하면 짧은 기독교의 역사이지만, 그 속에서도 한국의 기독교는 귀중한 영적인 자산과 전통들을 계속하여 쌓아가고 있다. 그 중 하나는 교회마다 어두움을 깨우며 시작하는 새벽기도²⁴²⁾이며, 미주지역 한인교회들도 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전도와 선교이다. 국내에서 전도에 힘쓸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있다. 전도사역 중 특히 하면서도 매우 긍정적인 부분은 직장 내에 조직된 기독 신우회의 활동이다.

241) 서울 및 서울근교에 있는 만 18세 이상 기독교인 1,2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이다. “기독교인들 기도시간 점점 줄어든다,” *국민일보* (2007년 6월 13일).

242) 한국의 새벽기도회는 1906년 평양 장대현교회의 길선주 목사의 도움으로 자생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본다. 양재서, *기도 이해의 난제들*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2009), 120.

기독교 신우회는 1960년대 한국의 경제성장으로 전체 인구의 1/3 이상이 직장인으로 일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상황에서 뜻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예배를 드리면서 시작되었다.²⁴³⁾ 기독교 신우회는 1980년 4월에 '직장선교²⁴⁴⁾의 활성화를 통한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 '기독교정신의 생활화를 통한 기독교 사회문화 창달', 그리고 '평신도 연합운동을 통한 교회일치'를 3대 목표 및 강령으로 하는 전국적인 조직인 '직장선교회'로 확대됨으로써 직장선교 운동의 큰 전환기를 가져왔다. 그 후 1997년 4월에 직장선교회는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한직선)로 명칭을 조정하였다.²⁴⁵⁾ 이런 과정에서 직장 내 선교활동을 강화하는 취지로 '신우회'라는 명칭을 '직장선교회'로 바꾸도록 권장하였다. 그러나 많은 직장들은 '선교회'라는 전문적 느낌의 명칭보다는 따뜻하고 친근감을 주는 '신우회'란 이름을 선호하여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직장선교회 혹은 기독교 신우회²⁴⁶⁾는 통상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그리스도인들 스스로의 필요성과 결정에 의하여 조직되지만, 직장 고용주가 노동자들의 생산성 증가와 품질 향상 등의 필요성이 반영되어 조직되는 경우들도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우회가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일치감과 모범의식을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직장에 유익을 끼쳐야지, 비기독교인들과의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종교적인 마찰이나 갈등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으로 직장에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기독교 신우회가 고용주를 위한 조직으로 활동을 해서도 안 된다.

현재 한국사회는 보편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직장엔 대부분 기독교 신우회가 조직되어 있다. 이는 비단 크리스천 기업체나 기관만이 아니라 일반 기업체, 공공기관, 학교, 병원, 군, 경찰, 심지어는 정당까지도 마찬가지이다.²⁴⁷⁾ 그것은 공동체 의식과

243) 1956년 벽산그룹이 최초로 직장인 예배를 단성사에서 개최한 이래 70년대 많은 직장에서 신우회가 조직되었다. 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홈페이지(<http://www.workmission.net>).

244) 직장선교란 그리스도인들이 주어진 직장생활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하고, 섬김을 과정으로 하여 흩어진 교회를 보다 넓게 확장하려는 교역을 말한다. 오성춘 외 11인, *기독교인의 직업과 영성*, 64.

245) 2013년 6월 기준으로 43개 지역직장선교연합회와 49개 직능직장선교연합회가 조직되어, 7,700여개 단위 직장선교회와 70여만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홈페이지(<http://www.workmission.net>).

246) 이하 본고에서는 별도 언급이 없는 한 '신우회' 혹은 '기독교 신우회'로 표기할 것이다.

모이기를 좋아하는 한국인들의 독특한 정서로 인한 것이기도 하지만,²⁴⁸⁾ 직장 내 기독교 문화를 확산시킬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교회의 복음적이고 선교적인 열정으로 인한 결과일 것이다. 기독교의 역사가 오래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전체 인구의 25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하며, 아직도 한국사회 전반에 비기독교적인 문화와 전통이 강한 편이고 그런 것들이 직장 분위기를 지배하고 있어서 기독교 신우회 조직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서도 사랑과 평등과 존중의 기독교적인 문화를 전파하고 심어야 하며, 신우회의 활동을 통하여 이 일들을 할 수 있다.

기독교 신우회는 임원들이 중심이 되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활동하지만 어떤 경우는 직장과 협력으로 활동하기도 한다.²⁴⁹⁾ 직장의 형태나 부서의 성격이 다양하고, 회원의 수와 회원들의 위치, 결속력, 참여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신우회의 활동을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활동이나 사역을 위주로 하고 있다.

첫째는 직장에서의 예배드림이다. 직장 신우회는 주 1-2회, 혹은 월 1회, 혹은 분기별 1회²⁵⁰⁾ 등 정기적으로 직장 내 일정한 장소에 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성경을 봉독하고, 찬양이나 특송을 준비하기도 하며, 가능할 경우에는 목회자를 청하여 설교를 듣는다. 어떤 신우회에서는 예배시간에 헌금 순서를 가지며 드려진 헌금은 국내전도나 해외선교 혹은 신우회의 구제사역을 위해 사용한다. 예배 후에는 다과를 나누며 교제하기도 하고, 신우회가 계획하여 추진할 활동이나 사역에 대해 협조하기도 한다.

둘째는 봉사활동이다. 직장 내에서 봉사할 수 있는 활동을 실시하기도 하고, 휴일이나 주일 오후를 택하여 직장 밖에서 봉사하기도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휴가기간

247) 이를 테면 직장/회사 신우회, 병원 신우회, 학교 신우회, 동문 신우회, 교수 신우회, 방송국(KBS/MBC 등) 신우회, 텔런트 신우회, 항공사(KAL/아시아나 등) 신우회, 경찰청 신우회, 공무원(보사부/국방부 등) 신우회, 청와대 신우회, 국회(새누리당/민주당) 신우회 등이다.

248) 방선기, *그리스도인의 일상다반사* (서울: 포이에마, 2010), 146.

249) 농협은행 서울 을지로4가 지점 신우회는 서울 중구 저소득층 500가구에 1년간 화재보험 가입증서(보험료 250만원, 총 보험금 50억원 상당)를 중구청을 통해 전달했다. “신우회, 저소득층 화재보험 가입증서 전달,” *국민일보* (2013년 7월 11일).

250) 예를 들어 아시아나항공 신우회는 항공사 근무특성상 본사 사무실 직원으로 구성된 타운신우회, 조종사로 구성된 운항신우회, 객실승무원으로 구성된 캐빈신우회, 정비사로 구성된 정비신우회로 나뉘어져 있으며, 부서별 스케줄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한 자리에 모두 모이기는 힘들지만 1년에 4번 분기별로 회원들이 모여 교제의 자리를 갖고 있다.

을 조정하여 많은 회원들이 함께 복지시설이나 불우이웃을 찾아가 필요한 도움을 제공한다. 어떤 신우회는 기독교 봉사단체들과 연계하여 활동이나 사역을 하기도 한다.

셋째는 전도활동이다. 신우회를 결성하는 주된 이유나 목적은 직장에서 회원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림과 친교, 직장 내 기독교 문화의 확산, 이웃에 대한 봉사와 구제를 통한 복음화이다. 직장에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전도활동은 신우회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이며 가시적인 목표이기도 하다.

이러한 활동들 외에도 필요하다면 신우회가 자체적으로 계획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국 직장 내 기독교 신우회는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정체성을 나타내며 직장에 기독교적인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으며, 이웃에 대한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자 힘쓰고 있다. 이런 사실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가. 쌍용건설 기독교 신우회²⁵¹⁾

1978년 조직된 쌍용건설 기독교 신우회는 십여 년 만에 50명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역동적인 사내 동아리 모임으로 성장하였다. 내적으로 팽창된 기독교 신우회는 1990년부터 외부로 눈을 돌려 자신들이 가진 자원으로 섬길 수 있는 기관을 찾았는데 연결된 곳은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시온 찬양의 집’이라는 장애아 시설이었다. 당시 ‘시온 찬양의 집’ 식구들은 외진 산골에 있는 양계장을 주거공간으로 개조하여 난방이나 환기시설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함께 기거하고 있었다. ‘시온 찬양의 집’과 결연한 쌍용건설 신우회는 IMF라는 경제적 한파에도 봉사활동을 멈추지 않았으며 지금까지도 끈끈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기독교 신우회는 사내 직급에 따라 자신들의 급여에서 일정액(평사원 최소 7,000원, 임원 2-3만원)을 월회비로 공제하고 모아진 회비를 신우회가 계획하는 사역에 사용하고 있다. 기독교 신우회는 ‘시온 찬양의 집’ 식구들이 사회를 보고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해마다 연말에는 야외 나들이를 계획하여 추진해 왔다. 기독교 신우회는 지난해 사용하고 남은 신우회 재정 전액을 ‘시온 찬양의 집’을 운영하는 이동훈 전도사의 신학교 학비로 지원했다. 요즘 기독교 신우회는 13년 섬겨온

251) 박선영, “신우회 봉사활동을 시작하려는 이들에게,” *빛과 소금* 271 (2004년 6월), 64-65.

‘시온 찬양의 집’을 위한 간절한 기도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시온 찬양의 집’이 얼마 전 매입한 200평 땅에 냉난방과 환기시설을 갖춘 집을 지어 장애우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신우회원들은 ‘건설회사에 다니면서 꼭 우리 손으로 지어주고 싶다’고 말하면서 그 일을 금년도 추진할 사업으로 결정하였다.

나. 인천광역시청 기독 신우회²⁵²⁾

인천광역시청 기독 신우회는 30년 넘게 지역의 복음화, 직장의 복음화, 인천의 성시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12시 인천시청 장미홀에서 30여명의 신우회원들이 모여 직장의 복음화와 인천의 성시화를 위해 기도의 꽃을 피운다. 기독 신우회는 일주일에 두 번, 월요일 아침 기도모임과 수요일 정기모임을 통해 각 부서 회원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고 교제를 나누며 직장과 인천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맡겨주신 일터에서 날마다 새롭게’라는 표어 아래 ‘시청의 복음화’, ‘인천의 성시화’, ‘민족의 복음화’를 목표로 직장과 지역을 섬기고 있다. 현재 신우회에서는 직장 내 직원들을 섬기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부활절에 시청 전 직원에게 부활절 계란을 선물하며 복음을 전하고, 신년을 맞이해 구청 내 환경미화원과 경비원들에게 떡을 돌리기도 했다. 신입회원에게는 부서로 찾아가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전하며 교제를 나누기도 한다.

특별히 온라인 카페를 개설하여 인천시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함께 소통하며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온라인 카페에는 지도목사의 설교말씀,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오늘의 묵상, 은혜와 지혜의 글들이 올라와 있으며, 카페에서 차 한 잔 하듯 가볍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다. 또한 시청 뿐 아니라 군·구 소식, 사업소 신우회 소식도 나눌 수 있고,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기도 나눔터와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찬양 게시판도 있어서 카페를 통한 소통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인천광역시청 기독 신우회에서는 지역의 작은 개척교회에 비정기적으로 후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정기적으로 후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노방전도와 선교사역을 통해 복음을 전할 계획도 갖고 있으며 모든 회원들이 분기별로 기도원 집회에 참석하여

252) “인천광역시청 기독신우회,” *연합기독뉴스* (2013년 1월 30일).

신앙의 성숙과 회원 간의 교제를 도모할 계획이다.

3. 미국 내 직장 그리스도인

미국은 개인의 존엄과 가치와 권리 등을 중시하는 개인주의(個人主義) 사상이 강한 나라이며, 아울러 헌법과 규정된 법에 의하여 개인을 보호하는 법치주의(法治主義) 국가이다. 미국인들은 논리적이고 공정한 것을 좋아하며,²⁵³⁾ 혈연, 지연, 학연, 인종, 성별 등으로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부당하게 대하지 못하도록 한다.²⁵⁴⁾ 직장에서도 권위보다는 상호 동료의식으로 가깝고, 기독교적인 문화와 전통이 아직도 남아 있으며, 뇌물이나 분에 넘치는 선물을 주고받지 않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사회적으로도 정직이 무엇보다 강조되며(Honesty is the best policy), 상대방에게 작은 것에도 실례를 구하며(Excuse me), 조그만 일에도 감사의 말(Thank you)을 습관처럼 잘 한다.

미국인들은 한국의 경우처럼 직장마다 기독 신우회를 조직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은 얼마든지 있다. 이를 테면 미국 군대에는 MCF(Military Christian Fellowship)²⁵⁵⁾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조직이 있으며, 대부분의 공공기관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 학교, 공항, 그리고 규모가 큰 직장에는 채플을 두고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기도하거나 향시 사용할 수 있다.

1620년 미국에 건너온 청교도들의 소망은 신정국가(神政國家)를 세우는 것이었고²⁵⁶⁾, 기독교 국가라고 일컬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랜 기간 기독교적인 문화와 전통이 유지되어 왔다. 1776년 건국 때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은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가톨릭 1명 포함)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절²⁵⁷⁾을 국경일로 공

253) 미국인들은 논리적이고 공정한 것을 좋아한다. 좋아할 뿐만 아니라 그 기초 위에서 삶을 영위한다. 논리와 공정성은 사회의 양대 산맥이다. Swidoll, *섬기는 삶은 이치로 아름답다*, 199.

254) 법적 규정과는 달리 차별적인 일들이 실제로는 자주 나타나서 논란이 되기도 한다.

255) MCF는 한국군에서는 '기독교인회'로 부르며, 군별(육, 해, 공, 해병대) 그리고 예하 제대별(군사령부-군단-사단-연대-대대)로 구성되어 있어서 현역 기독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 그리고 사병은 모두 회원이 된다. 또한 일부 예비역에서도 조직되어 있다.

256) It is a platitude to say that the hope of the Puritans who came to America was the establishment of theocracy. Niebuhr, *The Kingdom of God in America*, 45.

포하여 지키고 있고, 매년 12월 첫째 주 백악관 앞 잔디에서는 대통령과 일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셔널 크리스마스트리’(National Christmas Tree) 점등식을 91년째 계속하고 있다.²⁵⁸⁾ 화폐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IN GOD WE TRUST)을 표시하고 있고,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공립학교에서는 성경을 가르쳤으며²⁵⁹⁾ 많은 공공기관에는 십계명을 걸어놓기도 하였다.

지금도 미국인들 중 다수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으며,²⁶⁰⁾ 어떤 조사에서 “당신은 신앙인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에 미국인 10명 중 4명이 “예”라고 대답하였다. 미국 전체 인구로 볼 때 1억3천만 명이 크리스천이라는 의미인데,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토요일과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에는 일터에서 현실의 삶이라는 벽에 부딪친다.²⁶¹⁾

가. 그리스도인의 모임들

기독교적인 문화와 전통은 약하고 유교와 불교적 문화와 전통은 강한 한국의 직장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우회와 같은 기독교적인 모임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이에 비하여 미국은 건국 이래 기독교적인 사회이며 개인의 종교적 자유로 인하여 직장 내에 기독교 신우회와 같은 모임을 구성하거나 종교성이 강한 활동을 하지 않는 경향이 많았다. 물론 미국에도 한국의 신우회와 같은 모임은 아니더라도 일터에서의 삶

257) 미국 추수감사절은 1621년 플리머스 정착지에서 미국 이주자들이 인디언을 초대하여 1주일간 지킨 것이 시작이다. 1789년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국가적인 추수감사절을 제정했으나 3대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이 구왕정시대의 악습이라며 폐지하였고, 1863년 16대 링컨 대통령이 추수감사절(11월 넷째주 목요일)을 제정, 공포하여 매년 지키고 있다.

258) 8.5m 푸른 소나무가 흰 빛으로 장식되고 노란별이 맨 위에 달린다.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은 1923년 캘빈 쿨리지 당시 대통령이 시작한 이래 미국의 전통이 되었다.

259) 미국에서 모든 사람이 성경 이야기를 알고 기독교의 핵심을 이해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 때는 적어도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기는 했다. 그 당시 문화의 바탕은 기독교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의 베이비 붐 세대 이후 기독교 문화는 일반 문화의 흐름에서 뒤쳐졌다. Richard Peace, *영혼을 살리는 대화 (Holy Conversation)*, 심연희 역 (서울: 예수전도단, 2009), 60.

260) 바나 그룹에서 여러 해 동안 43,000여 명을 면접하여 분석한 결과 미국 성인 70퍼센트 이상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미국, 점점 더 탈기독교화 되고 있다,” *크리스찬타임스* (2013년 4월 24일).

261) Maxwell, Graves, and Addington, *크리스천이 직장에서 성공하는 법*, 15.

을 겨냥한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의 모임들은 오래 전부터 많이 있어 왔다. 세계적 리더십 권위자인 존 맥스웰(John Maxwell)은 자기가 사는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임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성경공부를 위한 많은 공식적인 모임들
- 매주 직장에서 정기적으로 만나는 비공식적 소그룹들
- 월마트 점원의 금요일 아침 성경공부 모임
- 젊은 직장인을 위한 수요일 아침 공부
- 직장인을 위한 대학생 선교회
- 종업원을 위한 성경공부와 기도회 모임을 후원하는 24개 기업들
- 천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리더십 심포지엄
- 교회가 후원하는 24개 성경공부 모임
- 아칸소주 건축인들의 모임
- 기독교 경영인 오찬 모임
- 노스 스타(North Star) 금요일오찬 모임
- 많은 기업들의 사목
- 비즈니스 윤리센터
- 아칸소주 경영대학원 출신의 젊은 비즈니스 리더 모임²⁶²⁾

미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주마다 지역마다 종류나 형태나 성격이 다를 수 있다. 1930년 시카고에서 시작된 기독교실업인회(CBMC : Christian Businessmen's Committee)의 경우는 현재 한국²⁶³⁾ 등 94개국에 조직되어 있어서 나라별로 모인다. 이제 미국의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들에 의한 '일터 변화시키기 운동'을 비롯하여 한국의 직장 선교회와 유사한 모임과 신앙운동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262) Maxwell, Graves, and Addington, *크리스천이 직장에서 성공하는 법*, 327.

263) 1952년에 시작된 한국 기독교실업인회(CBMC)는 현재 441개 지회(국내 288개, 해외 153개)에서 7,50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미국 다음으로 규모가 크다. "한국기독교실업인회, 정기총회 및 리더십 컨퍼런스 개최," *크리스천투데이* (2013년 1월 22일).

나. 직장 내 기독교인 모임 및 신앙운동

미국은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을 중심으로 실시하던 이민정책에서 1950년대 초부터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포함하여 전 세계로 문호가 확대되면서 비기독교 국가 출신의 이민자들이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유입되어 왔다. 비기독교인의 증가는 이제 더 이상 청교도들이 지향했던 미국의 모습에서 점점 벗어나게 만들었다. 일터에서도 종전의 기독교적인 색채들이 옅어지고 있다. 즉 기독교적인 문화와 전통들이 위협받으며 어떤 것들은 거의 사라지다시피 되고 있다. 이를 테면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질병통제본부에서는 예전에 ‘크리스마스 파티’(Christmas Party)라고 하던 표현이 ‘홀리데이 파티’(Holiday Party)라고 바뀌었고, 몇 년 후 ‘홀리데이’(Holiday)라는 말도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를 생각나게 해준다는 이유로 아예 없어지고 ‘눈송이 축제’(Snowflake Festival)로 부르도록 하였다.²⁶⁴⁾

이런 상황에서 엔지 트레이시는 그리스도인들끼리 직장에서 모임의 기회를 마련하자는 생각으로 조찬기도회와 점심시간을 이용해 ‘기독교인 모임’을 계획하였다. 회사에서 이 모임을 승인한다는 공식발표가 있는 지 하루도 못되어 200명 이상 전화와 e-mail을 통해 동참을 원하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책상에 성경책을 놔둘 수 있고, 점심시간에 회의실에서 성경공부 할 수 있느냐고 묻기도 하였는데, 엔지는 그 동안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점심시간에 지하실에서 성경을 읽었던 직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오늘날 ‘기독교인 모임’은 1개 중앙위원회와 8개 실행부서 및 여러 명의 진행자와 400명이 넘는 회원을 거느린 조직으로 성장했고, 미국 내 질병통제본부 지부마다 성경공부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²⁶⁵⁾

1990년대 후반부터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일터 변화시키기 운동’으로 불리는 직장 내 신앙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99년 11월자 *비즈니스 위크(Business Week)*의 보도에 의하면 5년 전만 해도 직장 내에서 신앙운동과 관련된 모임이 단 하나뿐이었지만 지금은 수백 개에 이르며,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 직장 내 기도모임과 성경공부 모임이 10,000개를 웃돌고 있다는 사실이다.²⁶⁶⁾ 포춘

264) Hilman, *일터사역*, 104.

265) Hilman, *일터사역*, 105.

(Fortune)도 직장에서 일과 신앙을 구별했던 기존의 종교적 통념을 깨뜨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자발적인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면서 미국의 기업문화가 크게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2001년 7월호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이들 그리스도인들은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채 일터에서 자발적으로 모임을 만들어 기도하며 성경을 공부해 왔다. 하지만 이제 이들은 좀 더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고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어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하나님과 비즈니스를 연관 지으려는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서 이곳저곳에서 믿음의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신앙은 사적인 문제라는 미국의 오랜 통념을 거부하며 비즈니스를 순수하지 못한 활동으로 폄하하는 종교인들에게 도전한다. 이들은 종교는 필연적으로 분열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사업가들과도 견해를 달리한다.²⁶⁷⁾

미국의 주요 언론들도 이러한 일터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앙운동을 보도했으며,²⁶⁸⁾ 2004년 10월 31일자 *New York Times*는 ‘사무실 책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동행’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는데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그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만 신앙을 행하고 주중에는 신앙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왔다. 그 결과 직장 내에 도덕불감증이 나타나 남을 짓밟고서라도 경력을 쌓으면 된다는 경쟁주의, 무기력한 일상 업무의 반복, 사회와 환경과 동료 인간의 이익을 도외시킨 채 오직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정신이 판을 치게 되었다.²⁶⁹⁾

미국 내에서 ‘일터 변화시키기 운동’ 곧, 직장 내 그리스도인의 모임 및 신앙운동에 관해 관심을 기울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미국 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문을 나서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

266) Michelle Conlin, *Religion in the Workplace*, Business Week, November, 1999; Hilman, *일터사역*, 105, 재인용.

267) Marc Gunther, *God and Business*, Fortune, July 2001, 59; Hilman, *일터사역*, 106, 재인용.

268) 뉴욕 타임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보스턴 글로브, 애틀랜타 저널 등의 신문들과 CNN, CBS, NPR, CNBC 등의 방송에서도 보도되었으며, 특히 CNBC는 2005년 3월 31일 직장 내의 신앙운동에 관한 내용을 1시간에 걸쳐 방영하였다. Hilman, *일터사역*, 107.

269) Russell Shorto, *With God at Our Desks*, New York Times Magazine, October 31, 2004, 42; Hilman, *일터사역*, 106, 재인용.

이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결국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자신의 일터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직장생활에 접목시키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²⁷⁰⁾ 몇 가지 사례를 보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002년 스티브 하일랜드가 ‘코카콜라 기독교인 모임’을 조직하고 본사에서 첫 모임을 가졌는데 275명이 참석하였다. 모임의 취지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설립해 서로를 지원하는 한편, 코카콜라 회사의 가치관과 목적을 널리 진작시키고 신앙생활과 직장생활을 접목함으로써 균형을 이루는 것”이었다. 이들은 매주 기도 모임과 성경공부 모임을 갖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줌으로써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고 있다. 자메이카가 허리케인 피해를 입었을 때는 90박스가 넘는 의류를 모아 보냈으며, 물품을 보내는데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했다.²⁷¹⁾ 1996년 콘티넨탈 항공사(Continental Airlines)에서는 불과 두 사람이 점심시간에 기도모임을 갖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회원수가 450명을 넘어섰다. 2003년 ‘도요타 기독교인 모임’이 켄터키 공장에서 결성되었고, 인텔(Intel), 아메리칸 항공사(American Airlines),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exas Instrument), AOL(American Online), 시어스(Sears) 백화점 등에서도 유사한 모임이 결성되었다. 이 중 ‘시어스 기독교인 모임’의 경우는 자체 성가대를 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회사에서 경비를 지원받아 찬양 CD를 제작하기도 했다.

이처럼 미국의 일터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신앙운동과 모임에서 볼 수 있는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직장 내 그리스도인의 결속력이 교회에서보다 더욱 단단하다는 것이며, 직장 내 그리스도인들은 교파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오로지 일터에서 믿음을 실천한다는 공통된 명제를 추구하고 있다.²⁷²⁾

270) Hilman, *일터사역*, 108.

271) Hilman, *일터사역*, 109.

272) Hilman, *일터사역*, 110.

제 2 절 문제점 및 발전방향

1. 한국의 직장 내 기독교 신우회

기독교 신우회는 주일이나 수요일 저녁에 모이는 지역교회들과는 달리 평일에 직장에서 주로 평신도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모임이다. 기독교 신우회는 선교적 관심이 크고, 보냄 받은 자의 삶을 강조하며, 각자의 문화와 취미를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로서, 이머징 처치(Emerging Church)에서 볼 수 있는 면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있어서 교회의 새로운 형태이기도 하다. 물론 기독교 신우회는 지역교회와는 판이하게 다른 조직이고 다른 특성을 가진다. 지역교회에 비해서 신우회의 관심은 건물에 있지 않고 어떻게 조직을 활성화하느냐이다. 왜냐하면 건물은 직장에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지만 조직을 잘 갖추지 않고서는 활동이 어렵기 때문이다. 기독교 신우회의 시작은 직장 선교에 뜻이 있는 몇 명이 나서서 같은 직장 내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지를 찾는 것이며, 그들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기독교 신우회를 조직하고 신우회를 이끌어 갈 임원들을 선출한다. 신우회장과 임원들이 열정적으로 봉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직장에서 신우회의 영성은 소홀해 지기 쉬운 문제점이 있다. 회원 개인에 대한 영적 훈련²⁷³⁾은 회원들이 등록하여 섬기는 지역교회가 기본적으로 담당하며, 신우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다. 회원이 되는 것은 강제나 의무가 아니므로 가입하는 그리스도인에 따라서 신우회의 규모는 몇 명에서부터 몇 십 명,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직장 내에 목회자(사목)가 있어서 신우회에 대한 영적인 지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 직장들은 그렇지 못하다. 신우회가 회원들에게 영적 훈련을 위하여 외부에서 목회자를 초청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 국한되며, 많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기독교 신우회는 지역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분야보다는 신우회로서 소속된 직장에서 필요한 나름대로의 사역이나 활동을 찾아내야 한다.

273)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확실한 도움이 될 영적 훈련으로는 기도, 성경공부, 예배, 자선, 봉사, 교제, 전도 등이다. Dennis & Barbara Rainey,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 만들기 (Growing A Spirituality Strong Family)*, 김창동 역 (서울: 디모데, 2005), 17-18.

한국의 직장 내 기독교 신우회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들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노력이 요구된다.

가. 직장에서의 중보기도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딤후 2:1-2)고 명하였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상급자, 동료, 하급자)이 중보기도의 대상이며,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신우회원들이 자기가 속한 직장에서 일터를 사랑하며 기도하고 있고, 특별히 불신자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 책임을 감당한다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충실한 일꾼들인 셈이다.

나.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섬김 사역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눅 10:29-37)에서 보듯이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이웃임을 증명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일터에서나 어디서나 이웃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불편한 순간에도 용납해야 하는 존재이다.²⁷⁴⁾ 신우회가 직장에서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역시 사역²⁷⁵⁾이므로 신우회는 섬김의 활동으로 자기 직장 안에 있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해야 한다. 육체적, 지적, 정서적인 온갖 형태의 가난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주변 어디에나 있기 마련이다.²⁷⁶⁾ 같은 직장 안에서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자녀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인간관계 등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푸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그런 섬김을 감당하면서 외부로의 섬김, 이를테면 다른 직장과 다른 지역 혹은 선교사를 돕는 것

274) Stevens, *현대인을 위한 생활영성*, 18.

275) Stevens, *현대인을 위한 생활영성*, 199.

276) Henry J. Nouwen, *영성에의 길 (Finding My Way Home)*, 김명희 역 (서울: IVP, 2004), 39.

과 같은 사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신뢰 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복음전파

직장은 하나님의 선교지이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직장은 전도의 현장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복음 전하는 은사가 있든지 없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²⁷⁷⁾ 신우회가 활동한다고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신우회의 존재적 의미는 상실된다. 직장에서의 전도는 일을 통한 신뢰에서 이뤄지는 것이므로 그리스도인은 직장에서 신뢰 얻는 것이 기본이고 우선이다. 어떤 신우회원은 직장에서 일은 적당히 하면서 전도지 돌리는데 열심인데 먼저 일에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²⁷⁸⁾ 하나님이 자신을 일터로 보내시고 그 일을 맡기셨으므로 전도지를 돌리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직장에서 본업을 충실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며 전도이다. 그러므로 직장에서 일은 절대로 부업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어떤 신우회는 모여서 예배드린 후 거리로 나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며 전도한다. 전도를 위해 힘쓰는 것은 좋지만 직장 신우회는 먼저 자기 직장 안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집중하여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자 힘쓰는 것이 우선이다.

라. 잘못된 관행 개선 및 기독교 문화의 확산

직장은 부정과 부조리와 불의 등 사회에서 야기되는 모든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다. 신우회는 하나님이 보내신 일터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지는 잘못된 전통이나 문화를 기독교적으로 바꾸고자 힘써야 한다. 이를 테면 흡연, 음주, 회식이나 모임에 관하여 잘못된 관행을 개선시키며, 정직과 성실한 근무 분위기, 친절과 겸손과 유순한 말하기, 남을 배려하기, 다른 사람에 대해 비판보다는 칭찬하기, 뇌물 안 주고

277) Peter Wagner, *성령의 은사와 교회성장 (Your Spiritual Gifts Can Help Your Church Grow)*, 권달천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2), 192.

278) 직장 전도는 삶의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기에 우선 일과 삶에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 방선기, *그리스도인의 일상다반사*, 145.

안 받기 등 성경에서 가르치는 일터의 삶을 신우회원들이 직장에서 행동으로 실천하며 보여줌으로써 직장의 문화를 개선시키는데 밑알이 되는 것이다. 신우회는 직장 안에서 사회문제를 쟁점화 하여 고용주와 대립하며 기업을 도산시키기도 했던 도시산업선교회와 같은 역할이 아니라, 기독교 문화를 일터에서 확산시켜 기업을 바르게 세워 나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

마.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연습을 실천

앞에서 언급한 네 가지 사항들은 자신의 의지나 결단만으로는 지속적으로 실행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신우회원들은 자신의 한계를 날마다 고백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임재연습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국교회의 새벽기도가 뜨겁고, 교회에 그렇게 자주 모이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소금과 빛으로서 얼마나 역할을 하고 있을까? 오히려 반대되는 경우들도 많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연습이 새벽기도와 교회에 모이는 그 시간에만 있고 일터에서는 계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직장 내 신우회도 모여서 예배드리고 봉사활동 때만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연습이 없다면 마찬가지가 되고 만다.

신우회가 함께 하는 부분(예배, 봉사활동, 전도 등)들을 중요시하면서 직장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기도, 묵상, 성경 읽기, 섬김 등)에 대한 강조이다. 신우회가 가장 힘써야 할 것은 로렌스 형제처럼 개인적인 영성의 삶, 곧 일터에서 하나님의 임재연습을 힘쓰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연습이 이뤄지는 속에서 신우회의 제반 활동이나 사역이 시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직장 내 신우회가 마치 그리스도인끼리 모이는 동호회나 동아리 수준에 머물게 될 것이며, 매우 형식적인 모임으로 변모될 우려가 있다. 어느 날을 정해서 직장에서 예배드리고, 몇 시간 봉사나 구제활동을 하는 정도로 그치는 신우회라면, 그것은 신우회 회원들의 정기적인 모임이고 자기만족을 위한 활동에 그치고 마는 것이다.

일터에서 하나님의 임재연습은 필수이기 때문에 직장 내 모든 신우회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연습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신우회의 모임이나 사역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이 먼저 일터에서 하나님의 임재연습에 힘쓰라는 것이다. 일터에

서 하나님을 만나며 영성의 삶을 사는 가운데 신우회의 활발한 사역이 이뤄지는 것이 모델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연습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제대로 가르쳐 줘야 하며, 교인들이 일터에서든 가정에서든 하나님의 임재연습을 실천하도록 이끌며 독려하는 목회가 되어야 한다.

2. 미주 이민사회의 한인 그리스도인

미국에 사는 한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일하는 직장에서 한국의 경우처럼 신우회를 조직할 필요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신앙은 개인적이라는 인식이 강한 미국에서는 직장에서 한국의 직장 신우회처럼 자신의 신앙을 적극적으로 내세우거나 조직적인 활동을 한다면 공사(公私)를 구분치 못하는 이례적인 활동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연습은 이민사회의 일터에서는 언제나 필요하다. 하나님의 임재연습, 곧 경건훈련을 통하여 일터에서 일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이 강화되고 삶의 자세와 태도가 변화된다. 오랫동안 한국사회에서 익숙했던 비기독교적 사고나 잘못된 행동을 보였다면 하나님의 임재연습을 통하여 바꾸어 질 수 있다. 기독교적인 문화와 전통을 받아드리며 행동한다면 일터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질 것이다. 일터에서 하나님의 임재연습을 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정반대의 모습으로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기가 십상이다.

이민사회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듯이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연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일터에서 하나님의 임재연습은 모여 예배를 드리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것만이 아니다. 꾸준히 남이 보던 안 보던 오직 주님만이 보고 계신다는 인식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직장에서 임원(사장, 부사장, 이사 등)이던 말단 사원이던 하나님의 임재연습은 다르지가 않다. 자기가 무엇을 하거나 어디에 있거나 늘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다. 일터에서 하나님의 임재연습이 없다면 누구도 영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없다. 새벽기도 하거나 예배드릴 때는 죄를 뉘우치고 마음을 새롭게 다지며 그럴 지라도 그 자리를 떠나면 죄의 유혹이나 위협이 곁에 늘 있다. 새벽기도나 주일예배 때의 영성이 일터에서 지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하나님의 임재연습을 일터에서

힘쓰는 수밖에 없다. 그럴 때 하나님을 떠난 생각이나 잘못에서 돌이킬 수 있게 된다.

미국에서는 한국 기업이나 한인이 운영하는 직장이라도 신우회가 없다. 그렇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하도록 힘써야 한다. 그렇지 못하고 비기독교적인 사고나 행동을 보인다면 이상하게 된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자신이 주인이라고 직원들에게 함부로 하대(下待)하는 경우들이 있다. 불법체류자를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최저임금보다도 적게 주거나, 임금을 체불하거나,²⁷⁹⁾ 일을 잘하지 못한다고 욕하며 폭행하거나, 심지어는 이민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리스도인이 세운 기업, 그리고 일터는 언제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인은 단지 청지기에 불과하므로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모르고 맘대로 한다면 언젠가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지 그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그러나 기업을 운영하던, 그곳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임재연습을 통하여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행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다.

미국은 아시아인들을 비롯한 비기독교 국가 이민자들이 계속 늘어나면서²⁸⁰⁾ 17세기 신앙을 찾아 신대륙으로 이주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유럽 청교도들의 신앙유산은 날마다 도전받고 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민자들은 미국 사회의 기독교적인 문화와 전통을 받아드리려 하지 않고 자기들의 익숙한 비기독교적인 것들을 고수함으로써 상충을 일으키고 있다. 공립학교에 걸려있던 예수님의 초상화가 반기독교 법률단체와 무신론자 단체의 소송으로 내려지게 되고 거액의 벌금을 받기도 하였다.²⁸¹⁾ 2013년 6월 26일 연방대법원은 “결혼은 이성 간 결합이라고 규정한 연방

279) 시카고 일리노이대학의 ‘불법체류 외국인: 임금, 근로환경과 경제기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체류자들은 미국의 경제발전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으나 불법체류신분 때문에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불법체류자 임금착취 심각,” *미주한국일보* (2002년 2월 12일).

280) 아시아계 이민자가 미국 이민자 인구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퓨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신규 이민자 중 아시아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9퍼센트, 2004년 23퍼센트, 2008년 33퍼센트, 2010년 36퍼센트 등으로 꾸준히 높아졌다. “아시아인 신규이민 쇄도,” *미주한국일보* (2013년 9월 19일).

281) 오하이오 교육국 학교들은 명예의 전당에 역사적 인물 중 하나로 예수의 초상화를 1947년부터 전시하였는데, 반기독교 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과 ‘종교로부터의자유재단’이 연합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오하이오 지방법원은 예수 초상화를 게시하는 일은 특정종교를 전파 옹호하는 것으로 미국의 종교법에 부적절하며, 개인의 종교적 양심을 거스르는 것이므로 초상화를 모두 철거하고 소송비용으로 95,000 달러를 지불하도록 했다. “공립학교에 예수님 초상화

결혼법이 동성결혼 부부에 대해 세금, 보건, 주택 관련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동성결혼 부부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규정한 연방결혼보호법(DOMA)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하였고, 동성결혼을 막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법조항도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²⁸²⁾

이는 성적 소수자(동성애자)도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결정 취지를 설명했지만 미국 사회의 변화²⁸³⁾을 반영하는 획기적인 판결로서 기독교를 건국이념으로 삼는 미국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나라로 변모했음을 의미한다. 결혼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은 크게 위협 받고 있으며, 유타주 연방법원은 2013년 12월 13일 일부다처제를 금지하고 있는 주법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판결²⁸⁴⁾을 내렸다. 오랫동안 지켜져 온 기독교적인 전통들이 비기독교적인 것들을 추방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미국인 다수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점점 탈기독교화²⁸⁵⁾ 되고 있고,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미국에서 어떤 사람들은 불교와 도교나 힌두교 같은 새로운 개념의 종교를 실험해보고 싶어하고,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로서 예수의 배타성 같은 정통 교리를 거부하며, 혼인서약에의 충실 등 전통적 도덕 가치를 가볍게 여기고 있다.²⁸⁶⁾

이런 미국의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한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일터에서 영성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한인들

내려라, 벌금 9만5천 달러," *미주기독일보* (2013년 10월 7일).

282)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미국 전체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나라가 된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동성결혼이 헌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갖고 있는지, 모든 주정부가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기독교 국가가 꺼안은 동성결혼," *경향신문* (2013년 6월 27일).

283) 연방대법원의 판결발표 직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 나라 법은 국민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근본적 진리를 따르고 있다"며 "모든 미국 국민이 동등하게 여겨질 때 우리는 더 자유로울 것"이라고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기독교 국가가 꺼안은 동성결혼."

284) 법적 결혼은 1명과 하지만 성관계 맺는 아내를 여럿 두는 것은 사생활로서 용인해야 한다. "위협받는 결혼...동성결혼 이어 일부다처제도 인권," *미주기독일보* (2013년 12월 6일).

285) 바나 그룹이 미국 성인 43,000명에 대하여 15개 항목으로 탈기독교 지수를 측정하였는데, 2012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18퍼센트, 교회에 한 번도 나가지 않는 사람이 33퍼센트 등으로 나타났다. "미국, 점점 더 탈기독교화 되고 있다," *크리스찬타임스* (2013년 4월 24일).

286) Sittser, *하나님의 뜻*, 71.

은 우상숭배가 아닌 한 우리 한민족의 좋은 문화와 전통을 미국에서도 이어가면서 아울러 미국의 기독교적인 문화와 전통들을 잘 알고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이다. 미주지역 한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우수한 민족으로 살아가려면 교회에서건, 가정에서건, 일터에서건 하나님의 임재연습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것이 절실하다고 본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연습이다.

제 5 장

이민사회 일터에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와서 살고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분의 계획이심을 믿는다. 이민자로서 여러 면에서 쉽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과의 만남과 교제를 부지런히 힘쓰며 떠나지 않을 때 삶이 즐겁고 복되며 경건하게 될 것이다.²⁸⁷⁾ 하나님을 만나며 교제하는 하나님의 임재연습은 그리스도인의 일상 속에서 매일의 훈련을 필요로 한다.

미주지역 이민자로서 가정과 교회를 제외하고 삶의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연습은 매우 절실하고도 중요하다. 어떻게 이민사회 일터에서 하나님의 임재연습을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방안과 목회자가 교인들에게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가를 제시한다.

제 1 절 이민사회의 일터

1. 이민사회 일터에 대한 이해

미국은 한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민자들에게는 아직도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이루도록 기회가 주어지는 나라이다. 한인 이민자들에게 일터는 미국의 다양한 문화를 접하며 나누는 공간이며, 자신의 꿈이나 비전을 기대하며 선의의 경쟁 속에서 서로 도우며 협력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일터는 한인 이민자들에게

287) Matthew Henry, *날마다 하나님과 (Directions for Daily Communion with God)*, 김순희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3), 157.

기쁨과 보람과 행복을 가져다주기도 하지만 아픔이나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

직종과 일하는 분야가 다양하여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한인들은 일터에서 기본적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으며 바쁘다. 살기 좋은 나라로 세계인들이 선호하는 미국이지만 일하며 살아갈 때는 누구에게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스트레스는 있다. 그런데 최근 한 통계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40퍼센트의 직장인들은 직장 내 스트레스로 수면장애를 겪고 있다고 알려졌다.²⁸⁸⁾ 한인들은 인구 비율상 64퍼센트를 차지하는 백인들, 12.5퍼센트의 히스패닉, 12퍼센트의 흑인들, 그 외 아시안 및 혼혈 등 다양한 인종들 속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데, 한국에서와는 다른 이질적인 환경과 문화와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있어서 일터에서 받는 각종 스트레스는 더 많을지도 모른다.

전문직에 종사하며 안정적인 위치에 있거나 사업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여유롭고 삶이 안정되어 보이는 한인 1세와 1.5세들도 있지만, 그러나 힘들어 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하루 시간의 1/3 이상을 일터에서 지내고 집에 돌아오면 피곤함 때문에도 가족 간의 모임이나 대화가 거의 없는 편이 되기가 쉽다. 실제로 미주지역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LA 지역의 경우 각 상담기관 조사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우울증이나 불안 강박증, 마약중독, 외로움 등을 호소하며 자살 충동에 고통 받는 한인들이 크게 늘어났고, 정신건강 상담 핫라인을 이용하는 한인들의 숫자가 갈수록 늘어 비영어권에서는 스페니시 사용자(히스패닉)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LA 카운티 정신건강국(DMH)에서는 파악하고 있다.²⁸⁹⁾

한인 2세, 3세를 포함하여 200만이 넘는 한인들이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특히 이민자로 살아가는 한인 1세와 1.5세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일터는,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고 미국의 문화를 접하며 다양한 인종들과 경쟁하며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자 하는 측면들을 넘어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보내셨다는 특별한 측면이 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일터를 허락하시며 보내신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주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일터를 소중히 여겨야 하며, 예수님이 일상의 일터에서 집중적으로 사역하셨듯이²⁹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터에서 일에

288) “직장 내 스트레스, 지체롭게 벗어던지라.” *미주중앙일보* (2013년 7월 13일).

289) “힐링 필요한 이민사회,” *미주중앙일보* (2014년 2월 13일).

집중하면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 바울과 아굴라/브리스길라 부부도 고국²⁹¹⁾을 떠나 고린도에서 생계를 위해 천막 짓는 일에 종사하였지만(행 18:3) 그들의 목표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일터에서 일해야 하는가를 여러 곳에서 설교하였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골 3:22).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모든 인간은 동등하지만 직장이나 일터에서 형성된 상하 관계에서는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른 도리라고 가르쳤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창 24장)은 오직 주인을 경외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한 사례이지만, 엘리사의 사환께하시느 눈가림만 하고 주인의 결정에 불순종한 대표적인 사례(왕하 5:20-27)이다.

미주지역 한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직업이고, 어떤 직장이고, 어떤 상급자나 동료나 하급자와 일하고 있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하는 일이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지 마음을 다하여 힘쓰는 것이다. 한인 1세들의 경우처럼 영어에 대한 부담감이 늘 있기도 하고, 때로는 지식이나 경험적으로 부족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일터에서 하는 일이 보다 거룩하게 되며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민사회 일터에서는 한인뿐만 아니라 여러 인종을 만나게 되지만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보다는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그들을 평가한다. 십자가 목걸이를 하거나 혹은 성경을 사무실에 두거나 하는 외형적인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일터에서 자신의 성실함과 정직함과 근면함, 일에 대한 능력, 성과를 통한 헌신과 기여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고 일터에서 오히려 태만함, 부주의, 오만함, 정직하지 못함, 탐욕, 이기심, 불평불만 등

290) 신약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신 횟수가 132회인데, 그 중 10번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일상의 일터에서 이루어졌고, 52개의 비유 가운데 45개가 일과 관련된 내용을 소재로 삼고 있다. Hilman, *일터사역*, 22.

291) 바울은 다소(Tarsus) 출신이고, 브리스길라는 로마, 아굴라는 본도(Pontus) 출신이다.

을 보이게 된다면 ‘기독교는 자기들만 위하는 종교이고 그리스도인은 말뿐이다’라는 잘못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 말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체 하면서 행동이나 생활로는 하나님을 부인한다면 그것은 무신론자요 이단이다.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하여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 누구나 들어오도록 만들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복음의 문을 오히려 닫아버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한인 그리스도인들은 청교도의 신앙적 전통과 유산이 사라지며 점점 탈기독교적인 사회로 변화되고 있는 안타까운 미국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자신의 일터가 주님을 드러내며 전하는 선교지로 삼아야 한다. 스티븐스는 “일터는 현재까지도 가장 외면당하고 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전략적인 선교지이다”²⁹²⁾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성직자들(목사, 선교사 등) 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일터에서 하는 일 자체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터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소명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함께 일하는 일터에서 한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인종들 중에 예수님을 모르거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기도하며 힘쓰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평일에는 보내심을 받은 일터에서 일을 통하여 소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역자들이다.²⁹³⁾ 루터는 일요일 저녁에 교회문을 걸어 잠그며 다음 주일까지는 교회에 오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²⁹⁴⁾ 루터가 이렇게까지 말했다면 지나친 면이 있어 보이지만 한 가지 중요한 강조점은 분명히 담고 있다. 그것은 주일에 예배드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역은 바로 세상으로 나가서 행해진다는 사실이다. 주님이 세우신 이 땅의 교회는 사람으로 비유하면 몸의 심장과도 같아서 예배로 모이고 보내고, 성경공부나 제자훈련으로 모이고 보내고, 새벽기도로 모이고 흠어지고 하는 영적 리듬이 활발하게 계속 이뤄져야 한다. 주일예배 후 월요일 아침에, 그리고 새벽기도 후 하루의 나머지 시간에 교회는 예배당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가서 일하고 있는 세상의 일터에 있다.

292) “일터는 가장 전략적 선교지,” *크리스천투데이* (2006년 8월 23일).

293) Siang-Yang Tan, *섬김 (Full Service)*, 조계광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7), 230.

294) Guinness, *소명*, 256.

2. 일터의 특성

가. 영혼의 격전지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과 날마다 싸우고 있다(엡 6:10-18).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싸움은 그리스도가 영광 중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²⁹⁵⁾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이미 영적으로 힘을 잃었기 때문이다. 영적 전투가 가장 격렬하게 일어나는 곳이 일터이다. 일터는 마귀가 이미 세력을 포진해 놓은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일터는 '영혼의 격전지'와도 같다. 이것은 로렌스 형제의 수도원에 있는 일터와 비교할 때는 크게 다른 점이기도 하다. 일터에서 그저 일에 파묻혀 하루가 어떻게 지나는지도 모를 정도로 움직인다면 영성은 약해지고 죄가 침투하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 속에 묻혀버린다.²⁹⁶⁾ 주일에 교회 와서는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집중하였는데, 주중에 일터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이 일터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신앙의 끈을 놓아버린 채로 자칫 방심하게 된다면 마음의 열쇠를 자신도 모르게 사탄에게 갖다 바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각자가 양날 가진 날카로운 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비유할 수 있다.²⁹⁷⁾ 양날 중 한 쪽은 소명(call)이라는 믿음의 날이고 다른 쪽은 일(work)이라는 날이다. 그리스도인은 일터에서 양날 가진 검을 제대로 사용해야지 그렇지 않고 어느 한쪽 날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일터에 도착하자마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명을 생각하지 않고 그 날 해야 할 일, 그리고 달성해야 할 목표만을 생각하며 움직인다면 일의 성과는 거들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롬

295) Mike Flynn & Doug Gregg, *내적 치유와 영적 성숙 (Inner Healing)*, 오정현 역 (서울: IVP, 2008), 221.

296) 그리스도인들은 사탄, 정욕, 세상이란 세 가지 거대한 적들에 둘러싸여 공격과 시험을 당하고 있다. 여기에 대항하여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불가능할 것이다. 김현웅, *영성신학과 훈련* (전주: 전주대학교출판부, 2003), 87.

297) Maxwell, Graves, and Addington, *크리스천이 직장에서 성공하는 법*, 24.

7:5). 이 점은 일터에서의 영성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가 하는 실질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일터에서 일의 목표를 달성하여 성공했다라도 영적으로 실패했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 되지 못한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을 떠난 성공이란 의미가 없으며 가치를 상실한다. 그런 성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이 일터에서 행하는 일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수도 있다. 교회에 잘 다니고 신앙심이 좋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일터에서 일을 꼭 잘 하도록 보장되지는 않는다. 누구나 그렇듯이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다. 때로는 자신의 잘못이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인 구조와 다른 사람 때문일 수도 있다. 그리스도인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자신이 하는 일이 잘 안 되거나 결과가 좋지 못하면 실망하거나 낙담할 수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럴 때 실망하고 낙담하는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일하면서 언제나 선행 동기로 최선을 다했는가, 일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자 했는가, 곧 하나님의 임재연습에 얼마나 힘쓰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에 대하여는 세상적인 평가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평가도 똑같이 중요하다. 다만 영적인 면에서 평가하고 인정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자신이 아니라 주님의 몫이다.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혹은 한 달란트를 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일터에서 어떻게 사용하며 힘썼는가가 중요하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일터에 그저 엑스트라나 구경꾼이나 참관인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일터의 주인공으로 보내셨다. 영혼의 격전지와 같은 일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며(마 10:16)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만남이 요구되며, 만남을 통해 신앙이 성숙해 진다.

나. 삼중직의 사역지

하나님은 자녀로 삼으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며 살도록 하셨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사역자들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역은 교회와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자신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다.²⁹⁸⁾ 구약에서 기름부음의 삼중직(선지자, 제사장, 왕)은 특별한 소수에게만 주어진 사역이었다. 그렇지만 신약에서는 삼중직의 사역이 하나님의 온 백성, 곧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졌다. 그것은 임마누엘이 되셔서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구원을 베푸시며(선지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며(대제사장),²⁹⁹⁾ 영원하신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를 다스리고(왕) 계신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가 일터에서 삼중직의 사역으로 섬기도록 요구받는다. 일터에서 선지자로서의 사역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자신의 일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며 구약시대 선지자들처럼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잘못된 관행이나 관습이나 부조리들을 발견한다면 이를 개선하는 것이다. 일터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한인뿐만 아니라 타 인종들에게도 똑같이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형편처지를 살피며 도와주고 돌보고 기도하며 축복하는 것이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한인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영적 특권을 일터에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다.³⁰⁰⁾ 일터에서 왕으로서의 사역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자기가 속한 일터에서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며, 주어진 자원과 물질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관리하는 것이 될 것이다.

루터는 농장에서 소의 젖을 짜는 여자가 찢어진 옷을 꿰매는 재봉사도 사제나 교황만큼이나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³⁰¹⁾고 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교회에서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해야만 한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주의 일과 세상의 일이 따로 있지 않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기업으로 맡겨주신 자녀를 키우는 것, 남편을 섬기는 것,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주의 일이요 영적인 제사와도 같다. 그리스도인의 일들은 하나님과

298) Stevens, *21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 222.

299) 예수는 제사장도 되시고 동시에 제물이다. Augustine, *하나님의 도성 (The City of God)*, 정정숙 역 (서울: 정음출판사, 1983), 49.

300) 권택조, *기독교 영성신학*, (서울: CLC, 2009), 145.

301) Stevens, *21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 209.

분리되는 죄가 아닌 이상 다 거룩한 것이다. 일터에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로렌스 형제처럼 주방에서 단순하고 반복적이며 자질구레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명이 있다면 귀하고 거룩하다.

예수님을 믿어 주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그리스도인은 일터에서 주님을 대신하여 일하는 큰 일꾼, 곧 대사(大使)라고 할 수 있다(고후 5:20, 엡 6:20).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일터에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름부음의 삼중직(선지자, 제사장, 왕)을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이미 성령을 통하여 받은 자들이다. 안수 받은 목회자만이 주의 종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의 종이며, 삼중직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역자들이다. 이민사회의 일터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삼중직의 사역을 직접 감당하고자 힘쓰는 장소이다.

다. 영성의 현장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일터의 영성은 일상의 영성과 다르지 않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일터와 삶의 현장이 곧 영성의 현장이기 때문이다. 로렌스 형제는 일터에서 일상의 영성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준 사람이다. 이민사회의 일터에서 요구되는 영성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닌 신앙이 종교적인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일터와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일터에서의 영성은 자신의 내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돌아보게 만든다. 이를 태면, 하나님의 임재연습을 통하여 ‘내가 왜 남을 비판하는가? 내가 왜 자꾸 남과 비교하고 있는가? 내가 왜 성공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내가 왜 자꾸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워하는가?’ 등과 같이 질문할 수 있다면 잘못된 영적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이끌어준다.

어떤 사람들은 일터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숨기거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것은 두 가지 경우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예수님의 숨은 제자들처럼 선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좋은 경우이다. 성경에도 보면 유대인 관원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사람들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었고(요 3:1-2),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 사실을 숨겼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빌라

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하여 가져갔었다(요 19:38). 두 번째는 일터에서의 삶과 신앙생활은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나쁜 경우이다. 일터에서 하는 것은 세상일이라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터에서 윗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일터 분위기가 비기독교적일 때 더욱 그러기가 쉽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일터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지나칠 정도로 드러낸다. 조용하고 자연스러운 방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고려하기 보다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며 행동한다. 근무시간 임에도 오랫동안 성경책을 펴놓고 보거나, 찬송가를 계속하여 부르거나, 옆 사람이 시끄럽게 여길 정도로 소리 내어 기도하거나, 일방적으로 접근하여 지나칠 정도로 전도함으로써 반감을 사기도 한다. 일터에서 정해진 휴식이나 식사시간 말고도 수시로 그리스도인끼리만 모임으로써 믿지 않는 동료들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이민사회의 일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집에 오셨을 때 음식을 부지런히 준비하던 마르다와 주님 앞에서 말씀을 경청했던 마리아(눅 10:38-42)를 함께 본받는 신앙의 형태가 가장 이상적이다. 일터에서는 마르다의 활동적인 삶과 마리아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함께 필요하며,³⁰²⁾ 섬김과 영성이 분리되지 않고 나란히 가야 한다.³⁰³⁾ 어떤 일에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³⁰⁴⁾ 그리스도인은 일에만 집중하느라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여 일을 게을리 하지도 말아야 한다. 일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부르심 곧 소명이다. 하나님은 일터로 그리스도인을 부르신 것이므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이다. 일터에서는 고용주를 위하여 그가 기뻐하도록 일을 해야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쁘게 해 드려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다.

일터의 영성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며, 일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302) 마르다는 예수님의 인성과 관계 맺는 편을 택했다... 그래서 그분을 먹이고자 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신성과 관계 맺는 쪽을 택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것을 먹었다. Martha Kilpatrick, *Adoration* (Sargent, GA: Seed Sowers, 1999), 19; Dillow, *일상의 예배*, 63, 재인용.

303) Richard J Foster and Emille Griffin, *영성고전산책 (Spiritual Classics)*, 방성규 역 (서울: 두란노, 2006), 264.

304) Dillow, *일상의 예배*, 65.

자 힘쓰는 신앙적인 태도이다. 베네딕트가 “기도하고 일하라”(Ora et labora)고 강조하였는데 이것은 기도로 나타나는 경건함과 일하는 노동이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일터에서 영성의 기초는 기도이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기도 속에서 초월자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간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³⁰⁵⁾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행위이자 그 분과의 만남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참다운 관계는 일터에서도 기도를 통하여 영적으로 이루어진다.

일터에서는 자신의 하는 일에 대하여 인정받으려는 욕구와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는 욕구,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지 남을 통제하려는 욕구 등이 나타나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에 힘쓰는데 취약한 점들이 많다. 그러므로 일터가 하나님의 임재연습을 위한 영적 훈련장이 되려면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나도록 십자가와 같은 신앙 상징물을 주위에 놓아두거나, 작은 쪽지에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나를 위해 계신다!”³⁰⁶⁾라고 써서 붙여놓고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분주하게 움직이면서도 ‘예수기도’³⁰⁷⁾나 ‘화살기도’³⁰⁸⁾ 같은 짧은 기도로 순간의 영성이나 ‘틈새 영성’³⁰⁹⁾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인은 마치 새들이 날 때면 항상 바람을 만나듯이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³¹⁰⁾ 일터에서는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때도 있다. 이윤만을 앞세우며 비도덕적인 분위기가 팽배한 일터라면 도덕적인 면이나 윤리적인 면에서 고

305) 인간은 초월자를 향해 울부짖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떤 상황에서는 초월자에게 의지하며 기도드린다. 하지만 그런 기도는 자연적 기도로서 기도를 받으실 구체적 대상을 파악하지 못하는 단계에 머물고 만다. Howard L. Rice, *개혁주의 영성 (Reformed Spirituality)*, 황성철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4), 90.

306) Warren, *목적이 이끄는 삶*, 121.

307) 예수에 관련된 짧은 문장을 반복하는 기도로 동방정교회에서 5세기경부터 영성수련 방법 중 하나로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표준 형태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눅 18:13)이다. 이상만, *영성이 이끄는 삶*, 103.

308) 한마디로 하는 짧고도 간단한 기도이다. ‘한줄기도’ 또는 한숨에 하는 기도이므로 ‘숨기도’라고도 한다. 이상만, *영성이 이끄는 삶*, 110.

309) 개혁주의 영성패턴은 일상 속에서 잠을 내어 하는 ‘틈새 영성’의 성격을 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은 이러한 점에서도 실천적 모범이 되신다. 이경섭, *개혁주의 영성체험*, 83.

310) Francis de Sales, *Introduction to the Devout Life*, trans. E. J. Carney (New York: Alba House, 1992), 45.

민과 그 속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더 클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거나 자신의 일에 대한 소명감이 없다면 영혼의 격전지인 일터에서 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일과 일터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연습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3. 이민사회 일터에서 하나님의 임재연습

그리스도인들이 일터에서 분명한 기준에 따라 행동하고자 힘쓸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다름이 드러난다.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에 보낸 서신들을 통하여³¹¹⁾ 그리스도인들에게 순종, 겸손, 절제, 정직, 경건, 진실, 온유, 존중, 사랑, 성실, 선함, 화평, 술 취하지 않음, 순결, 친절, 권위에 대한 복종 등의 덕목들을 갖추도록 권면하였다. 이러한 덕목들은 성령의 능력, 곧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변화된 성품들이며,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의미한다. 회심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encounter)³¹²⁾으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은혜 받는 도구이자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 기도, 찬송, 성례전, 친교, 간증, 전도 등 다양하다.³¹³⁾ 일터에서 하나님의 임재연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직접적이고도 강력한 통로이다.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연습은 제3장에서 고찰하였듯이 노동, 기도, 묵상, 섬김으로 나타났다. 물론 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긴 하지만 완벽한 모범은 아니며, 또 그의 삶의 정황이 미주지역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네 가지를 보완하여 힘쓴다면 영성이 강화되고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311) 갈라디아서 5:22-23, 디도서 1:7-9, 2:9-14, 디모테전서 3:2-4 등. Rogers, *일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116.

312) 기독교 교육학자들은 ‘만남’ 혹은 ‘창조에의 참여’ 등의 용어로 기독교 교육의 학습과정을 주장하여 왔다. 이정근, *기독교교육신학 연구논문집(하)* (서울: 한빛, 2007), 351.

313) 요한 웨슬리는 성경읽기, 기도, 성만찬, 금식, 크리스천의 모임을 다섯 가지 은총의 수단(five means of grace)이라고 하였다. 양재서, *기도 이해의 난제들*, 153.

가. 노동(일)

일터에서 하나님의 임재연습은 로렌스 형제가 보여주었듯이 무엇보다도 자신이 맡은 일을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잘 수행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와 능력을 받아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주께 하듯이 행하는 것이다(골 3:17). 소명을 가지고 성실하게 자신이 맡은 업무를 수행하며 능력을 발휘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이 일터에 나타나게 된다. 일을 잘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저절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섬김을 돌려드리는 것이 된다.³¹⁴⁾

만약 일터에서 게으르거나 맡겨진 일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영향력도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될 수밖에 없다. 일터에서 전도를 위하여 중요한 요소는 성실함과 업무능력이며, 근무태만이나 무관심, 책임감의 결여, 미성숙한 감정처리, 좋지 않은 대인관계 등은 전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이다. 일터에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일을 한다고 해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린다면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다. 일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해야 할 율법주의는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일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약속을 적용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다.
- 성경의 진리를 일터 외에 개인과 가족과 교회에만 국한시킨다.
- 직장 동료에게 말로만 복음을 전하고자 할 뿐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 다른 동료와 관계를 맺는 것보다 종교적인 활동과 행사에 우선순위를 둔다.
- 직장 내 비기독교인들과 관계를 설정할 때 '우리'(또는 나)와 '그들'이라는 태도를 취한다.
- 직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기도 모임이나 성경공부 모임에 동참하지 않는다. 즉, 그런 활동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일 뿐 직장에서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신앙생활을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만 국한시킨다.
- 기독교 신앙으로 일터와 도시와 국가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생각

314) Maxwell, Graves, and Addington, *크리스천이 직장에서 성공하는 법*, 200.

을 순진한 또는 지나치게 열성적인 생각으로 치부하거나 교리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판단한다.³¹⁵⁾

이러한 성향이나 행동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지라도 일터에서 하나님의 임재연습에 힘씀으로써 가능한 벗어나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일터로 보내셨고 그 일을 맡기셨으므로 일시적인 보수를 받기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하늘의 상급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이다. 일시적인 보수만을 생각하며 일하는 그리스도인은 일터에서 하나님의 임재연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믿음을 실천하려는 목적이나 열의가 부족하다. 사탄은 그리스도인에게 직장이나 일터에서 일하는 것은 단지 생계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한 경제적인 활동이라는 그릇된 생각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소명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만들고자 한다. 그리스도인이 일터에서 소명을 잊어버린다면 영적인 패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일이 곧 예배이므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일의 목적이다.³¹⁶⁾

나. 기도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므로 일터에서 시간을 내서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쓰지 않으면 영적 생활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³¹⁷⁾ 일터에서 기도하는 것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략회의³¹⁸⁾를 갖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의무이며 필수이다.³¹⁹⁾ 자신의 일터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은 다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며 우선적이다.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경험한다.

315) Maxwell, Graves, and Addington, *크리스천이 직장에서 성공하는 법*, 93.

316) Dillow, *일상의 예배*, 180.

317) Andrew Murray, *하나님과의 교제 (The Secret of Fellowship with God)*, 김재권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4), 3.

318) Rogers, *일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159.

319) 본회퍼는 이런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요구하신다.” Foster, *기도*, 99.

- 두려움에서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 나뉘어 모르던 데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 부족하고 모자람에서 풍성하고 넘치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 외롭고 고독한 것에서 한없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지식에서 지식과 지혜가 한이 없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 유한하고 작은 능력에서 힘과 능력이 끝이 없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 제한적인 시각과 깨달음에서 영감과 통찰이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³²⁰⁾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인 만남이므로 일터에서 바쁘다고 생략될 수 없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 5:17).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실천하고자 수세기에 걸쳐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의 두 가지 기본적인 표현을 발전시켰다.³²¹⁾ 하나는 로렌스 형제처럼 하나님과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대화하는 기도이고, 다른 하나는 보다 형식적이고 예전적인 것으로 성경구절에 기초한 단숨의 기도³²²⁾이다.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연습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입증된 경험적인 사실이다.³²³⁾ 포스터는 하나님의 임재연습을 위하여 비록 인위적 일지라도 다음과 같은 간단한 방법으로 쉬지 않는 기도를 시작하라고 권한다.

예를 들어, 학교 선생님은 종소리가 울리면 하나님께 단숨의 기도를 드려야 할 시간으로 알아들으면 된다. 좋아하는 색깔이 자주색인 사람은 자주색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임재를 상기하면 된다. 외과의사들은 수술을 집도하기 전 소독약으로 닦아낼 때마다 기도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이면 된다. 냉장고와 욕실의 거울, 또는 텔레비전 앞에 보기만 하면 저절로 기도할 수 있는 표시를 해 놓을 수도 있다. 설거지를 하거나 화단을 가꾸거나 슈퍼마켓에서 줄을 서서 기다릴 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자극할 수 있다. 조깅, 수영, 산책 등도 역시 마찬가지이다.³²⁴⁾

320) Rogers, *일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159.

321) Foster, *기도*, 167.

322) Holmes는 단순한 기도를 계속 반복함으로써 마음과 생각을 비우려는 체계적인 노력이라면서 이를 무념적(apophatic) 기도라고 부르고 있다. Holmes, *묵화와 영성*, 211.

323) Willard, *영성훈련*, 213.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므로 어디서든 기도할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일터에서 자기가 할 일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우선이다. 메튜 헨리(Matthew Henry)는 먼저 하나님께 그 일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 일들을 행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일에 번영하고 성공할 것과 주님께서 그 일에 필요한 힘을 공급하시며 피곤할 때 붙들어 주시고, 그 일들을 계획할 때 인도해 주시며 위로가 되는 결과를 허락하시도록 기도하라고 권면한다.³²⁵⁾ 일터에서 기도는 마치 어린 아이가 자기의 문제를 부모에게 가서 친근히 털어 놓듯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황과 곤경을 고백하는 것이며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한다.³²⁶⁾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것이며 능력이 된다.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은 개인기도뿐만 아니라 중보기도에도 힘써야 한다. 달린 마이사노(Darlene Maisano)는 직장 내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했다.

일터가 부흥하려면 중보기도가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다리를 놓고 길을 만들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들의 부족을 채워주어야 한다. 전에는 정치, 경제, 종교, 군대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세상을 이끄는 사람들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막대한 영향력이 행사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다.³²⁷⁾

중보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웃으로 흐르게 하는 능력의 기도이다.³²⁸⁾ 그러므로 일터에서 자신뿐 아니라 상급자, 하급자, 동료들 포함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략 안에서 다음과 같은 중보기도에 힘써야 한다.

324) Foster, *기도*, 173.

325) Henry, *날마다 하나님과*, 48.

326) John Calvin, *기독교 강요*, 156.

327) Hilman, *일터사역* 144.

328) 오성춘, *영성훈련의 실제*, (서울: 성지출판사, 1992), 314.

- 직장 상사를 위해 기도한다.
-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
- 성경말씀을 실제업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위해 기도한다.
- 직장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도록 기도한다.
-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업무 관련된 문제들을 위해 기도한다.³²⁹⁾

일터에서는 개인 사무실이 있으면 모르지만 통상 상황이나 여건이 소리를 내어 기도하거나 오랫동안 기도할 수 없으므로 마음속으로라도 짧게 자주 기도할 필요가 있다.³³⁰⁾ 일터에서 입술을 열어 아뢰지 못한다면 마치 부자의 대문 앞에서 구걸하며 기다리는 말 못하는 배고픈 거지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³³¹⁾ 잠자코 있어도 된다. 예수님도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며 기도하셨듯이(요 17:1, 마 16:19, 막 6:41, 7:34, 눅 9:16 등) 때로는 일하면서 눈을 뜬 채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없이 기도할 수도 있다. 하워드 라이스(Howard L. Rice)의 표현처럼 고요함에 처할 때는 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³³²⁾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스도인은 일터에서 침묵기도를 통하여도 언제든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³³³⁾ 일터에서 소리를 내어 기도하던, 침묵으로 하던 하나님을 만나야 하며 자신이 구한 기도는 응답해 주실 것으로 믿어야 한다(막 11:24, 요 14:14).

다. 말씀묵상

말씀묵상은 일터에서 하나님의 임재연습을 위한 또 다른 방식이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지만 특별히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것이 말씀묵상이다.³³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살아있는

329) Rogers, *일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178.

330) 루터는 기도를 길게, 많이 하지 말라고 권면한다. 그렇게 되면 정신이 피곤해지기 때문이다. 좋은 기도는 짧게 하면서 자주 뜨겁게 하는 것이다. 이후정, *기독교 영성이야기* (서울: 신앙과지성사, 2013), 226.

331) 하나님께 대한 갈망, 그 자체가 기도이다. 이후정, *기독교 영성이야기*, 29.

332) Rice, *개혁주의 영성*, 114.

333) “나는 언제나 침묵으로 기도를 시작한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이다.” Mother Teresa, *A Simple Path* (New York: Ballantine, 1995), 7: Sittser, *하나님의 뜻*, 133, 재인용.

그 말씀을 통하여 ‘지금, 바로 여기’에서 각자에게 새롭게 역사하신다. 그리스도인의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므로 비움이라기보다는 채움이다.³³⁵⁾ 묵상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본회퍼는 묵상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분석하지 않듯이 여러분에게 말씀이 선포될 때 그대로 받아들이라. 마리아처럼 성경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서 곰곰이 생각하라. 그렇게만 하면 된다. 그것이 바로 묵상이다.”³³⁶⁾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므로 말씀묵상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영적으로 보도록 이끌어준다. 토니 캠펠로(Tony Compolo)는 묵상을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두 눈을 감고 예수님의 이름만 생각할 때, 그 분의 이름을 반복해서 불러볼 때, 내 마음을 그 분에게 집중시켜서 나의 생명에 고요함이 흘러들어 오도록 자신을 맡길 때, 내가 완전히 그 분의 임재를 의식하는데 정서적으로 몰두할 때, 고요함이 나를 사로잡는다. 나의 마음이 탁구공과 같이 튀던 것을 멈추고 찾아온 평온함 가운데 나는 내 존재의 심연으로부터 들려오는 부드럽고 고요한 목소리를 감지할 수 있다. 그러고 나서 계속되는 내적인 평화 속에서 나는 그 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다. 내 영혼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 없는 속삭임을 나는 느낀다. 그때 나는 내가 그 분과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³³⁷⁾

일터에서도 말씀묵상과 같은 경건의 시간을 꾸준히 힘쓰는 것이 필요하다.³³⁸⁾ 어떤 사람은 시편을 읽으면서 성령과 교제하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³³⁹⁾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어떤 사람은 찬송가의 가사를 암송할 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한다. 성경구절이나 찬송가 가사

334) 김경재, *그리스도인의 영성훈련*, 32.

335) Foster and Griffin, *영성고전산책*, 26.

336) Foster, *기도*, 197.

337) Compolo, *일터에 사랑*, 116.

338) Ralph W. Neighbour, *영적 성장의 기본진리 (Christian Life)*, 이명희 역 (서울: 침례회출판사, 1992), 14.

339) 암송으로 말씀을 하루 종일 되새김질하면 성령님으로부터 그 암송구절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생긴다. 지용훈, *말씀으로 기도하라* (서울: 규장, 2013), 95.

를 암송하거나 찬송하는 것은 일하면서도 할 수 있으며, 휴식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할 수 있다. 일터에서 하나님은 일을 통해서도 종종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일하면서 잠깐씩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는 것도 유용하다.

-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으로 나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 나는 업무를 수행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가 아니면 내 자신의 계획에 따라 일을 하고 있는가?³⁴⁰⁾

이러한 질문들에 대하여 확실한 답을 가질 수 없다면 하나님께 자신의 일터에서의 소명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 주시도록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를 깨닫는 것이다. 일터에서 기도하는 것과 묵상하는 것은 사실은 이름만 다를 뿐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같은 것이다. 묵상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개인의 관계에서 이뤄지는 기도의 한 형태이다. 말씀묵상은 한 개인이 자신의 전 존재를 기울여 하나님을 찾아 느끼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 안에 머물며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투신하는 전인적이며 존재론적인 기도이다.³⁴¹⁾

기도와 말씀묵상, 이 두 가지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임재연습을 위한 필수이며 언제나 함께 가야 한다. 이민사회의 바쁜 일터에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에 대해서 시간이 없고 어렵다고만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연습을 통하여 영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일터에서 만나기 위한 시간과 노력을 지속적으로 드리지 않고서는 안 된다. 바쁘다고 일에 파묻힌 채 하나님의 임재연습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함으로써 영성은 유지되는 못하고 퇴보하고 말 것이다.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마 10:16)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로렌스 형제가 보여주었듯이 분주한 일터라고 할지라도 기도와 말씀묵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340) Rogers, *일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32.

341) 정원범 외, *영성수련과 영성묵회*, 271.

라. 섬김(사랑의 실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비록 치열한 경쟁과 이기적이며 개인주의가 강한 이민사회의 일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임재연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 나우웬의 표현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얻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전적인 자유로 우리를 사랑하기로 했기 때문에 사랑하신다.”³⁴²⁾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섬김을 행하도록 이끌어 준다. 섬김이란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³⁴³⁾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에 집중하는 예술 행위와도 같다.³⁴⁴⁾ 그리스도인은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다.³⁴⁵⁾ 일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일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긴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다.³⁴⁶⁾

일터에서 섬김을 위하여 로렌스 리차드(Lawrence O. Richards)는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다.³⁴⁷⁾ 첫째는 다른 사람을 아는 것이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섬기기가 쉬워진다. 둘째는 다른 사람의 정서와 감정을 알아야 한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나 생각을 들을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뒤에 다른 뜻이 숨어 있다면 파악할 수 있다. 미주 이민사회는 참으로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으므로 다른 인종들의 정서와 감정도 알아야 한다. 오랫동안 쌓여있던 한인과 흑인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1992년 LA 흑인폭동 때 코리아타운 대부분 한인상가들이 큰 피해를 봤던 이민사회의 아픈 과거를 잊지 말아야 한다. 셋째는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를 스스로 정하고 지켜나가야 한다. 모든 것을 다 섬기고

342) Henri J. Nouwen, *헨리 나우웬의 영성편지 (Letter to Marc About Jesus)*, 윤종석 역 (서울: 복있는 사람, 2004), 85.

343) 진정한 섬김과 봉사는 사람의 의지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에라야 가능하다. 장영출, *내 안에서 살아 숨쉬는 생명의 영성* (서울: 나침반, 2012), 117.

344) Maxwell, Graves, and Addington, *크리스천이 직장에서 성공하는 법*, 212.

345) Hilman, *일터사역*, 69.

346) Veith, Jr. *평범한 일속에 특별한 소명*, 65.

347) Lawrence O. Richards, *신앙성숙과 영성훈련 (A Practical Theology of Spirituality)*, 지상우 역 (서울: 여수문, 1989), 409, 410.

자 하는 것은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일터에서 행해져야 할 섬김 중 가장 많은 것은 ‘작은 섬김’이다. 자기가 속한 직장과 다른 사람들(윗사람, 아랫사람, 동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섬김의 시작이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순복하는 것도 섬김이다.³⁴⁸⁾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동료이든 그들이 무엇을 요청하였을 때 선한 일이면 그것들을 행하고자 성실히 힘쓰는 것도 섬김이다. 정중하고 부드러운 예절로 대하며 인정해 주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빌 2:3)도 섬김이다. 일터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주는 것도 섬김이며, 험담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명성을 보호해주는 것도 섬김이며, 외로운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도 섬김이다. 병든 사람을 문안하고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을 위로하는 것도 섬김이며, 고통을 겪거나 상처가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줌으로써 우는 사람과 함께 울며 서로의 아픔과 고난을 함께 나누는 것도 섬김이다.³⁴⁹⁾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고 그것을 채워주려고 힘쓰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신 15:11)도 섬김이다.³⁵⁰⁾

일터에서 자신만 승진하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일도 잘 되기를 바라는 것도 섬김이다. 실패한 사람을 격려하고 좋은 성과를 거둔 사람을 칭찬하며 다른 사람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것도 섬김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허물을 지적하고 용서하는 것(눅 17:3)도 섬김이다. “큰 덕행은 설탕과 같고 작은 성실은 소금과 같다”는 프랑스와 드 살르(Francois de Sales)의 표현처럼 일터에서 큰 덕행은 드물지라도 자주 사용하는 소금처럼 작은 섬김의 기회는 날마다 있다.³⁵¹⁾ 일터에서 사람들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는 것, 자녀의 이름이나 생일을 기억하며 친근하게 얘기한다면 그것도 섬김이다.³⁵²⁾ 그러기 때문에 일터에서의 섬김은 직업, 직급, 권한, 경력, 신앙연수, 교육수준, 이런 것에 상관없이 누구나 관심만 가지면 할 수 있는 것이

348) Kempis, *그리스도를 본받아*, 146.

349) 시간을 내어 귀를 기울여주는 친구, 격려해 주시는 선생님, 잠재력을 알아주는 사장님, 그리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가족, 이들 모두가 섬기고 있는 것이다. Foster, *돈 권력 섹스*, 272.

350) Calvin,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하여*, 41.

351) MacDonald, *영적 훈련과 성장*, 196.

352) Maxwell, Graves, and Addington, *크리스천이 직장에서 성공하는 법*, 216.

다.³⁵³⁾

섬김이 외적으로 드러나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행하는 ‘숨은 섬김’도 있다. 숨은 섬김은 섬김을 받는 사람만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섬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일터를 아름답게 만든다. 일터에서의 섬김은 인내가 필요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하여 희생도 필요하며,³⁵⁴⁾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속한 일터가 화합되고 기쁨의 공동체로 변화된다. 일터에서 섬기고자 힘쓰는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욕할 수가 있겠으며, 다투거나 싸울 수가 있겠는가? 섬기고자 힘쓰는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헐뜯고 깎아내릴 수가 있겠는가? 일터에서의 섬김은 나보다 ‘당신이 먼저’(after you)이기 때문에 화평을 가져오며, 미움이나 시기, 질투, 분노, 교만을 몰아내버린다. 일터에서 섬김의 행위는 때로는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고, 오해받기도 하고, 거절당하기도 하고, 아무런 감사의 표시를 받지 못하기도 하고, 심지어 이용과 사취를 당하기도 한다.³⁵⁵⁾ 그럴지라도 일터에서 다른 사람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에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으로 만족하고자 하는 것이다.³⁵⁶⁾

일터에서의 섬김은 아랫사람과 윗사람, 그리고 동료 상호 간 모두에게 필요하다.³⁵⁷⁾ 특히 윗사람이 되거나 중요한 위치에 있을 때 섬김을 행하는 것은 항상 직면하는 도전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는 것에 대하여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미소를 보내거나³⁵⁸⁾ 친절할 말을 건넬으로써 섬김을 시작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일터에서 직위에 관계없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을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다. 섬김은 같은 마음을 품어주는 것이

353)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는 것보다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Rick Warren, *더불어 삶 (Better Together)*, 박원철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45.

354) 우리는 개인적 희생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줌으로써 사랑을 보여준다. MacArthur, *영적 성장의 열쇠*, 192.

355) Swindoll, *섬기는 삶은 이처럼 아름답다*, 200.

356) Maxwell, Graves, and Addington, *크리스천이 직장에서 성공하는 법*, 225.

357)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위치한 곳이 어디든지 간에 서로 섬기라는 소명을 받는다. James F. White, *개신교 예배 (Protestant Worship)*, 김석한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9), 58.

358) 미소는 자신과 이웃 모두에게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주며, 미소 짓기는 좋은 영성생활이다. 이상만, *영성이 이끄는 삶*, 121.

다.³⁵⁹⁾ 일터에서 같은 마음을 갖게 되면 연약한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며, 상처 받기 쉬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힘없는 사람에게 과시하지도 않게 된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빌 2:3)라고 가르친다. 찰스 스윈돌(Charles R. Swindoll)은 여기서 ‘겸손한 마음’이란 그야말로 태도라고 보았으며 자기 자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심하는 정신자세라고 말하고 있다.

- 나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 왜 내가 언제나 첫 번째가 되어야 하는가? 나는 변화를 위해 다른 사람이 이기도록 도와줄 것이다.
- 오늘 나의 간절한 바람은 나 자신의 격심한 경쟁 심리를 억제하고 그 에너지를 최소한 한 사람을 격려하는 데로 돌리는 것이다.
- 오늘 나는 기꺼이 나의 방식을 버린다. 주님,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제게 보여 주시고, 그것이 제게도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³⁶⁰⁾

일터에서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며 존중하고 격려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에서 비롯된다.³⁶¹⁾ 겸손한 마음을 지닌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행하지도 말하지도 생각하지도 않고자 힘썼다.³⁶²⁾ 섬김은 언어로 나타난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엡 4:29). 이 부분을 피터슨은 메시지(Message)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였다. “여러분의 말하는 습관을 살피십시오. 여러분의 입에서 불쾌하고 더러운 말이 나오지 않게 하십시오. 도움이 되는 말만 하고, 여러분의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선물이 되게 하십시오.”

불쾌하고 더러운 말이란 불친절한 말, 거친 말, 비꼬는 말, 화내는 말, 비방하는 말, 그리고 경솔하게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하는 악담 등이다. 이런 말들은 절대로 섬

359) Foster, *돈 권력 섹스*, 256.

360) Swindoll, *섬기는 삶은 이처럼 아름답다*, 40.

361)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3가지 동기는 우리가 피조물이고, 죄인이고, 성도이기 때문이다. Andrew Murray, *겸손 (Humility)*, 강철성 역 (서울: CLC, 2006), 7.

362) “하나님의 임재연습” (윤종석 역), 32.

김의 언어가 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린다. 워렌은 언어습관을 강조하며 그리스도인들은 일터에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자신에게 먼저 2가지를 물어보라고 권면한다.³⁶³⁾ ①왜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려고 하는가? ②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이 이 사람을 건강하게 바로 세우는 것인가, 아니면 파멸시키는 것인가? 인도에서 55년간 선교사로 사역한 에이미 카마이클(Amy Carmichael)은 말하기 전에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3가지를 질문했다고 한다. ①친절한 말인가? ②진실한 말인가? ③꼭 필요한 말인가? 단순하지만 깊은 의미가 담긴 이러한 세 가지 질문하는 것을 습관화한 덕분에 그녀는 다른 사람을 섬기며 말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었다.³⁶⁴⁾

제 2 절 일터에서 하나님의 임재연습 적용방안

앞에서 살펴본 하나님의 임재연습을 위한 일, 기도, 말씀묵상, 섬김에 대하여 한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일터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1. 노동(일)

일터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책상이나 컴퓨터 앞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구를 써서 붙인다. 하나는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나를 위해 계신다!’이고, 다른 하나는 ‘일이 곧 예배이다!’³⁶⁵⁾이다. 조그만 액자를 이용하여도 좋고 아니면 종이에 써서 붙여놓아도 좋다. 어떤 형태로든지 쉽게 자주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이 일터에 자기와 함께 계심에 대한 믿음과, 일터에서 자신이 행하는 일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음을 자꾸 상기한다. 다음과 같은 헨포드의 ‘일이 곧 예배이다’(Laborare est orare)³⁶⁶⁾라는 시를 적어놓고 보는 것도 좋다.

363) Warren, *더불어 삶*, 81.

364) Dillow, *일상의 예배*, 145.

365) ‘일이 곧 예배이고, 예배가 곧 일’이라는 자세는 우리의 일과 우리 자체를 변화시킬 것이다. Dillow, *일상의 예배*, 177.

366) Thomas W. Hanford, *Two Thousand and Ten Choice Quotations in Poetry and Prose* (n.p. 1985), 32; Dillow, *일상의 예배*, 194, 재인용.

일이 곧 예배이다.
 고대의 한 수도사가 노래했네.
 이른 아침 기도시간에 노래했네.
 저녁 종이 울릴 때 노래했네.
 일이 곧 예배이다.

나의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향기로운 예물로 취하시고
 굳은 손마디와 지친 발을
 예배의 증표로 받으신다네.

일이 곧 예배이다.
 오래 전 수도사의 이 경구를 우리의 좌우명 삼아
 이 시대에 섬김의 삶을 사세.
 일이 곧 예배이니 수고는 거룩하다!

2. 일터에서 기도

하나님의 임재연습을 위하여 일터에서의 기도는 세분화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상황에 따른 '일터에서의 9가지 기도문'을 제시하였다. 즉, ①일터에 도착했을 때(소명의 기도), ②일을 하면서(임재의 기도), ③중간에 일을 마칠 때(감사의 기도), ④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결단의 기도), ⑤일터에서 바라는 소원이 있을 때(소원의 기도), ⑥골리앗을 만났을 때(다윗의 기도), ⑦땀박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돌아봄의 기도), ⑧잘못했을 때(고백의 기도), ⑨일터를 떠날 때(마감의 기도) 등이다. 정형화된 형태를 반복함으로써 습관화하도록 하였는데 기도의 내용은 각자의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가. 일터에 도착했을 때 (소명의 기도)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마 10:12). 일터에 도착하여 가장 먼저 할 일은 기도이다. 일터는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므로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기를 기도한다. 다음과 같은 ‘소명의 기도’를 드린다.

- 주님이 저를 이곳(또는 직장 이름)으로 보내셨습니다.
 - 주님은 지금 이곳에 저와 함께 계십니다.
 -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저를 사용하시며 도와주옵소서.
-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일을 하면서 (임재의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 5:17). 로렌스 형제가 일터에서 하나님께 계속하여 아뢰며 대화하였듯이, 일하면서는 ‘임재의 기도’를 반복적으로 드린다. 일터에서 업무로 다른 사람을 만난다면 그 때도 마음속으로 ‘임재의 기도’를 드린다.

- 주님, 제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 저를 도와주옵소서.
- (임마누엘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중간에 일을 마칠 때 (감사의 기도)

“범사에 감사하라”(살전 5:18). 중간에 일을 마칠 때는 감사의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음에 대해 감사드렸다.³⁶⁷⁾ 다음과 같이 짧게라도 ‘감사의 기도’를 잊지 않는다.

367) “하나님의 임재연습”(윤종석 역), 26.

- 주님, 저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라.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결단의 기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마 6:33). 일터에서 업무에서나 혹은 업무 외적으로든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단의 기도’를 드린다.

- (지금의 상황을 주님께 아뢰다)
- 주님, 이 상황에서 주님의 뜻을 알게 도와주소서.
- 제가 결정하는 이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 일터에서 바라는 소원이 있을 때 (소원의 기도)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빌 4:6). 일터에서 이뤄지기를 바라는 소원이 있을 때는 주님께 기도로 아뢰다. 일터에서 소리 내어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마음속으로라도 다음과 같은 ‘소원의 기도’를 드린다.

- (주님께 바라는 소원을 아뢰다)
- 주님, 제 소원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뤄지기를 원합니다.
- 제 소원이 주님의 뜻과 다르다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소서.
- 저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높여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 골리앗(난관, 장애)을 만났을 때 (다윗의 기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3). 이민의 일터에서 자신이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난관이나 장애를 만나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지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일터에서 골리앗과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다윗의 기도’를 드린다.³⁶⁸⁾

- (골리앗과 같은 상황을 주님께 아뢴다)
 -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 주님이 지금 제 옆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 주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 주님의 계획을 따르겠습니다.
 - 이 상황에 대한 통제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 저 혼자서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능력을 주옵소서.
-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 핍박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돌아봄의 기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롬 8:18). 일터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이나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요 15:20). 이럴 때는 다음과 같은 ‘돌아봄의 기도’를 드린다.

368) Maxwell, Graves, and Addington, *크리스천이 직장에서 성공하는 법*, 83.

- (뽕박이나 어려움을 주님께 아뢴다)
 - 남을 미워하거나 악으로 대하지 않게 도와주소서.
 - 잘못된 관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저를 돌아보게 하소서.
 - 제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이겨내게 하옵소서.
-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일터에서 잘못했을 때 (고백의 기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 1:9). 일터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을 늘어놓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잘못하거나, 죄를 짓거나 지었다고 생각될 때는 ‘고백의 기도’를 드린다.

(1) 불평불만 했을 때

- (불평불만 했던 것을 주님께 고백한다)
 - 나의 고백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주님이 보내주신 일터를 제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주님께 고백한다)
 - 나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주님이 보내주신 일터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 죄를 지었을 때

- (죄를 지었거나 지었다고 생각되는 것을 주님께 고백한다)
- 저를 용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일터를 떠날 때 (마감의 기도)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빌 1:27). 일터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마쳤을 때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며 잠깐이라도 돌아보기를 습관화한다.³⁶⁹⁾

- (오늘) 무슨 일을 했는가?
- (오늘) 소홀하게 한 일은 없는가?
- (오늘) 최선을 다해 일했는가?
- (오늘) 기도하기에 힘썼는가?
- (오늘) 말씀묵상을 하였는가?
- (오늘)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였는가?
- (오늘)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았는가?

그런 다음 일터를 떠나기 전에 다음과 같이 ‘마감의 기도’를 드린다.

- 주님은 일터에서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 이제 모든 일을 마치고 일터를 떠나고자 합니다.
-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감사를 드립니다.
- 주님, 오늘 일터에서 행한 잘못을 용서하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 집으로 가는 길도 함께 하시며 안전으로 지켜주옵소서.
-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69) Henry, *날마다 하나님과*, 131.

3. 일터에서 묵상 (일자별 말씀묵상)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통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말씀은 영의 양식
이므로 일터에서의 영성에 본질적인 역할을 한다. 날마다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영성이 강건해지며 거기서 나오는 영적인 능력은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을 지켜준다.³⁷⁰⁾ 일터에서는 짧은 성경구절이라도 그저 눈으로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잠깐이라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 공식적으로 허용된 휴식이나 점심시간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일을 시작하기 전이나 일을 마치고 난 후, 혹은 일하면서도 잠깐만 마음속으로라도 말씀을 묵상하고자 한다면 가능하다.

일터에서 묵상은 시중에 책으로 나와 있는 유익한 묵상집이나 묵상자료를 구입하여 활용할 수도 있다. 이를테면 Kenneth E. Hagin은 믿음을 1년 365일 날마다 먹을 수 있도록 ‘한 입 크기의 믿음의 양식’(성경구절, 묵상, 고백)으로 날자 별로 제공하고 있다.³⁷¹⁾ 다만 대부분 묵상집이나 자료들이 1-2 페이지라고 해도 수록된 양이 많기 때문에 바쁜 일터에서 활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고, 또한 날짜마다 다른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책이라는 무게 속에서 느껴지는 부담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는다.

일터에서 묵상은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일자별 말씀묵상’을 만들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인들에 대해서 잘 아는 담임목사가 직접 신약 및 구약성경에서 영성을 높이는데 유익한 구절을 택하여 [말씀]과 [묵상] 형식으로 만드는 것이다. [말씀]은 1개 성경구절이나 연속된 2-3개의 성경구절을 택하고, 여기에 대해서 5개 이내 짧은 항목의 [묵상]으로 된 ‘일자별 말씀묵상’을 제공한다면 바쁜 일터에서도 활용하기가 좋을 것이다. ‘일자별 말씀묵상’은 1일부터 365일 일자별 매일 다르게 365개를 만들기보다는 1일에서부터 31일까지 일자별 31개를 만들어 매달 반복해서 사용하

370) David Watson, *Fear No Evil: One Man Deals with Terminal Illness* (Wheaton, IL: Harold Shaw Publishers, 1985), 39.

371) Kenneth E. Hagin, *믿음의 양식 (Faith Food)*, 김진호 역 (서울: 믿음의 말씀사, 2007), 7.

도록 하며, 1년 단위로 다시 새로운 31개의 ‘일자별 말씀묵상’을 만든다. 여기에는 보통 40개 정도의 성경구절이 포함될 것이다.

‘일자별 말씀묵상’은 ‘일터에서의 9가지 기도문’, ‘섬김 점검표’와 함께 영성용 휴대카드(부록#1)로 만들어 교인들에게 제공한다. 영성용 휴대카드는 지갑 속에 넣을 수 있도록 명함(business card) 크기가 적절하며, 자주 꺼내서 보게 되므로 코팅을 하거나 단단한 형태로 제작하여 쉽게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31개의 ‘일자별 말씀묵상’은 영성용 휴대카드 앞면에 홀수일자, 뒷면에 짝수일자를 인쇄하면 1장이 2일분이 되어 16장이면 될 것이다. 교인들은 해당되는 날짜의 ‘일자별 말씀묵상’이 인쇄된 영성용 휴대카드를 출근할 때 가지고 가서 일터에서 묵상할 때 활용한다.

일터에 출근하지 않는 날들(토요일, 주일, 공휴일, 휴가 등)을 제외하면 1년에 최소 7번 이상은 같은 ‘일자별 말씀묵상’이 수록된 영성용 휴대카드를 가지고 출근하게 된다. 출근 후 일터에서 ‘일자별 말씀묵상’을 몇 번씩 묵상한다면 31개 ‘일자별 말씀묵상’에 수록된 40개 정도의 성경구절은 자연스럽게 암송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일터에서 ‘일자별 말씀묵상’에 따라 성경구절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암송하게 된다면³⁷²⁾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에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1년 동안 사용하는 31개 ‘일자별 말씀묵상’중 [제1일 말씀묵상]부터 [제8일 말씀묵상]까지의 8일분에 해당되는 ‘일자별 말씀묵상’에 대한 예문을 제시하였다.

372) 성경암송은 교독과 침묵과 묵상을 한꺼번에 할 수 있다. 달라스 윌라드는 영성훈련 가운데 하나를 택한다면 성경암송이라고 하였다. 성경암송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과 마음에 담고 하나님과 독대하며 말씀을 되새기며 즐거워하는 시간이다. 이상만, *영성이 이끄는 삶*, 64.

가. 제1일 말씀묵상(예: 영성용 휴대카드 앞면)

[1일]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라	
말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골 3:22).
묵상	①일터에서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는가? ②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눈가림만 하지는 않은가? ③사람이 아닌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④성실한 마음으로 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가? ⑤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나. 제2일 말씀묵상(예: 영성용 휴대카드 뒷면)

[2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 5:16-18).
묵상	①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②나는 일터에서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가? ③나는 일터에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④나는 일터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⑤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고 있는지를 돌아본다면 어떤가?

다. 제3일 말씀묵상(예: 영성용 휴대카드 앞면)

[3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	
말씀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요삼 1:2).
묵상	①오늘 나의 영혼은 잘되고 있는가? ②오늘 나의 범사는 잘되고 있는가? ③오늘 나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강건한가? ④오늘 나는 누구를 위하여 잘되기를 간구하였는가? ⑤오늘 잘되기를 위하여 간구하지 못한 사람은 없는가?

라. 제4일 말씀묵상(예: 영성용 휴대카드 뒷면)

[4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우심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시 121:1-2).
묵상	①오늘 일터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었는가? ②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가? ③하나님의 도와주심에 대하여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가? ④일터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⑤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취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마. 제5일 말씀묵상(예: 영성용 휴대카드 앞면)

[5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심판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 9:27).
묵상	①이 땅에서 남은 날 수가 얼마나 될 것이라 생각하는가? ②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③오늘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주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④그 동안 얼마나 주님을 위해 살아왔다고 생각하는가? ⑤앞으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가?

바. 제6일 말씀묵상(예: 영성용 휴대카드 뒷면)

[6일] 주님의 아름다운 덕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벧전 2:9).
묵상	①주님은 나를 왜 택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을까? ②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③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나는 일터에서 어떻게 선포하고 있는가? ④주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덕은 무엇일까? ⑤나는 일터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비춰지고 있을까?

사. 제7일 말씀묵상(예: 영성용 휴대카드 앞면)

[7일] 십계명 중 제1계명	
말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출 20:3).
묵상	①주님 외에 다른 신(돈, 학력, 재능, 권력 등)을 두고 있지는 않은가? ②일하면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자 힘쓰는가? ③주님의 함께 하심과 주님의 도우심을 느끼고 있는가? ④오늘 행한 일 중에 주님이 기뻐하실 일은 무엇인가? ⑤오늘 행한 일 중에 주님이 싫어하실 일은 없었는가?

아. 제8일 말씀묵상(예: 영성용 휴대카드 뒷면)

[8일] 죽어야 사는 진리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 12:24).
묵상	①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어 열매를 맺듯이 일터에서 희생하고자 힘쓰는가? ②일터에서 나는 친절하며 다른 사람을 평등하고 귀하게 대하는가? ③나 자신을 죽이며 더욱 힘써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④나로 인하여 일터에 기쁨이 있는가, 아니면 근심이나 걱정을 주는가? ⑤일터에서 나로 인하여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있는가?

4. 일터에서 섬김

일터에서 자신이 얼마나 섬김을 실천하였는지를 다음과 같은 섬김 점검표를 통하여 일을 마칠 때 돌아본다.

섬김 점검표		
구분	내용	여부
1	상급자에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순복하였는가?	예/아니오
2	다른 사람이 무엇을 요청할 때 선한 일이라면 이행하고자 힘썼는가?	예/아니오
3	다른 사람에게 정중하고 부드러운 예절로 대하며 인정하였는가?	예/아니오
4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였는가?	예/아니오
5	협담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명성을 보호하였는가?	예/아니오
6	외로운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었는가?	예/아니오
7	병자를 문안하고 슬픔 당한 사람을 위로하였는가?	예/아니오
8	우는 사람과 함께 울며 아픔과 고난을 함께 나누었는가?	예/아니오
9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힘쓰며 도와주었는가?	예/아니오
10	자신만 승진하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잘 되기를 바랐는가?	예/아니오
11	실패자를 격려하고 잘한 사람을 칭찬하였는가?	예/아니오
12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허물을 용서하였는가?	예/아니오
13	친절하게 인사하며 이름이나 직책을 다정하게 불렀는가?	예/아니오
14	불쾌하고 더러운 말이 아닌 선한 말을 하였는가?	예/아니오
15	나는 이웃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았는가?	예/아니오

제 3 절 하나님의 임재연습 적용방안에 대한 훈련

하나님의 임재연습에 대한 훈련은 목회자가 담당하며 그 책임은 담임목사에게 있다. 교회에서 전체 교인을 대상으로 교인수련회나 영성수련회 때 계획하여 년 2회 집중적으로 훈련한다. 교인들에게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가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훈련 시간 및 팀 편성

훈련은 4시간이며, 첫째 1시간은 이론 강의, 둘째 1시간은 시범 강의, 나머지 2시간은 실습으로 진행한다. 이론 및 시범 강의는 전체를 대상으로 한꺼번에 하고, 실습은 팀별로 한다. 실습을 위한 팀 편성은 가능한 10명 이내로 한다. 평상시 교회의 소그룹(목장, 구역)을 그대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주의할 것은 남자와 여자를 함께 혼합편성하지 않아야 한다. 남자와 여자가 일터에서 하는 일의 종류와 일터에서의 위치와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실습을 위해서 분리하는 것이다. 가능하면 연령대별 혹은 직업별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 팀을 편성한다. 실습을 돕기 위하여 팀별로 조교(부목사, 협동목사, 전도사 등)를 가능한 1명씩을 배치한다. 장년 교인 25명을 4개 팀으로 편성하는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남자		여자	
	A팀(6명)	B팀(5명)	C팀(7명)	D팀(7명)
편성	·회사원 3명 ·자영업 2명 ·주유소 직원 1명	·연금생활자 2명 ·한의사 1명 ·중개사 2명	·연금생활자 3명 ·자영업 3명 ·간호사 1명	·식당 종업원 3명 ·도너츠 종업원 2명 ·미용사 2명
조교	부목사	협동목사	이 전도사	강 전도사

2. 훈련 방법

첫째 시간에는 교인들에게 일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부분들에 대하여 쉽고도 설득력 있게 강의한다.

시간	이론 강의	포함할 내용
10분	일에 대한 성경의 관점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리스도인은 소명자이다
10분	로렌스 형제의 영성의 삶	·일터에서 하나님과의 대화
10분	일터에서의 삶을 돌아봄	·자신의 영성에 대한 점검
20분	일터에서 하나님의 임재연습	·왜 필요한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둘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임재연습을 일터에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조교들을 역할대행자로 활용하여 실질적인 시범으로 보여주면서 진행한다. 담임목사는 사전에 조교들을 선정하고 시범 강의와 실습시간에 교인들의 실습을 진행하며 보조하는 요령에 대하여 훈련시킨다.

시간	시범 강의	포함할 내용
5분	일에 대한 문구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나를 위해 계신다!’ ·‘일이 곧 예배이다!’
30분	일터에서 기도 (9가지)	·일터에 도착했을 때(소명의 기도) ·일을 하면서(임재의 기도) ·중간에 일을 마칠 때(감사의 기도)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결단의 기도)

		·일터에서 바라는 소원이 있을 때(소원의 기도) ·골리앗을 만났을 때(다윗의 기도) ·뿔박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돌아봄의 기도) ·일터에서 잘못했을 때(고백의 기도) ·일터를 떠날 때(마감의 기도)
10분	일터에서 묵상	·일자별 말씀묵상
5분	일터에서 섬김	·섬김 점검표

이론 강의와 시범 강의를 마치고 10분간 휴식 후 나머지 2시간은 시범 강의를 통하여 보여준 내용에 대하여 팀별로 정해진 장소에서 조교에 의해 실습을 진행한다.

구분	첫 시간	둘째 시간
실습	·일에 대한 문구 ·일터에서의 기도(9가지)	·일터에서의 기도(9가지) ·일터에서의 묵상 ·일터에서의 섬김

실습은 교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영성용 휴대카드를 활용하여 진행하며, 자기 순서가 되었을 때 처음에는 카드를 보지만 점차 카드를 보지 않도록 유도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훈련이 끝날 때는 영성용 휴대카드 사용요령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훈련을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마칠 때도 기도로 마친다.

3. 기대 효과

교인들의 영성, 믿음의 정도, 상황과 형편처지, 관심과 참여도와 열정, 그리고 목회자의 훈련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일터에서 하나님의 임재연습에 대한 훈련의 효

과는 교회마다 다를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연습은 영적인 습관과 변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작업이다. 영적 변화는 오랜 기간을 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훈련 후에 곧바로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영성이란 눈에 보이거나 객관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³⁷³⁾ 영성을 측정하기도 어렵거니와 하나님의 임재연습에 대한 훈련성과를 객관적인 수치로 제시하는 것은 인위적일 수도 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통해서도 보듯이 영적 변화는 오랜 경험과정이 요구되는 어려운 일이다. 드 살르(de Sales)의 다음과 같은 조언은 매우 적절하다.

몸이든 마음이든 통상적인 정화와 치유는 수고하고 인내하며 한 단계씩 나아감으로써 아주 조금씩 이루어진다. 야곱의 사닥다리 위에 있었던 천사들은 날개를 가지고 있었지만 날지 않았다. 그들은 사닥다리를 하나씩 하나씩 오르내렸다. 죄로부터 벗어나 헌신하는 영혼은 하루 중 새벽에 비유할 수 있다. 새벽은 어둠을 순간적으로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물리쳐간다.³⁷⁴⁾

비록 영적인 변화가 더디기는 할지라도 목회자가 지속적으로 1년에 2회씩 일터에서의 하나님의 임재연습을 훈련시킨다면 교인들의 일터에서의 영성은 올바른 방향으로 강화되어 나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교인들에게 일터에서 하나님의 임재연습을 힘쓰도록 촉진시킬 것이며, 개인별로 차이가 나고 다르긴 하겠지만 영적인 변화와 영성의 삶은 지속적인 흐름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4. 후속 조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연습에 대하여 1년에 2회씩 교인들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민사회의 일터는 바쁘고 경쟁이 심한 곳이며, 영성을 방

373) 성경공부는 마쳤다고 표시할 수 있고, 기도도 몇 분 했는지 기록할 수 있고, 전도한 대상자들의 명단도 종이에 쓸 수 있다. 그러나 겸손을 이루었다고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Gary L. Thomas, *내어드림의 영성 (The Glorious Pursuit)*, 윤종석 역 (서울: CUP, 2009), 70.

374) Francois de Sales, *Introduction to the Devout Life*, trans. John K. Ryan (Garden City, NY: Doubleday, Image Books, 1957), 43-44; Willard, *영성훈련*, 87, 재인용.

해하는 수많은 요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연습을 실천하는 것은 늘 도전을 받는다. 교회에서 4시간에 걸친 훈련을 받았다고 하여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교인들이 훈련을 받은 후 며칠은 관심도 있고,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연습을 힘쓰다가도 바쁜 일들로 인하여 자꾸 하나님의 임재연습을 잊어버리기가 쉽다. 로렌스 형제도 다를 바 없이 일터에서 하나님의 임재연습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계속 꾸준히 연습함으로써 아름다운 습관이 되어 범사에 임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교인들에게 영적인 변화와 성숙을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지만, 교인들이 일터에서 하나님의 임재연습이 규칙적인 생활화가 되도록 관심을 기울이며 돕는 것은 담임목사와 목회자들이 감당해야 할 부분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특별히 담임목사는 일터에서의 영성을 위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사역해야 한다. 본인 스스로가 영성이 뜨거운 목회자로서 교회에서의 일, 기도, 말씀, 섬김에 부지런히 힘써야 한다. 일터에서의 하나님의 임재연습을 위하여 전 교인을 대상으로 년 2회씩 집중적으로 훈련시킬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임재연습을 설교하고 가르쳐야 한다. 로렌스 형제는 “만일 내가 설교가라면 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 외에는 아무것도 설교하지 않을 걸세”³⁷⁵⁾라고 하나님의 임재연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교인들이 일터에서의 하나님의 임재연습을 자연스러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힘써야 하듯이 담임목사를 비롯한 모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다.

교회에서 드러지는 예배가 성령 충만함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예배의 순서마다 영적인 뜨거움이 있어야 하고,³⁷⁶⁾ 목회자가 전하는 설교는 은혜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소그룹(목장, 구역) 모임에서도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연습이 되어야 한다. 교회에서 주중에 새벽기도를 한다면 한 달에 한 번, 이를테면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설교보다는 하나님의 임재연습을 위한 기도와 말씀에 대한 묵상으로 진행하는 것도 권장한다. 그리고 소그룹 모임에서도 한 달에 한 번, 이를테면 매월 첫 번째 모임에서는 일터에서의 하나님의 임재연습에 대하여 체험을 나누고 실천을 도모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375) “하나님의 임재연습”(윤종석 역), 38.

376)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실존과 실재를 느끼는 사람 속에만 영성이 나타난다. 전가화, *진정한 영성* (서울: 믿음의집, 1988), 62.

제 6 장

결 론

제 1 절 요약

본 논문은 어떤 뜻이나 계기로 인해서든 고국을 떠나 미주지역으로 이민 와서 살고 있는 한인 1세, 1.5세 그리스도인들이 일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며 영성의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구체적 적용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왜냐하면 일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며 소명이므로, 미주지역 그리스도인들도 소명자로서 자신의 일을 통하여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큰 철강회사에서 중견관리자로 있는 윌리엄 딜은 이렇게 고백하였다.

직장생활을 하는 거의 30년 동안,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서는 직장
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역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암시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또한 내가 더 나은 사역자가 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적도 한
번도 없었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종류의 지원을 필요로 하
는지 물어본 적도 한 번도 없었다. 내가 내려야만 하는 윤리적 결
정이 어떤 것인지, 또 내가 동료들에게 신앙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지 않는지도 결코 물어오지 않았다. 나는 교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직장사역을 공적으로 인정받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한마디로
말해, 내가 다니는 교회는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역을 하는지
또 사역을 한다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다
고 결론을 내려야만 한다.³⁷⁷⁾

이렇게 느끼는 그리스도인이 비단 이 한 사람뿐이며, 이런 교회가 그가 30년간

377) Banks, *일상생활속의 그리스도인*, 80.

섬겼던 그 교회뿐일까? 미주지역 이민교회들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면 지나친 것일까? 목회자들은 모이는 교회에서의 각종 프로그램이며 활동을 포함하여 감당해야 할 사역들이 많이 있지만, 교인들이 교회 밖에서 겪는 문제들뿐만 아니라 소명을 감당해야 할 일터에서의 사역에 대한 영적인 지도와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물론 미주지역에서 교단이나 교회들 나름대로는 교인들의 영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영성훈련 세미나를 갖기도 하고, 강단에서의 설교와 새벽기도회, 그리고 QT 나눔 등 다양하게 힘쓰고 있다. 이런 사역들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영성을 돌아보도록 할 수는 있겠지만 일터에서의 영성으로 자동 연결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일터에서의 영성을 위해서는 교회나 목회자에 의한 다양한 일반적인 사역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스스로가 해야만 하는 구체적인 사역이 필요하다. 일터에서 영성을 유지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구체적인 사역이 곧 일터에서의 하나님의 임재연습이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명저를 남긴 토마스 아 캠퍼스는 “사람이 애써 노력하지 않는 한 본성은 결코 스스로 죽지 않으며 넘어지지도 정복되지도 않고 굴복당하지도 억제되지도 않는다”³⁷⁸⁾고 하였다. 영성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므로 특별한 시간이나 일정한 장소에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어떤 형태로든지 만나야 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연습이 바로 그런 삶이다.

기독교적인 문화와 전통이 사라지며 탈기독교화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미국에서 일터에서의 하나님의 임재연습이 쉽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미주지역 한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힘쓰며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찾고자 하였다. 그것은 로렌스 형제가 일터에서 보여주었던 일, 기도, 묵상, 섬김 등 네 가지 전형(典型)에 기초하였다.

먼저 일이다. 일은 곧 예배이며, 그리스도인은 일을 소명으로 알고 자신이 맡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둘째는 기도이다. 일터에서 기도하는 것과 일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다. 기도함으로써 우리 영혼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으며, 일함으로써 다른 영혼을 생명으로 이끌게 된다.³⁷⁹⁾

378) Kempis, *그리스도를 본받아*, 227.

사람마다 개성이며 생김새가 다르듯이 기도의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자주 무시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셋째는 말씀묵상이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다. 넷째는 섬김이다. 기도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터에서 섬김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네 가지 기본요소를 통하여 일터에서 영적인 습관과 성숙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다만 연구자가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본 논문에 제시된 일부 사항에 대하여는 단기간 적용해 본 적은 있지만 전체 프로그램대로 하나님의 임재연습을 훈련하며 평가하는 단계를 거치지는 못하였다. 앞으로 전 교인을 대상으로 년 2회씩 계속적으로 훈련한 후 교인들의 영성을 평가하면서 일터에서의 하나님의 임재연습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본 논문이 지향하는 방향은 미주지역 한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연습을 통하여 일터는 하나님이 맡긴 소명을 감당하는 삼중직의 사역지인 점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실과 책임감으로 일하며(일), 하나님과 무시로 대화하며(기도),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며(말씀묵상),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드러내며(섬김) 살도록 돕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일터에서 영성을 유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기 때문이다.

제 2 절 제언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있는 것이며,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친다.³⁸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스도인을 세상으로 보내신다. 그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마 5:13),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 5:14)는 사명을 감당

379) Andrew Murray,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일할 것인가 (How to Work for God)*, 윤병하 역 (서울: 두란노, 1993), 121.

380) Jacques Ellul,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The Presence of Kingdom)*, 이문장 역 (서울: 대장간, 1998), 15.

토록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천국복음을 전하셨고 승천하시며 그 일을 우리들에게 맡기셨다. 예수님을 대신하여 사역하는 주의 종들의 주된 관심사는 주님이 명하시는 그 분의 사역이다.³⁸¹⁾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전도를 위하여 내어 보내시며,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마 10:16)라고 하셨으며, 70인의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도,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눅 10:3)고 말씀하셨다. 오늘도 어린 양 같은 교인들이 이리와 같은 세상 한 가운데로 보내지고 있는데 그것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함이다. 이제 목회자들은 교회 안에서의 삶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사역에서 교회 밖에서의 삶, 특히 영혼의 격전지요 삼중적의 사역지요 영성의 현장인 일터에서의 사역³⁸²⁾으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교인들을 교회당 안으로 끌어들이는 개념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끌어들이는 개념으로 바꾸며 활동을 넓히는 것이다.

미주지역 한인교회들은 병원의 신생아실과 같은 역할에 치중하느라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준비시키는데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논산훈련소에 입소한 신병들이 실전처럼 총알이 쏟아지는 속에서 낮은 포복으로 철조망을 통과하며 살아남는 훈련을 받듯이, 교회는 영성의 발전소이자 훈련소가 되어 교인들을 그리스도의 군병으로 훈련시켜야 한다. 교인들에게 일터에서의 영성에 대하여 가르치며 하나님의 임재연습을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일시적이고 선택적인 사역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할 필수적인 사역이다.

끝으로 하나님의 임재연습을 목회자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훈련시킬 것인가에 대한 적용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미주지역의 일터마다 독특함뿐만 아니라 다양성이 있으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처하게 될 모든 상황을 포함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자신이 섬기는 교인들을 위한 보다 적합한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미주지역 한인 2세, 3세 그리스도인들이 일터에서 하나님의 임재연습을 실천하기 위한 연구도 앞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제안하며 기대한다.

381) Murray, *성령님의 임재연습*, 111.

382) 조지 바나는 “일터에서의 사역은 교회사역의 핵심적인 혁신분야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Maxwell, Graves, and Addington, *크리스천이 직장에서 성공하는 법*, 329.

부록

1. 영성용 휴대카드

‘일터에서 기도하기’(9가지), ‘일자별 말씀묵상’(1일-31일), 그리고 ‘섬김 점검표’를 포함하여 명함 크기로 앞뒷면으로 인쇄하여 만들면 총 21장이 된다.

[1] 영성용 휴대카드 #1

영성용 휴대카드	
·하나님은 지금 나와, 나를 위해 계신다! ·일이 곧 예배이다!	
1	일터에 도착했을 때 (소명의 기도)
·주님이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곳에 저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저를 사용하시며 도우소서.	

(앞면)

2	일을 하면서 (임재의 기도)
·주님, 제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를 도와주옵소서.	
3	중간에 일을 마칠 때 (감사의 기도)
·주님, 저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결단의 기도)
·(지금의 상황을 주님께 아뢰다) ·주님, 이 상황에서 주님의 뜻을 알게 도와주소서. ·제가 결정하는 이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소서.	

(뒷면)

[2] 영성용 휴대카드 #2

5	바라는 소원이 있을 때 (소원의 기도)
·주님, 제 소원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뤄지길 원합니다. ·제 소원이 주님의 뜻과 다르다면 깨닫게 하여 주소서. ·저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높여지게 하소서.	
6	핍박이나 어려움 당할 때 (돌아봄 기도)
·남을 미워하거나 악으로 대하게 하지 않게 도와주소서. ·잘못된 관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저를 돌아보게 하소서.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이겨내게 하소서.	

(앞면)

7	꼴리앗을 만났을 때 (다윗의 기도)
·주님이 지금 제 옆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주님의 계획을 따르겠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통제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저 혼자서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능력을 주옵소서.	

(뒷면)

[3] 영성용 휴대카드 #3

8	잘못했을 때 (고백의 기도)
(1) 불평불만 했을 때 ·나의 고백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보내주신 일터를 제가 사랑하게 도와주소서.	
(2)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나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보내주신 일터에서 남을 사랑하게 도와주소서.	
(3) 죄를 지었을 때 ·저를 용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면)

일터에서의 언어습관
(1) 말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왜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려고 하는가? ·이 말이 듣는 사람을 세우는가, 아니면 파멸시키는가?
(2) 자신에게 3가지 질문 ·친절한 말인가? ·진실한 말인가? ·꼭 필요한 말인가?

(뒷면)

[4] 영성용 휴대카드 #4

9-1	일터를 떠날 때 (돌아보기)
·(오늘) 무슨 일을 했는가? ·(오늘) 소홀하게 한 일은 없는가? ·(오늘) 최선을 다해 일하였는가? ·(오늘) 기도하기에 힘썼는가? ·(오늘) 말씀묵상을 하였는가? ·(오늘)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였는가? ·(오늘)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았는가?	

(앞면)

9-2	일터를 떠날 때 (마감의 기도)
·주님은 일터에서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일을 마치고 일터를 떠나고자 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일터에서 행한 잘못을 용서하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집으로 가는 길도 함께 하시며 안전으로 지켜주소서.	

(뒷면)

[5] 영성용 휴대카드 #5

[1일]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라	
말씀	“중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골 3:22).
묵상	①일터에서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는가? ②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눈가림만 하지는 않은가? ③사람이 아닌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④성실한 마음으로 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가? ⑤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앞면)

[2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 5:16-18)
묵상	①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②나는 일터에서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가? ③나는 일터에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④나는 일터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⑤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고 있는지를 돌아본다면?

(뒷면)

[6] 영성용 휴대카드 #6

[3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요삼 1:2)
묵상	①오늘 나의 영혼은 잘되고 있는가? ②오늘 나의 범사는 잘되고 있는가? ③오늘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강건한가? ④오늘 누구를 위하여 잘되기를 간구하였는가? ⑤오늘 잘되기를 위하여 간구하지 못한 사람은 없는가?

(앞면)

[4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우심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시 121:1-2).
묵상	①오늘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었는가? ②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가? ③하나님의 도와주심에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가? ④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⑤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취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뒷면)

[7] 영성용 휴대카드 #7

[5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심판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 9:27).
묵상	①이 땅에서 내게 남은 날 수가 얼마나 될까? ②오늘이라도 나를 부르실 수 있다고 생각하나? ③오늘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어떻게 평가하실까? ④그 동안 얼마나 주님을 위해 살아왔는가? ⑤앞으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가?

(앞면)

[6일] 주님의 아름다운 덕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벧전 2:9).
묵상	①주님은 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을까? ②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③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선포하고 있는가? ④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덕은 무엇일까? ⑤일터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비취지고 있나?

(뒷면)

[8] 영성용 휴대카드 #8

[7일] 십계명 중 제1계명	
말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출 20:3).
묵상	①주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있지는 않은가? ②일하면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자 힘쓰는가? ③주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을 느끼고 있는가? ④오늘 행한 일 중 주님 기뻐하실 일은 무엇인가? ⑤오늘 행한 일 중 주님 싫어하실 일은 없었는가?

(앞면)

[8일] 죽어야 사는 진리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 12:24).
묵상	①한 알의 밀처럼 일터에서 희생하고자 힘쓰는가? ②친절하며 다른 사람을 평등하고 귀히 대하는가? ③나 자신을 죽이며 더욱 힘써야 할 부분은? ④나로 인해 기쁨이 있는가, 근심 걱정을 주는가? ⑤나로 인해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있는가?

(뒷면)

[9일]부터 [31일]까지 '일자별 말씀묵상'은 앞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제작하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9] 영성용 휴대카드 #9	[9일](앞면), [10일](뒷면)
[10] 영성용 휴대카드 #10	[11일](앞면), [12일](뒷면)
[11] 영성용 휴대카드 #11	[13일](앞면), [14일](뒷면)
[12] 영성용 휴대카드 #12	[15일](앞면), [16일](뒷면)
[13] 영성용 휴대카드 #13	[17일](앞면), [18일](뒷면)
[14] 영성용 휴대카드 #14	[19일](앞면), [20일](뒷면)
[15] 영성용 휴대카드 #15	[21일](앞면), [22일](뒷면)
[16] 영성용 휴대카드 #16	[23일](앞면), [24일](뒷면)
[17] 영성용 휴대카드 #17	[25일](앞면), [26일](뒷면)
[18] 영성용 휴대카드 #18	[27일](앞면), [28일](뒷면)
[19] 영성용 휴대카드 #19	[29일](앞면), [30일](뒷면)
[20] 영성용 휴대카드 #20	[31일](앞면)

[21] 영성용 휴대카드 #21

섬김 점검표	
1	상급자에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순복하였는가?
2	다른 사람이 무엇을 요청할 때 선한 일이라면 이행하고자 힘썼는가?
3	다른 사람에게 정중하고 부드러운 예절로 대하며 인정하였는가?
4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였는가?
5	협담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명성을 보호하였는가?
6	외로운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었는가?

(앞면)

7	병자를 문안하고 슬픔 당한 사람을 위로하였는가?
8	우는 사람과 함께 울며 아픔과 고난을 나누었는가?
9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려 힘쓰며 도와주었는가?
10	자신만 승진하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잘 되기를 바랐는가?
11	실패자를 격려하고 잘한 사람을 칭찬하였는가?
12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허물을 용서하였는가?
13	친절하게 인사하며 이름/직책을 다정하게 불렀는가?
14	불쾌하고 더러운 말이 아닌 선한 말을 하였는가?
15	나는 이웃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았는가?

(뒷면)

참고문헌

1. 국문 서적

- 권택조. *기독교 영성신학*. 서울: CLC, 2009.
- 김경재. *영성신학서설*.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5.
- . *그리스도인의 영성훈련*.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0.
- 김성원. *평신도 해방과 저자거리 영성의 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1.
- 김현웅. *영성신학과 훈련*. 전주: 전주대학교출판부, 2003.
- 김현진. “평범한 사람들의 사랑과 치유의 등지, 영국의 포스트 그린 공동체.” *빛과 소금* 83 (1992년 2월): 60-65.
- 민종기. “정치적 제자도와 기독교인의 사명.” *기독교와 삶의 정치세미나* (2008년 4월 3일).
- 박선영. “신우회 봉사활동을 시작하려는 이들에게.” *빛과 소금* 271 (2004년 6월): 64-65.
- 방선기. *그리스도인의 일상다반사*. 서울: 포이에마, 2010.
- 손경구. *습관과 영적 성숙*. 서울: 두란노, 2002.
- 양승훈. *일에 대한 성경적 관점*. 밴쿠버, 캐나다: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2001.
- . *일상생활 영성*. Fuller Theological Seminary 강의안 (Fall 2011).
- 양재서. *기도 이해의 난제들*.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2009.
- 오성춘. *영성훈련의 실제*. 서울: 성지출판사, 1992.
- 오성춘 외 11인. *기독교인의 직업과 영성*.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1.
- 운평어문연구소 편. *금성판 국어사전*. 서울: 금성교과서, 1996.
- 유해룡. *하나님 체험과 영성수련*.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사, 2009.
- 이경섭. *개혁주의 영성체험*. 서울: 예루살렘, 2005.
- 이상만. *영성이 이끄는 삶*. 서울: 오이코스, 2009.
- 이성희. *수도원 영성의 향기*. 서울: 두란노, 2004.

- 이정근. *기독교교육신학 연구논문집(하)*. 서울: 한빛, 2007.
- 이정석. “영성이란 무엇인가.” 한국신학마당: 영성신학 (2004년 8월 20일).
- 이중표외 11인. *교회발전을 위한 영성개발*. 서울: 콤파출판사, 1991.
- 이후정. *기독교 영성이야기*. 서울: 신앙과지성사, 2013.
- 장영출. *내 안에서 살아 숨쉬는 생명의 영성*. 서울: 나침반, 2012.
- 전가화. *진정한 영성*. 서울: 믿음의집, 1988.
- 정원범 외. *영성수련과 영성목회*. 서울: 한들, 2009.
- 지용훈. *말씀으로 기도하라*. 서울: 규장, 2013.

2. 번역 서적

- Augustine. *하나님의 도성 (The City of God)*. 정정숙 역. 서울: 정음출판사, 1983.
- Banks, Robert. *일상생활 속의 그리스도인 (Redeeming the Routines Bringing Theology to Life)*. 한화룡 역. 서울: IVP, 2001.
- Beeke, Joel R. *개혁주의 청교도 영성 (Puritan Reformed Spirituality)*. 김귀탁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9.
- Bonhoeffer, Dietrich. *신도의 공동생활 (Life Together)*. 문익환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 Calvin, John. *기독교 강요 (Institution of the Christian Religion)*. 1536년 초판. 양낙홍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3.
- _____.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하여 (Golden Booklet of True Christian Walk)*. 오태용 역. 서울: 엠마오, 1987.
- Compolo, Tony. *일터에 사랑 (Everything You've Heard Is Wrong)*. 이승희 역. 서울: 홍성사, 1993.
- Dillow, Linda. *일상의 예배 (Satisfy My Thirsty Soul)*. 오현미 역. 서울: 좋은씨앗, 2009.
- Edwards, Gene. *블루칼라 예수 (Your Lord Is a Blue Collar Worker)*. 박선규 역. 서울: 미션월드, 2006.
- Engene, Charles Van. *모이는 교회 흠어지는 교회 (God's Missionary People)*. 임윤택

- 역. 서울: 두란노, 1999.
- Ellul, Jacques.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The Presence of Kingdom)*. 이문장 역. 서울: 대장간, 1998.
- Flynn, Mike, and Doug Gregg. *내적 치유와 영적 성숙 (Inner Healing)*. 오정현 역. 서울: IVP, 2008.
- Foster, Richard J. *돈 섹스 권력 (Money, Sex and Power)*. 김영호 역. 서울: 두란노, 1993.
- . *영적훈련과 성장 (Celebration of Discipline)*. 권달천/황을호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9.
- . *기도 (Prayer)*. 송준인 역. 서울: 두란노, 1998.
- Foster, Richard J., and Emille Griffin. *영성고전산책 (Spiritual Classics)*. 방성규 역. 서울: 두란노, 2006.
- Guinness, Os. *소명 (The Call)*. 홍병룡 역. 서울: IVP, 2006.
- Hagin, Kenneth E. *믿음의 양식 (Faith Food)*. 김진호 역. 서울: 믿음의말씀사, 2007.
- Henry, Matthew. *날마다 하나님과 (Directions for Daily Communion with God)*. 김순희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3.
- Hillman, Os. *일터사역. (The 9 to 5 Window)*. 조계광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7.
- Hinson, E. Glenn. *기독교 영성목회 (Spiritual Preparation for Christian Leadership)*. 엄성옥 역. 서울: 은성, 2000.
- Holmes, Urban T. *목회와 영성 (Spirituality for Ministry)*. 김외식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 Johnston, Jon. *가장 멋진 그리스도인의 생활 (Christian Excellence Alternative to Success)*. 김지찬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9.
- Kempis, Thomas A. *그리스도를 본받아 (Imitation of Christ)*. 최치남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8.
- Kurzweil, Ray. *기술이 인간을 초월하는 순간 특이점이 온다 (The Singularity Is Near)*. 김명남/장시형 역. 서울: 김영사, 2011.

- Ladd, George Eldon. *하나님 나라의 복음 (Scriptural Studies in the Kingdom of God)*. 서울: 서로사랑, 2001.
- LaHaye, Tim. *성령으로 변화된 기질 (Transformed Temperaments)*. 권명달 역.. 서울: 보이스사, 1994.
- Lawrence, Brother. *하나님의 임재연습 (The 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 윤종석 역.. 서울: 두란노, 2011.
- . *하나님의 임재연습 (The 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 오현미 역. 서울: 좋은씨앗, 2011.
- MacArthur, John. *영적 성장의 열쇠 (The Keys to Spiritual Growth)*. 정길호 역. 서울: 소망, 2010.
- MacDonald, Gordon.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라 (Restoring Your Spiritual Passion)*. 박가영 역. 서울: 하늘사다리, 1996.
- Maxwell, John, Stephen Graves, and Thomas Addington. *크리스천이 직장에서 성공하는 법 (Life @ Work)*. 김용환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8.
- McGrath, Alister. *종교개혁시대의 영성 (Roots That Refresh)*. 박규태 역. 서울: 좋은씨앗, 2005.
- Murray, Andrew. *성령님의 임재연습 (In Search of Spiritual Excellence)*. 정혜숙 역. 서울: 브니엘, 2011.
- . *위대한 영성 (The Inner Life)*. 정혜숙 역. 서울: 브니엘, 2010.
- . *겸손(Humility)*. 강철성 역. 서울: CLC, 2006.
- . *하나님과의 교제 (The Secret of Fellowship with God)*. 김재권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4.
- .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일할 것인가 (How to Work for God)*. 윤병하 역. 서울: 두란노, 1993.
- Neighbour, Ralph W. *영적 성장의 기본진리 (Christian Life)*. 이명희 역. 서울: 침례회출판사, 1992.
- Nouwen, Henri J. *영성의 씨앗 (Creative Ministry)*. 송인설 역. 서울: 그루터기하우스, 2005.

- _____.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 (The Selfless Way of Christ)*. 편집부 역. 서울: IVP, 2004.
- _____. *영성에의 길 (Finding My Way Home)*. 김명희 역. 서울: IVP, 2004.
- _____. *헨리 나우웬의 영성편지 (Letter to Marc About Jesus)*. 윤종석 역. 서울: 복있는사람, 2004.
- Peace, Richard. *영혼을 살리는 대화 (Holy Conversation)*. 심연희 역. 서울: 예수전도단, 2009.
- Peterson, Eugene H.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 (Leap over a Wall: Early Spirituality for Everyday Christians)*. 이종태 역. 서울: IVP, 2009.
- _____. *그 길을 걸으라 (The Jesus Way)*. 양혜원 역. 서울: IVP, 2007.
- Pink, Arthur W. *영적인 실천 (Practical Christianity)*. 이순근 역. 서울: 엠마오, 1989.
- Rainey, Dennis & Barbara.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 만들기 (Growing a Spiritually Strong Family)*. 김창동 역. 서울: 디모테, 2005.
- Rice, Howard L. *개혁주의 영성 (Reformed Spirituality)*. 황성철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4.
- Richards, Lawrence O. *신앙성숙과 영성훈련 (A Practical Theology of Spirituality)*. 지상우 역. 서울: 여수론, 1989.
- Richardson, Alan. *성서의 노동관 (The Biblical Doctrine of Work)*. 강금권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1.
- Rogers, Mike and Debi. *일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Experiencing God in Your Workplace)*. 박영철 역. 서울: 요단출판사, 2006.
- Rolheiser, Ronald. *영성을 찾아서 (Seeking Spirituality)*. 오진탁 역. 서울: 그루터기하우스, 2002.
- Schaeffer, Francis A. *위기에 처한 복음주의 (The Great Evangelical Disaster)*. 윤두혁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7.
- Sheldon, Charles M.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In His Steps)*. 유성덕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12.
- Sittser, Gerald L. *하나님의 뜻 (The Will of God)*. 윤종석 역. 서울:

- 성서유니온선교회, 2003.
- Stevens, Paul.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Down-to-Earth Spirituality)*. 최동수 역. 서울: IVP, 2006.
- . *21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 (The Abolition of the Laity)*. 홍병룡 역. 서울: IVP, 2003.
- . *현대인을 위한 생활영성 (Disciplines of the Hungry Heart)*. 박영민 역. 서울: IVP, 2002.
- Stott, John. *현대사회문제와 기독교적 답변 (Issues Facing Christians Today)*.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 . *제자도 (The Radical Disciple)*. 김명희 역. 서울: IVP, 2010.
- Sweet, Leonard. *관계의 영성 (Out of the Question... into the Mystery)*. 윤종석 역. 서울: IVP, 2011.
- Swindoll, Charles R. *섬기는 삶은 이처럼 아름답다 (Improving Your Serve)*. 이재기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8.
- Tan, Siang-Yang. *섬김 (Full Service)*. 조계광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7.
- Thomas, Gary L. *내어드림의 영성 (The Glorious Pursuit)*. 윤종석 역. 서울: CUP, 2009.
- Tozer, Aiden W.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예배자 (Whatever Happened to Worship)*. 안보현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9.
- . *예배인가 쇼인가? (On Worship and Entertainment)*. 이용복 역. 서울: 두란노, 2006.
- Veith, Gene Edward, Jr. *평범한 일속에 특별한 소명 (God at Work)*. 김명렬 역. 서울: 멘토, 2003.
- Wagner, Peter. *성령의 은사와 교회성장 (Your Spiritual Gifts Can Help Your Church Grow)*. 권달천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2.
- Warren, Rick. *목적이 이끄는 삶 (The Purpose Driven Life)*. 고성삼 역. 서울: 디모테, 2003.
- . *더불어 삶 (Better Together)*. 박원철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 White, James F. *개신교 예배 (Protestant Worship)*. 김석한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9.
- Willard, Dallas. *영성훈련 (The Spirit of the Disciple)*. 엄성옥 역. 서울: 은성출판사, 1993.
- Willard, Dallas 외. *제자도의 영성 형성 (The Kingdom Life)*. 홍병룡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2.

3. 외국 서적

- Brother Lawrence. *The 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 Springdale, PA: Whitaker House, 1982.
- De Sales, Francis. *Introduction to the Devout Life*. Translated by E. J. Carney. New York: Alba House, 1992.
- Feucht, Oscar E. *Everyone a Minister*. St. Louis, MO: Concordia Publishing House, 1976.
- Niebuhr, H Richard. *The Kingdom of God in America*. New York: Willett, Clark & Company, 1937.
- Stott, John. *Decisive Issues Facing Christians Today*. Grand Rapids, MI: Fleming H. Revell, 1998.
- Watson, David. *Fear No Evil: One Man Deals with Terminal Illness*. Wheaton, IL: Harold Shaw Publishers, 1985.

Vita of
Dae Ryong Moon

Present Position:

Associate Pastor of OC Chunghyun Church
(11231 Chapman Ave. Garden Grove, CA 92840)

Personal Data:

Birthday: September 11, 1956
Marital Status: Married to Bokkeun Chang
 one daughter(Rebecca) and one son(Eric)
Home Address: 12850 Palm St, Unit 5, Garden Grove, CA 92840
Phone: 714-705-3233
Denomination: Southern Baptist Convention(SBC)

Education:

B. A.	Korean Military Academy	April 3, 1975
M. PA.	Chung-Ang University	August 31, 1999
M. Div.	Midwest Theological Seminary	May 27, 2005
D. 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June, 2014

Personal Experience:

5/2003 - 10/2005 Houston Calvary Baptist Church. Missionary
11/2005 - 11/2006 Houston Calvary Baptist Church. Pastor
12/2006 - 12/2010 Nadrim Baptist Church. Senior Pastor